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4월 19일(음력 3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574 호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사찰 문턱 더 낮춰 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찰 늘어 … 경사로 등 호응
주차장 · 유도블럭은 여전히 부족, "종합계획 필요"

'장애인의 날' 맞아 실태조사

"절 문턱이 낮아 졌네요."

장애인들에게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 건물이 '문턱 높은 곳'이란 이미지를 벗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이 경사로와 전용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은 물론 기존의 사찰도 시설 보완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경우 설계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마련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역시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경사로 등을 설치해 놓았다. 통영 미래사의 경우 장애인 통로와 화장실은 물론 요사채 등 모든 시설에 완벽한 접근성을 갖춘 도량으로 유명하다. 강릉 현덕사, 용인 법륜사도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염두에 두고 건축됐다.

또 '큰절'로 통하는 봉은사, 신흥사, 월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등 전통사찰들도 전통양식의 대웅전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꾸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3월 대웅전 우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완주 위봉사의 경우도 장애인들의 성지순례나 신행활동 코스로 부각되고 있다.


완주 위봉사 대웅전에 설치된 경사로.

그러나 아직 사찰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다. 일부 교구본사급 전통사찰 등이 경사로와 화장실 설치에 나선 것과 달리 장애인 편의 시설에 무관심한 사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사찰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공간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일부 건물에만 경사로가 설치되고 나머지 공간은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등 보다 포괄적인 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지적이다. .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최명숙 간사는 "높은 문턱 등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법당 안으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찰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종단적 노력도 미미하다. 조계종의 경우 1996년 불교계 최초로 장애인을 위해 불교회관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교구본사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종단차원의 캠페인까지 전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른 종단도 장애인 시설을 위한 행정지도를 공식적으로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범종단적으로 편의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사찰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방안을 연구하거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염불만일회 법주 설산 스님


시방세계 9면
중국 항저우 세계불교포럼 현장

학내종교자유 진단 4면

인도에 초전법륜 한글비 16면

차 이름에 담긴 뜻은? 26면


산문밖의 禪 17면
한복명장 김복연씨



제1차 세계불교포럼 성황 중국 항저우에서 13~16일 개최된 제1차 세계불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위해 연단에 오른 각국 불교지도자들. 오른쪽부터 라오청세계불교승가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국정부가 임명한 판첸라마, 마하수메다 텝부 캄보디아 승왕, 사쿠리코오지 일본 중산사 원로, 다쇼상게왕쵸 부탄문화부장관. / 관련기사 9면
중국 항저우=김주일 기자

"나눔으로 부처님오신 뜻 새기자"

지관 스님 기자간담회, 봉축행사 선포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되새기며,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봉축행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 봉축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전국 주요봉축일정표 3면

특히 이번 봉축행사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기 위해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등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또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인 '3000배 정진기도', '자비의 연꽃달기' 등 자비보살행의 실천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중계
4월 22일 오전 10시30분
buddhapia.com
월정사 수행학림 동참
(033)332-6661~5



4월 25일 저녁 8시 50분 열리는 시사회에 독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붓다뉴스(buddhanews.com) 팝업창을 참조하세요.

부처님 · 10대 제자 사리 한국온다

보성 대원사티벳박물관 4월 24일~5월 15일, '미륵 프로젝트' 일환

석가모니 부처님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불교 성인들의 사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와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 공동 주최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리는 '미륵불상 심장전(心藏殿) 사리 세계 순례 전시회'에서는 부처님과 가섭 · 사리불 · 목련 · 아난다 등 부처님 10대 제자, 그리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 예세 쵸겔 등 티베트 불교 성인들의 사리 1000여 과가 선보인다.

이 전시회는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가 세계 최대의 불교성지 건립을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 프로젝트'의 일환. 마이트레야 프로젝트는 부처님의 열반지이자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의 세계 최대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주변에 불교유물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시청각 극장, 공원 등의 부대시설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0층 높이에 이르는 불상 안에는 대웅전, 선방 등 수행공간이 마련되며,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사리도 이 불상 안에 안치된다.

대승불교전통보존회는 세계 100여 곳에 지부를 두고 있는 티베트 불교 단체로, 마이트레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100여개 도시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취돼 부처님 사상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터뷰 14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세워질 미륵불(높이 152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www.shmall.net
달마의 氣
건강과 행운의 징표를 그대에게 선물합니다.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1588-3278
新春大福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달마란 예부터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맥을 차단하고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 목걸이, 귀고리를 착용하여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세요. 반드시 행운이 당신곁에 함께 합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01호

선암사·인각사 도난 성보 돌려 받을수 있나?

'도난문화재' 판결 때 가능

문화재청, 경매 사이트 등서 삽삼조사도·발원문 회수

최근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서 회수된 순천 선암사 팔상도 등 성보문화재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문화재보호법 제81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82조에는 매장문화재나 도난문화재임을 알고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순천 선암사, 군위 인각사 등에서 도난당했다가 이번에 회수된 성보문화재는 재판을 거쳐 도난문화재임이 확인되면 해당 사찰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화재청이 보관하게 된다.

이번에 회수된 성보문화재를 보관했던 사람들은 형사처벌 된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문의를 하지 않고 몰래 보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불법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은 분명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만약 도난 문화재임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한편 순천 선암사가 소장하던 불화가 불법 거래 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4월 12일 강서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과 공조 수사를 통해 선암사 팔상도 2점이 서울의 한 경매회사에서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유자의 변호인을 통해 성보문화재를 회수했다.

1780년 조성된 것으로 조성시기와 배경, 시주자를 알 수 있는 화기가 남아있는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선암사 팔상도는 8폭 모두 도난당했으나 이번에 사문유관상과 설산수도상만이 회수됐고 나머지 6폭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또 모 제약회사 회장과 경주 모 대학 교수의 저택을 압수수색해 선암사 '삽삼(33)' 조사도 3점과 군위 인각사 불복장 발원문 1점을 각각 압수했다. 선암사 삽삼조사도는 11폭 가운데 4폭이 도난당했지만 이번에 3폭이 회수됐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강신태 반장은 "선암사만해도 40점이 이상의 성보문화재의 도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문화재가 돈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국민이 우리 문화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천태종 '정산 총무원장 시대' 출발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4월 9일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취임했다. 각 종단 대표와 정관계 인사 등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법회는 26년간 천태종 종무행정을 이끌어왔던 운덕 前 총무원장의 이임식을 겸했다. 법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길을 넓혀 달라"고 말했다.(사진 오른쪽부터 종정 도용 스님, 前 총무원장 운덕 스님, 정산 스님) 단양=김주일기자

수목장에 비석 설치 금지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입법예고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심는 장묘방식으로 인해 친환경적 장묘법으로 불리는 '수목장(樹木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4월 5일, 환경 훼손이 적은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의 설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수목장을 장려하고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자연장을 '화장 후 뼛가루를 꽃밭이나 잔디, 나무 아래 등에 묻는 장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 구역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되며, 100㎡ 이상일 경우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 이상의 경우에는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으나 종교법인일 경우 재단설립이 필요치 않다. 비석 등 각종 석조물 설치는 금지된다.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장을 시작한 영천 은해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사찰 인근 1만여 평의 소나무숲에 수목장을 개설한 뒤 불과 1년만에 100여 그루의 나무에 위패를 안치했으며 올해에도 한 달에 10건 이상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월정사 봉선사 화계사 금선사 내원정사 갑사 표충사 등 전국 20여 곳의 사찰이 수목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비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 법타스님 선출

8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23대 주지후보로 현 주지 법타 스님이 선출됐다.

은해사는 4월 8일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법타 스님을 만장일치로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법타 스님은 1965년 법주사에서 추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1974년 일타 스님에게 건당 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초대 대구불교방송사장, 제20·22대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대구 불교방송운영위원장, 동국대 석림동창회장,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배지선 기자

달라이라마 6월에 한국올까?

광주시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초청, 비자발급 신청

그동안 여러 차례 방한이 좌절됐던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는 4월 13일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라마가 광주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6월 한국방문에 필요한 비자발급을 요청해 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또 "달라이라마가 초청장 답신을 통해 방한하게 되면 평화와 비폭력의 믿음에 기초해 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광주정상회의는 6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행사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김대중 前 대통령, 고프바초프 등과 퍼크워시 코퍼런스 등 3개 수상단체 등이 참석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주 기자

"공원입장료 폐지 마땅" 조계종, 공청회서 주장

국회사회복지포럼이 4월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국립공원입장료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종교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상당수 국민들이 억울하게 공원입장료까지 물고 있음에도 이들의 부당한 피해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공원입장료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향후 공원입장료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용수 기자

포교역량 조사 나선다

조계종, 수도권 14곳 사찰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공동으로 수도권 14개 사찰 포교역량 현황 조사에 나선다.

포교원과 포교분과위는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관련 자료를 정리한 다음 조사표를 마련해 올 부처님오신날 이후 해당 사찰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5월 중 해당 사찰을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현황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전통불교문화사업센터 재설계

9월 착공, 승가자문위원 50명 위촉

공주 마곡사 인근에 새워질 예정이었던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기존설계가 전면 백지화되고 9월에 새로 착공된다.

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은 4월 1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2004년 12월 센터 건립공사 착공 후 사업 진행 중 대지 안에서 60여기의 조선시대 후기 기와가마터가 집중 발굴됨에 따라 발굴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삼풍건축과 기본설계비변상 및 지위변경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이로재건축사사무소와 새로운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날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11명과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16명,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을 비롯한 중진스님 17명, 총무부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6명 등 총 50명이 승가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남동우 기자

자비복지타운 시공사 부도로 '차질'

승가원, 보증업체와 협상중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천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건립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승가원 관계자는 "시공사인 청원종합건설이 4월 4일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계약당시 보증을 섰던 건설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남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자비복지타운 불사를 후원한 수많은 불자들의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총 공사비용은 44억 6천여만 원으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현재 85%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공사 대표가 부도 후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편, 승가원은 14일 공사를 원만히 회향을 바라는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건립, 소쩍새 이전 불사 속득성취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대학원 학생모집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Ⅰ.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	전 공	취 득 학 위
불교학과	불 교 학	불교학 석·박사
	명 상 학	명상학 석·박사
상담심리학 과	상담심리학	상담학 석·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미술치료학	

Ⅱ.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및 취득예정자

Ⅲ.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6. 5. 15(월)~5. 25(목)
●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2006. 5. 27(토) 10:00
3.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고사
4. 합격발표 : 2006. 6. 2(금) 10:00

Ⅳ. 특전
1.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 서울대, 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철학과의 연계 교육, 우수학생 전액 장학금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90-2800(代) 02)890-2811~2(直) / Fax 02)890-2899
우)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교 수 초 빙

1. 초빙분야

학 과	전 공	인원	취 득 학 위
상담심리학 과	자아초월상담학	1	비정년트렉전임교수
	요가치료학	1	비정년트렉전임교수
	미술치료학	1	비정년트렉전임교수

2.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신심이 돈독한 불교신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
라. 연구실적물(2003. 3. 1. 이후 발표물) 각 1부
마.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제출기한 : 2006. 4. 17 ~ 2006. 4. 27 17:00

5. 제 출 처
우) 153-831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행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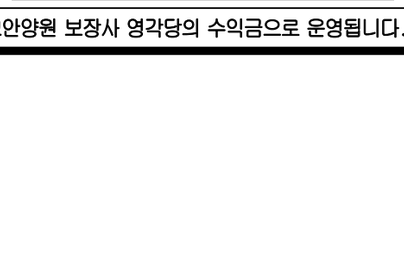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6.4.2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 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 외부사진


보장사 영각당 내부사진.


보장사 전경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 모집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보문중·고(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이사장:전덕해스님)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시설이 뛰어납니다.(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수익금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1호선(관악역) 도보 10분거리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 좌청룡 우백호가 분명한 명당입니다.
◈ 안양예술공원에서 가족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02) 534-4444, (031) 471-3322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324-10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의료 지원단 '반갑다 연우야!' 발족

중신회-동국대 일산병원 손잡고 소외계층 도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활동을 벌일 불교의료지원단이 발족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의무원장 이석현)은 4월 12일 송현클럽에서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 연우야!' 발대식을 개최했다.

'반갑다 연우야!'는 중앙신도회가 보시한 진료차량에 일산불교병원 의료진이 결합해 구성되며, 의료소외 지역인 농어촌 지역은 물론 일반 산업현장, 외국인노동자, 전국 사찰과 산간벽지 주민들은 물론 산중에 홀로 계시는 스님들의 건강도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정 회장(왼쪽)과 이석현 의무원장이 업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신행단체에 대한 진료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는 4월 30일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의무원장도 "차량을 보시한 중앙신도회와 함께 부처님의 자비 사상과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며 "사찰과 불자가 부르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총무국장 정범, 사회국장 혜용 스님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문병호 · 이계안 의원과 중앙신도회 임원, 일산불교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유철주 기자

윤이상음악회 금강산서 열린다

윤이상평화재단이 재단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금강산 윤이상음악회'를 4월 29일 개최한다. 故 윤이상 선생의 음악 업적 발전과 명예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금강산 윤이상음악회'는 1부 금강산 신계사에서의 기념식에 이어 2부 문화회관 음악회, 공연 후의 리셉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는 북측의 평양 윤이상관현악단 단원들을 초청해 처음으로 그들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 TIMF앙상블 및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평양 윤이상관현악단을 환영하는 짧은 공연을 선보인다.

평양 윤이상 관현악단은 1984년 개소한 윤이상음악연구소 산하의 2관 편성 오케스트라다. 강지연 기자

목탁소리

동국대 총동창회와 개교 100주년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회장 선출을 두고 총동창회가 대립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재철 · 황명수 고문측은 4월 10일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류근창(문학부 · 50학번) 고문을 총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총동창회 사무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재철 · 황명수 고문측은 "지난 2월 임시이사회에서 두 고문이 새 회장을 선출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동창회 사무처는 "총동창회 회칙에 따르면 임시 이사회 및 총회는 회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대립 양상 이면에 동국대 이사 및 이사장 선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관례상 총동창회장이 동국대 이사를 해왔고, 총동창회 지분으로 또 다른 이사 1명을 추천해왔기 때문에, 올 5월 예정인 이사장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총동창회의 모습이 '조계종 정치판'을 꼭 빼닮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총동창회는 "개교 100주년 축하 분위기에 도움은 못될 지언 정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원효성사 열반 1320주년 추모대재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민족의 스승 원효성사의 열반대제에 불자여 다함께 모여 추모합시다"

- 증 명 : 벽송
- 봉행위원장 : 향 운
- 부 위 원 장 : 무진,정향,도선,창해,도범,청운,성해,청은,지상,인담
- 집행위원장 : 상 운
- 부 위 원 장 : 법성,금봉,원광,법선,도봉,운학,운오,효담,인명,운영,명관,지광,혜담,일륜,법경,범산,가은,연운,도자,석주,명석,도천,운담,승보,혜인,홍인
- 위 원 : 지견,무상,효산,화운,도경,태운,원봉,도공,성관,소연,법산,청남,성묵,청광,해인,거산,장산,성광,원경,등명,향륜,진명,송주,현수,신라,원담,지암,의전,도연,대안,법천,청산,혜원,성문,영암,덕운,인월,창현,지수,득원,대원,운암,도각,정오,성원,원각,진해,청화,혜공,상기,경운,선무,지호,범일,각초,해운,영산,도일,지광,해윤,정광,혜인,월봉,선인,대련,만법,원오,법경,덕보,진산,오산,일화,봉천,지선,행선,환학,경법,법진,지영,행엽,중일,영산,무공,지현,심상,법선,지원,승현,정각,송정,환원,효경, 각사암 신도회,신행단체일동

일 시 : 불기2550(2006)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경주 보문단지 내)
참석대상 : 불교도 및 전종도

◆ 주최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 : 대한불교원효종 ◆ 연락처 : 총무원 02)735-0501~2

제15대 총무원장 향운스님 취임법회

- 증 명 : 벽송
- 지 도 위 원 : 무진,정향,도선,도범,창해
- 봉행위원장 : 청 운
- 부 위 원 장 : 성해,인담,지상,혜인,홍인
- 위 원 : 법성,금봉,원광,법선,도봉,운학,운오,효담,인명,운영,상운,명관,지광,혜담,일륜,법경,범산,가은,연운,도자,석주,명석,도천,승보,운담,종도,지견,무상,효산,화운,도경,태운,원봉,도공,성관,소연,법산,청남,성묵,청광,해인,거산,장산,성광,원경,등명,향륜,진명,송주,현수,신라,원담,지암,의전,도연,대안,법천,청산,혜원,성문,영암,덕운,인월,창현,지수,득원,대원,운암,도각,정오,성원,원각,진해,청화,혜공, 상기,경운,선무,지호,범일,각초,해운,영산,도일,지광,해윤,정광,혜인,월봉,선인,대련,만법,원오,법경,덕보,진산,오산,일화,봉천,지선,행선,환학,경법,법진,지영,행엽,중일,영산,무공,지현,심상,법선,지원,승현,정각,송정,환원,효경,각사암 신도회, 신행단체일동

일 시 : 불기2550(2006)년 4월 27일(목) 오전11시30분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대한불교원효종 연락처 : 총무원 02)735-0501~2

불기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주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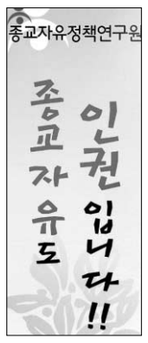
봉축위원회 주요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시청앞 점등식		4.18(화) 오후7시	시청앞 서울광장
연등축제	전통등전시회	4.28(금)~5.5(금) 개막4.28 / 오후2시	강남 봉은사
	연등놀이	4.29(토) 오후7시~9시	인사동 – 조계사앞길
	불교문화마당(거리행사)	4.30(일) 낮12시~오후8시	조계사앞길
	외국인 등경연대회	4.30(일) 오후2시~5시	조계사앞길
	어울림마당(연등법회)	4.30(일) 오후4시30분~6시30분	동대문운동장(야구장)
	제등행렬	4.30(일) 오후7시~10시30분	종로(동대문–조계사앞)
	연등음악회, 대동한마당	4.30(일) 오후9시30분~11시	종각 사거리
봉축 법요식		5.5(일) 오전10시	조계사

지역별 봉축행사

봉축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장소	연락처
공주 마곡사	연꽃사진 전시회 제3회 신록축제 방생,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4월29일–5월 5일 4월29일–30일 5월 5일 5월 5일	마곡사 마곡사 마곡사 마곡사 대웅전	041)841–6221
영천 은해사	봉축탑 설치 영천사암연합회 법요식 봉축위문 및 법회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4월20일 4월22일 4월25일–5월2일 5월 5일 5월 5일	영천시청 앞 로터리 영천 실내체육관 군부대, 교도소 등 은해사–치일리 일원 은해사 대웅전	054)335–3318
하동 쌍계사	봉축탑 점등식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5월 1일 5월 5일	전도삼거리 쌍계사 대웅전	055)883–1901
양산 통도사	경로행사 보궁 헌다제 장엄등 경연대회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통도사 자비원 통도사 사리탑 하노전 일대 적멸보궁 대웅전 앞 통도사 대웅전	055)382–7182
의성 고운사	산사음악회, 위령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4월22일 5월 5일	경내 고운사 대웅전	031)527–5974
남양주 봉선사	군부대, 경로당 위문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5월 5일 5월 5일	군부대, 경로당 봉선사 대웅전	031)527–5974
경기 양평 봉축위원회	연등축제	5월 5일	양평종합고등학교 군청앞사거리	031)772–8776
의정부 사암연합회	봉축법요식, 연등축제 효 나들이	4월30일 5월 2일	시청앞 평화의 광장 용문사, 남이섬	031)837–6114
수원시불교연합회	점등식 연등축제	4월15일 4월29일	만석공원 만석공원	017)754–7475
경기 평택 사암연합회	봉축 대법회 및 경로잔치 연등축제	5월 1일 5월 5일	평택남부 문예회관 평택시내	031)655–3215
구리, 남양주 사암연합회	시청앞 점등식 봉축 대법회 및 장학금전달식	4월27일 4월28일	남양주,구리시 시청 남양주시 시청	031)594–7970
인천불교 사암연합회	연등축제	5월 5일	인천시내	032)434–9910
강원 원주 사암연합회	봉축산신대제 원주불교 음악제 봉축 바자회 봉축 전야제 법회 봉축탑 점등법회 연등축제 어린이백일장	4월12일 4월21일 4월23일 4월25일 4월25일 4월29일 5월 5일	구룡사 치악 예술회관 법웅사 원주웨딩 타운 원주역 법웅사 구룡사	033)732–4800
대전불교 사암 연합회	봉축 전야제 연등축제	4월29일 4월30일	그린타워 예식장 보문중, 고등학교	042)526–1080
천안불교 사암연합회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자비 실천행사(교도소, 군부대)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4월29일 5월 4일 5월 4일	천안삼거리공원 천안교도소, 경찰서 천안시청	041)557–1388
청주청원불교 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휘호 그리기 대회, 미술사진대회, 백일장 봉축 사진전 청소년문화예술제 연꽃등 나눠 주기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4월13일 4월20일 4월20일 4월22일 4월30일 4월30일	청주대교분수대 고인쇄박물관 관음사 관음사 시내일원 청주 무심천	043)294–0107
대구 봉축위원회	선덕여왕 숭모제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전국맹인불자 산행대회 찬불가 합창의 밤 임익선독창회 몽골불교후원의 밤 서부경찰서, 서구청 점등식 연등축제 봉축전야제 자비광명기원 타종식 어린이 과학축제 한마당 자비의손길(경로잔치,떡나누기 등)	4월12일 4월15일 4월16일 4월17일 4월18일 4월25일 4월26일 4월30일 5월 4일 5월 5일 5월 5일 4월26일–5월 3일	부인사 국채보상공원 갓바위 동구문예회관 동구문예회관 인터불고호텔 서구청 앞마당 두류야구장 천태종 대성사 경상감영공원 동대구역 자비의집,법왕사, 지산복지관 등	053)253–6388
상주사암연합회	점등식 연등축제	4월 9일 4월30일	상주시 문화원 앞 상주초등학교	054)534–0128
구미 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4월15일	원평동분수공원	054)481–2363
포항 사암연합회	연등축제	4월29일	죽도초교–포항역	011)803–7727
김천 불로사	어린이 사생대회 영화제	4월 9일 4월14일	불로사 불로사	054)453–7424
경남 마산 · 창원 불교연합회	연등탑 점등식 창원 연등축제 마산 연등축제	4월24일 4월29일 4월30일	마산시청광장 창원시청 앞 마산 운동장	055)222–1393
진주 사암연합회	봉축점식 연등축제 산사음악회 어린이청소년 부처님 그리기대회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4월15일 4월28일 5월 1일 5월 5일 5월 5일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의곡사 월경사 문화예술회관	055)747–0108
안동 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연등축제	4월20일 5월 5일	시청 분수대 안동초등학교–시내	054)858–2630
거제불교사암연합회 원융회	연꽃 음악회 위령제 연등축제	4월15일 4월16일 4월29일	거제문화예술회관 포로수용소 구현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055)636–8634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봉축위원회 결성법회 찬불가 합창 경연대회 봉축 상징물 점등식 부산발전3천배 철야정진기도 연등축제(연합법회, 제등행렬) 시각 장애인 나들이	4월 4일 4월19일 4월21일 4월28일 4월29일 4월30일	코모도호텔 충무홀 부산문화회관 부산역 광장 부산역 광장 부산역 ~ 서면 올산대공원	051)867–0501
기장 사암연합회	연등축제	4월30일	기장군청–기장시내	051)722–1751
울산광역시 봉축위원회	점등식 · 봉축 글짓기 대회 봉축대법회 / 연등축제	4월22일 4월27일	태화강 둔치 종하체육관	052)266–3318
광주광역시 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4월15일 4월28일 5월 5일	전남도청 앞 광주공원 각 사암	062)376–3223
고창불교 사암연합회	연꽃염주보시 군산교도소 법회 시가지점등식 자비의 손길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5월 1일 5월 4일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동리국악당 군산교도소 동리국악당 결식학생 동리국악당 각 사암	063)562–0502
해남불교 사암연합회	자비의 손길 대중강연회 문화마당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4월11일–5월 5일 4월27일 5월 1일 5월 1일 5월 5일	군부대,복지시설 등 해남군청 해남군청 해남군청–터미널 각 사암	061)534–5502
전주 봉축위원회	기원탑 점등식 연등제 어린이 큰잔치 인경체험, 거리 관불의식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청소년 모악축제	4월 8일 4월13일 4월22일 4월29일 4월29일 5월 5일 5월27일	롯데백화점앞통일로 35사단 세병호 전주 경기장 연등축제 행사장 전주시청광장 각 사암 금산사 특설무대	063)277–3497
조계사	장애인의 날 행사 동자승 출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3000배 용맹정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 붓다 워크캠프 어버이날 경로행사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봉축 어린이날 행사	4월14일–15일 4월21일–5월6일 4월21일 4월22일 4월23일 4월27일–5월 9일 5월 3일 5월 5일 5월 5일	금강산 경내 서울지방경찰청 대웅전 조계사 작은설법전 대웅전 앞마당 대웅전 일주문 앞	02)732–2183,4
봉은사	자비도량 참법기도 동자승 출가 체험 마음의 등 나누기 나눔으로 함께하는 무료차시음회 석주큰스님 학술 세미나 도농공동체 교류 및 판매전	4월18일–27일 4월23일–5월 7일 4월28일–5월 5일 4월29일–5월 5일 5월 1일 5월 4일–5월 5일	법왕루 선불당 보우당 앞 보우당 보우당 진여문–부도전	02)511–6070
도선사	어린이 사생대회 실달화원 장기자랑 및 자선바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관내 경로위안잔치	4월23일 5월1일 5월5일 5월14일	경내 경내 대웅전 경내	02)993–3161
관문사	제등행진 경로잔치 및 효부효행상 시상식	5월5일 4월26일	강남사거리	02)3460–5300
삼룡사	합장단 창단식 장학금 전달식	월26일 5월4일	구민회관	02)496–3839
삼광사	부산역 봉축상징물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봉축등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학생 글짓기, 그림대회 제12회 효행상 시상 및 제16회 경로잔치	4월21일 4월28일 4월30일 5월13일	부산역	051)808–7111
대성사	노인 무료급식(1천명, 매주 금요일	4월28일, 5월12일	경내	053)651–6108
광수사	불우이웃에 쌀 전달, 유성구청 점등식	4월21일	유성구청	042)823–0332
황룡사	특별기도 정진주간 점등식	4월16일~20일 4월28일	경내	032)567–2533
정광사	봉축전야제(문화행사)	5월4일	경내	052)277–7100
대광사	봉축특별기도	4월28일–5월5일	경내	031)715–3000

종교과목 선택권 없는 학교 아직도 많다



3월 31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식 출범

종교 사학의 종교자유 실태와 대책

종교자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와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종교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초중고교에서의 종교자유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학내종교자유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월 31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등, 이하 종자연)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종교사학의 종교자유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불교종립 학교들의 '종교자유' 현황은 어떤지 점검해본다.



지난해 10월 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4개 단체들이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강의석군이 발언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강의석군 문제제기로 공론화

이명박 서울시장, 정장식 前 포항시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언행은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대중앞에 드러냄으로써 은연중에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종교자유를 침해한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종교자유 침해 행위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는 듯 하다.

이와 달리 학내종교자유는 종교 교육이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개신교계 사학인 서울 대광고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군이 2004년 5월 '종교선택권'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됐다. 학생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학내 예배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일로 강의석군은 퇴학과 복학을 거듭했고, 급기야 사회 문제로 일파만파 확대됐다.

이후 대광고측이 시정을 약속하면서 강의석군의 '투쟁'은 일단락된 듯 했으나, 아직까지도 대광고는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미션스쿨종교자유, 종자연 등 단체들이 대광고 재단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당국, 자율에 맡긴다며 소극적 대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7대 종교 산하 사립학교는 482개에 달한다. 전체 사립학교 1974개의 24.4%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67개, 고등학교 227개에 이르고 있다.

각 종교들이 학교를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포교(선교)를 위해서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기적인 종교교육과 의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채플'이나 '자아와 명상'과 같은 필수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교육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개인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교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교육 당국의 강제 배정에 의해 학교에 입학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교 수업과 의식을 강요당하고 있다. 강의석군의 예도 바로 이런 구조적 모순에서 출발한다.

강의석군을 지지하며 대광고에 종교 교육 개선을 요청했던 류상태(前 대광고 교목)씨는 "아무리 뛰어난 명문 사학이라 할지라도 종교자유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학교는 거의 없다"며 "종교사학의 개교 이념과 교육부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종교자유침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학 자율성만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최대한 자율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공문을 통해 종교 과목외에 대체 과목을 편성할 것과 방과 후 종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등을 지도하고는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종자연 김기현 변호사는 "'자율'은 사실상 방치를 의미한다"며 "관할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동의' 요식행위에 그쳐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7월 현재 서울시내 종교계 설립 중학교 38곳 중 29곳, 고등학교 64곳 중 51곳에서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종교과목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재량을 줘야 한다는 교육부고시 제1997-15호를 이행하고 있는 학교도 총 5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신교 중학교 30곳 중 종교 대체 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14개, 고등학교는 51개중 33개 정도다. 정규 교과 시간외 강제적으로 특정종교 의식을 동반한 종교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30곳 중 24곳, 고등학교 51곳 중 47곳이었다. 중고교 각각 80%가 넘는 학교들이 사실상의 종교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종교사학 건학이념과 교육부 정책 충돌'이 주원인

대다수 종교계 학교 정규교과 시간외 강제적 종교활동

학생·학부모에 학교·교육과정 선택권 폭넓게 줘야

종자연 손상훈 사무국장은 "종교의식 참여나 종교과목 수강에 대해 학생 동의를 얻는 과정이 요식절차에 불과하거나 이마저도 거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요 교육은 불교와 가톨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교계 학교 중 종교 대체 과목을 편성한 곳은 중학교 3곳 중 1곳, 고등학교 3곳 중 3곳이었고, 정규교과 시간외 종교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는 중학교 3곳 중 3곳, 고등학교 3곳 중 1곳이다.

가톨릭의 경우도 종교 대체 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중학교 2곳 중 1곳, 고등학교 3곳 중 1곳이고, 정규교과 시간외 종교 활동은 중고등학교 5곳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불교종립학교는 자유로울까?

현재 불교계 중학교는 14개, 고등학교는 13개다. 전체 사학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와 같은 종교자유의 문제는 불교 종립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종자연이 최근 동대부속여고 학생 100명(1학년 44명, 2학년 37명, 3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의식과 행사, 교육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학생은 15명에 불과했고, '보통' 54명, '불만'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9명에 달했다.(무응답 2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립학교 학생들의 종교가 비불교인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불자학생은 동대부고 40%, 동대부속여고 45.7%, 금산고 34.5%, 동대부중 27%, 동대부속여중 16%에 불과하다. 일부 학교의 경우 개신교 학생의 숫자가 불교 학생의 2배에 이른 경우도 있다. 불교종립학교에서 언제라도 '제2의 강의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국교법사단장 김남일 교법사(동대부속여중)는 "개신교계 학교에 비해 불교종립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종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종교 수업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배정시 학생 종교 고려해야

이와 같은 학내종교 강요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철저한 제도 정착과 시행만이 진정한 종교자유를 완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교육과정 선택권 등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학교 배정시 학생들의 종교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학교 선택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종교 강요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는 헌법의 요구이자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상식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 강요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기본법 6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종교 수업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특정종교의 종파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 종교일반에 대한 교육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모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대 청소년학과 최윤진 교수는 "학내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인성 발달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주입이나 강요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한국불교전래 1634주년 기념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 기원법회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고 한국불교전래 1634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기원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0년(2006년, 단기 4339년) 4월 25일 오후 6시
▶장 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주 최 : 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주 관 : 한국불교전래 1634주년 기념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교수불자연합회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협 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KNCC, 한국카톨릭중앙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평화포럼, 조선일보사, SBS,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만불신문

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이지관

◐전 화 : (02)2253-3993 ◐팩 스 : (02)2254-3989 ◐E-mail : purnakim@empal.com

티베트 부처님오신날 6월11일

자기 변화 발원하는 날

한국 티베트센터 부산 광성사 초파일 준비 분주



부산 광성사의 티베트 스님들이 네팔에서 모셔온 불상 복장물을 준비하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 티베트센터(www.tibetkorea.org)인 부산 광성사(주지 초펠)를 찾았다. 광성사는 5월 5일 한국의 부처님오신날 준비와 함께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인 6월 11일 행사도 함께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광성사 신도들의 부처님오신날 준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도들이 자기가 밝힐 등을 직접 정성을 기울여 만든다는 것이다. 초펠 스님이 '만드는 과정과 마음가짐 자체가 공양'이라고 늘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6월 11일 열릴 부처님 점안 의식 준비에도 한창이다.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보름을 기념하며 네팔에서 조성한 28분의 불상을 모셔와 티베트센터 3층 법당에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불상 안에 모실 복장물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펠 스님의 스승인 뗀펠 스님을 비롯, 다섯 분의 티베트 스님을 모시고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점안의식은 3시간여 동안 티베트 전통의식으로 봉행된다.

이 밖에도 3층 법당 내부의 한쪽 벽면에 달라이라마의 여름궁전인 노르블링카의 티베트예술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5m 크기의 자수 탱화를 봉안하기 위한 벽면 공사도 한창이다. 이 탱화는 초펠 스님의 특별 주문으로 20명이 1년여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21분의 보살을 수놓았다.

초펠 스님은 이 탱화를 조성한 후 부분별 사진을 곁들여 사전적 의미로만 알고 있거나,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각각의 불보살들의 가르침을 새롭게 알리는 책을 펴낼 예정이다.

티베트 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2003년 개원된 광성사는 이렇게 분주하지만 티베트 현지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광성사 주지 초펠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특별한 것이 없다". 음력으로 4월 보름에 부처님 탄신일, 성도일, 열반일을 한꺼번에 기념하지만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은 한국처럼 연등을 달거나 행사를 열지는 않는다.

그러나 4월 보름 당일에는 여러 절을 찾아 버터로 만든 초를 공양물로 올린다. 또한 그날 공덕을 쌓으면 평소보다 십만 배는 크다는 믿음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계를 받거나 수련을 하면서 평소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기 점검의 날인 셈이다.

4월부터 선한 생각하는 기간 가져
네팔서 조성한 28분 불상 봉안 예정
초펠 스님이 주문한 5미터 탱화도

이처럼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은 저마다 자기 성찰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로 충만하다. 티베트의 이러한 풍습처럼 한국 티베트센터인 광성사에서도 자기 변화를 위해 십만 배 기도를 입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티베트식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신도들을 법당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051)243-246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특강 · 연구발표에 유물관람도

통도사 성보박물관 미술사학회 학술대회 가져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범하)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7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불교미술사학회 학회장 범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회를 시작하고 7회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열정 때문"이라며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이라면 앞으로 더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첫날 열린 특별강연에서 홍익대 김리나 교수는 '한국미술사 회고'라는 주제로 초기 불상 연구과정에서 있었던 오류와 의미 있었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며 "한국 미술사에서 불교 미술은 빼 놓을 수 없는 분야인 만큼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꼭 필요 하다"고 강조 했다.

동국대, 홍익대, 동아대 등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한 100여명의 회원들은 이어 열린 보스턴 미술관 오동 동양부장의 '보스턴 미술관에서 본 불교미술 걸작'이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들은 후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 둘째 날인 8일에는 송광사성보박물관 김종민씨의 '백지금자묘법연화경' 4권에 관한 연구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화여대 박수연 씨의 ''조선후기 팔상도의 특징'' 등 5명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회향됐다.

이은아 기자

어린이법회 지도자 정진대회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는 4월 3일 여여선원 법당에서 부산 경남 지역 사찰 어린이 법회 지도자를 위한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대불어가 부산 경남 지역 사찰 어린이법회 교사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한 정진법회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각 사찰을 순회하며 법회를 열 예정이다.

처음 가진 이날 법회에는 30여 명의 부산 경남지역의 어린이 법회 지도자들이 동참해 정여 스님의 선체조 특강을 들었다.

정여 스님은 이날 특강에서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선체조의 이론과 실기를 일목요연하게 강의해 지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우주를 담은 작은 시선'

김윤희씨 17일부터 사진展



그동안 낮은 소리로 불법을 전해온 <맑은소리 맑은나라>의 발행인 김윤희 대표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인사진전 '우주를 담은 작은 시선'을 연다.

7년 전 겁 없이 시작했던 일에 대해 뒤늦은 신고식을 치르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다. 이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 53점은 그동안 <맑은소리 맑은나라> 표지에 사용됐던 사진들로 일간지 취재부 기자, 잡지사 편집장, 부산불교신문사 기자 등을 거쳐 왔던 김 대표가 틈틈이 찍은 작품들이다.

전시 작품들은 사찰의 구석구석을 조금은 색다른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사찰의 돌담을 배경으로 자리한 장독대(사진), 색 바랜 당우의 외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넝쿨 등 늘 사찰을 찾는 불자들조차도 쉬이 눈길이 가 닿기 어려운 곳의 풍경을 알뜰하게 담아 전한다. (051)441-0263 천미희 기자

27년 불교음악의 열정 선보여

강영화 작곡 발표회, 26일 금정문화회관서



4월 26일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4회 강영화 작곡발표회'가 열린다. 27년 동안 불교음악을 해온 강영화씨(사진)가 불교음악으로는 처음 가지게 되는 개인발표회다.

이번 발표회는 '다양한 인성(人聲)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소프라노 독창, 테너 독창, 남성중창, 여성합창, 혼성합창 그리고 마임(無言劇)과의 만남 등 다양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작곡과 및 동(同) 대학원을 졸업한 강영화씨는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악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한민국연극제 및 국제연극제 극음악 작곡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참회게, 열반으로 피어난 연꽃, 불공을 마치며 등은 여성합창단이 선보이며 직접 가사, 작곡한 기원, 발원문 등은 청공 남성중창단이 무대에 올린다. 017-557-3038 천미희 기자

이시우 박사 화엄세계 강연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 초청 강연이 부산에서 열린다.

4월 21일 오후 3시 부경대학교 본부 본관 2층 대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시우 박사 초청 '화엄세계와 우주심'을 주제로 한 불교사상 강연회는 부경대 교수불자회, 불교동문회, 불교학생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열어온 불교사상 대강연회는 스님 법문을 위주로 진행하던 예전과는 달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이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등의 저서를 쓴 이시우 박사를 초청해 우주심과 불교의 관계성을 찾아 나선다. (051)620-6391 천미희 기자

쌍계사 대웅전 보수 상량식 봉행

보물 500호, 연말경 낙성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원정)는 4월 13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비롯 사중 스님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물 제 500호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서는 보수공사 중 대웅전 어간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과 새로 작성한 상량문을 함께 봉안했다.

조선 인조 14년(1636년) 벽암당 각성 스님이 건립한 쌍계사 대웅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으나 기둥과 보 등 주요 목부재가 이완돼 건물이 앞쪽과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인 대웅전 보수공사는 총 27억원의 예산으로 관계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시공 되고 있으며 주요 공정을 기록으로 남겨 보수 공사가 끝난 이후 해체실측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면 5칸에 측면 3간의 팔작지붕 형태의 단층 목조 건물인 쌍계사 대웅전은 지붕 처마와 기둥, 다포 양식의 공포 등이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두식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46년만에 해체 보수

경주 감은사지 西삼층석탑 현장서 보고회



해체보수작업에 들어간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은 저압와류세척으로 탑신을 깨끗이 씻은후 3D 스캐너로 형상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국보 제112호)이 해체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1960년 완전해체보수작업을 시행한 이후 46년만에 다시 해체 보수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4월 12일 본격적인 해체 보수작업에 앞서 감은사지 현지에서 백상승 경주시장을 비롯한 문화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천 여명을 대상으로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해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소측은 해체보수사업 추진경과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삼층 석탑 상륜부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2002년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과 불국사 삼층석탑, 다보탑의 안전진단결과 문화재위원회의 보수방침이 결정되자 2003년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을 구성해 석탑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확정했다.

열화현상 가속화에 따라 3D로 형상 보전 작업 실시 장기적 계측 시스템 운영

연구소에 따르면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은 지난 60년 해체보수 이후에도 대기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훼손이 가속화되어 옥개석의 탈락 우려가 제기됐고, 부재(각 부분 재료)의 강도 저하로 인한 열화현상이 가속화돼 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진단됐다. 따라서 연구소는 지난해 3차원 스캔 장비를 설치하고 해체 방법 연구를 거쳐 최근 해체보수용 철골구조물과 해체 부재를 보존처리할 작업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일단 3층 옥개석까지만 해체 보수하고 2층부터 기단부까지는 석탑의 안정화를 위한 보존처리와 보수보강을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해체복원 작업과는 달리 최첨단 기계들을 동원할 예정이다. 3D 스캐너로 형상 보전 작업을 실시하고 석탑의 훼손을 판단하기 위해 석조 레이다를 이용할 예정이며, 표면에 생긴 이물질은 저압 와류세척법을 적용하고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은 새로운 강화 처리제와 보수 석재를 개발해 사용하게 된다. 또, 보수뿐 아니라 광섬유 센서를 설치해 석탑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등 장기적인 계측시스템도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소는 감은사지 서탑 외에도 동탑과, 불국사 다보탑(국보20호), 석가탑(국보21호) 등 국보급 석탑 4기에 대한 보존처리도 2009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가한 박인성(25 · 울산시)씨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 석탑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체보수작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경주=배지선 기자

"어려운 곳에 부처님 자비를"

월정사 자원봉사대 발족, 장애우와 등산대회도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자원봉사대를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월정사는 4월 20일 오전 10시 자원봉사대 발족식 및 장애우와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강릉 및 진부지역 20여 명의 불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대는 이미 한달에 한번 관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집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자원봉사대는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강릉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선다. 월정사는 또 단기출가학교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도 자원봉사 모임을 꾸릴 계획이다.

발족식에는 관내 장애우 80여명과 강릉공군부대 장병 40여명, 강릉경찰서 의경 20여명, 월정사 신도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 후 장애우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대산장으로 산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월정사 포교국장 자월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150여 지역민 초청 경로잔치 금오농촌가정봉사원파견센터



금오농촌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4월 8일 해평, 장천, 산동, 도개 등 지역주민 150여 명을 초청해 경로주민잔치를 열었다(사진).

올 1월1일 개소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예술봉사단의 공연과 (주)제일모직 구미지부에서의 식사제공, 순천향병원에서의 건강검진, 고아농협에서의 쌀1kg 200포를 기념품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배지선 기자

재가복지센터 운영 인가 받아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최근 경주시로부터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인가 받아 재가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재가복지센터는 가정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장애인들을 방문 상담하고, 가사지원, 외출지원, 나들이, 휠체어 수리, 결연후원, 이동목욕, 방문 작업 치료, 가정봉사원 지원 서비스 등 치료, 교육, 훈련 등의 전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법형제회 첫 연합수련회

한마음선원 대구 포항 진주지원



한마음선원 대구 · 포항 · 진주지원의 법형제회 회원 100여 명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에서 4월 8일과 9일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올해 처음 열린 수련회는 담선과 갓바위 참배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지원 법형제회 김우룡 회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자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양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마음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백장선원 소아암 어린이돕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불교활동을 펼치며 '21세기 새로운 수행공동체'를 표방해 온 백장선원이 창립1주년을 맞아 대구 능인선원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생명 나눔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4월 23일 대구 허브힐즈에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야단법석'을 펼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야단법석은 식전행사, 백장선원 지도법사 원구 스님의 초청법회, 축하공연으로 이어지며, 도일스님, 인기가수 김란영, 김경애 외 예울국악단, 댄싱팀 이카루스 등이 출연해 흥겨운 춤과 노래를 선사한다. 참가회비는 무료며 허브힐즈 놀이기구 이용시 어린이는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053)744-0103

배지선 기자

목탁 잘치면 진짜 스님 되나요?

동화사 동자승 13명 '삭발'

4월 11일, 참회진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구 동화사 대적광전에서 13명의 동자승이 탄생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고 홍보하기 위한 동자승 삭발식이 열린 것.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대구지역 불교유치원 선생님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삭발식과 수계식을 거행한 동자승은 11일부터 12일까지 동화사에 머물며 불교예절을 익히고 예불에 동참하는 등 1박 2일간의 단기출가를 체험했다. 13명의 동자스님들은 앞으로 부처님 오신날(5월 5일)까지 다양한 봉축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동화사 동자승들이 목탁을 치며 활짝 웃고 있다.

부처님 마음은 무슨색일까?

해인사, 제1회 해인만다라…글그림 잔치 22일 개최

해인사(주지 현응)는 합천과 거창사암연합회 주관으로 유치원 ·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해인만다라, 부처님마음 우리마음 글그림 잔치'를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인사 경내에서 개최한다.

그림부문은 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한국화, 문인화 등 자유 선택 가능하며, 글짓기부문도 시, 수필, 희곡, 콩트(창작) 등 자유선택할 수 있다.

수상작 발표는 4월 25일 해인사홈페이지(http://www.haeinsa.or.kr)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디지털카메라, MP3 등 푸짐한 상품이 수여된다.

해인사는 참가비 일체를 지원할 방침이며 접수마감은 4월 17일까지 . (055)934-3006

배지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대구불교방송예술단(단장 최경순)은 4월 24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BBS만다라합창단(지휘자 박필순)과 대구불교방송 오케스트라(지휘자 류성욱) 등이 출연한다. (053) 427-5114

배지선 기자

대구 부인사, 선덕여왕숭모제

불교를 숭상한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선덕여왕숭모제가 4월 13일 대구 팔공산 부인사(주지 성타)에서 선덕여왕숭모회(회장 최태향) 주최로 봉행됐다.

이날 숭모제에는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께 올리는 헌공의식 후 일동배례, 제집사사배 등의 순으로 숭모전에서 진행됐다.

이날 지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선덕여왕은 격동의시대에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기준으로써 지혜와자비의 가르침인 불교를 보급함으로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통합해 삼국통일을 이루었다"며, "우리 모두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등불로 삼아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고 해탈 성불할 수 있기를 발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봉 (재)한국불교법륜종 행

제5대 석고산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재)한국불교법륜종 제5대 석고산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각 사암 주지스님 및 종도스님, 신도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50년 4월 20일 오전 11:00
• 장 소 : 대전 유성구 계산동 671-4
유성 유스호스텔 대 회의실 (042-822-9591~2)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 총무원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번지 • 전화 : 041)734-5371-2

봉 행

김포 동산사
주지취임 및 암도 큰스님 초청 대법회

모시는 글

귀의삼보 하옵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움을 트며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번 김포시 감정동 중봉산 아래 동산사 주지 법전스님의 취임 및 전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큰스님의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들으시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며 이렇게 초대의 글을 올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0년 4월 23일(음 3월 26일) 오전10시
■ 장 소 : 동산사 대웅전
■ 초청법사 : 암도 큰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 교 통 편 :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1번출구(6641번 버스),
개화산역 2번 출구(9602번 버스),
방화동 공항시장(6712번 버스)승차 - 김포시 감정동 하차
동산사 홈페이지에 오시는 길 참조
http://www.dongs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사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485-16번지 ☎ 031)998-8700, 997-5496
(감정동 구두물 삼거리 GS칼텍스 주유소 옆)

애들아 모여라! 놀며 배우자

천안 한암사 어린이회관 개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열린 시민공간 활용 계획


30여명의 '한암 예술단' 어린이들이 한암사 어린이회관에서 연극연습에 한창이다.

충남 천안에 어린이들만을 위한 문화회관이 태어났다.

천안 쌍용동에 50평 규모의 '한암사 어린이 회관'을 마련한 한암사 천안불교문화원(원장 원철)은 4월 16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교계에서 어린이 전용 문화회관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어린이 포교의 새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30여 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한암 예술단원'들이 원철 스님의 창작연극 '바다로 가자'에서 나오는 노래발표회를 가졌으며,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노인잔치도 열었다.

한암사가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여 전. 불교문화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신체표현'(현대무용, 고전무용) 프로그램을, 금요일에는 연극연습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원철 스님은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이들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같았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불교 현실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포교 수단이 문화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원철 스님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다. 한암사 어린이 회관은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연극과 뮤지컬 등 문화를 통한 포교야말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회관에서 뛰놀며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끼게 되면 그것이 곧 부처님 세상을 여는 시작이 아닐까요."

어렵사리 마련한 어린이 회관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알찬 계획도 준비해놓고 있다. 원철 스님은 우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생각이다. 구연동화, 풍선아트, 독서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꽃꽂이, 요가 고전무용, 어머니 노래교실 등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암 예술단을 확대하는 한편, 어머니 극단도 창단도 고려 중이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어린이 문화에 관심이 많은 동국대 한의대 출신의 이은지(38)씨를 관장으로 임명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필요할 경우 지역민들에게도 어린이 회관을 개방해 열린 시민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개관식 때 노인잔치를 개최했듯이, 정기적으로 노인잔치를 개최해 어린이들에게 효 사상을 심어줄 생각이다.

2003년부터 문화포교를 기치로 내걸고 문화포교를 선도해 온 한암사 천안불교문화원은 이제 어린이 회관을 통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문화인력 양성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041)592-4747

천안=한명우 기자



대원사 산사음악회 성황
수익금 생명나눔에 전달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은 지난 4월 9일 박물관 공연장에서 '백혈병 소아암 환우 투병지원 기금마련 나눔행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대원사 벚꽃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원사 봉사단체인 지장회와 광주동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참가해 나눔콘서트, 사찰음식 판매로 펼쳐졌다.

나눔 콘서트에는 홍보가수 주권기씨를 비롯한 지역에서 활동중인 음악가들이 출연해 공연을 펼쳤다. 또한 대원사 지장회는 백혈병 환우 치료비 모금을 위해 사찰국수, 전통호박죽, 진달래 꽃전 등의 음식을 판매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백혈병을 앓았으나 생명나눔 광주전남 지역본부의 도움으로 지난해 병을 완치한 정아영 양(16)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주위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저녁에 열린 산사음악회에는 불교, 한국, 인도 전통음악과 춤이 선보여 벚꽃 관람객들을 흥겹게했다.

한편 티벳박물관은 이날 행사 수익금 200만원을 생명나눔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무주 약천사 낙성법회

무주 약천사(주지 법성)는 지난 4월 9일 극락전 삼존불 점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중앙종회의장 대운, 포교원장 대련 스님 등 종단 스님과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지 법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곳은 고려말 대가람이 자리했던 사지로 1979년 미륵약사여래불이 출토되어 중창불사를 펼치고있다"며 "정토염불 기도와 함께 불국정토를 발원하며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약천사는 2000여평 대지위에 대웅전과 300여평 규모의 야외법당을 갖추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고불총림 백양사 율원 개원
율주에 혜권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는 지난 4월 7일 산내 청류암에서 율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주지 두백 스님 등 사중스님과 불자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고불총림 율주 혜권 스님은 인사말에서 "만암 스님의 교육도량인 청류암이 계율 교육도량으로 거듭나게됐다"며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어 힘써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농민 살아야 구례가 산다
화엄사-농민회 자매결연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지역 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살리기'에 나섰다.

화엄사 대중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4월 8일 구례읍 둔치공원에서 열린 구례농민회 영농 발대식에 참석해 풍년을 기원했다(사진).

이날 화엄사는 구례 농민회(회장 정정섭)와 '농민이 살아야 구례가 산다'는 내용의 자매결연서를 교환했다.

자매결연에 이어 종삼 스님은 축사를 통해 "농촌살리기에 화엄사 사중 스님과 신도회, 봉사단이 하나되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화엄사는 이를 위해 △구례 지역에서 난 쌀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청정공양미 운동 △우리농산물 이용 △주말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친환경 농산물 전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구례 농민회 영농 발대식에는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부가 동참해 불교계, 농민, 노동자가 농촌살리기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빛고을 광주에서 '마음찾기' 열풍이 시작됐다. 그 씨앗은 지난 4월 8일, 광주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혜국 스님(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초청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특강. '21세기 현대인, 간화선을 말한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1000여명의 대중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혜국 스님의 광주 특강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요거이 머이당가?"

빛고을서 열린 혜국 스님 간화선 특강 성황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거든 네 마음을 먼저 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서 "이~~"하면서 입을 벌려보세요. 누가 "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몸뚱이가 "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몸뚱이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분명히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라고 할 줄 아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시비하고 다른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송광사에서 외국인 스님들과 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외국인 스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스님들을 불러 비닐봉지에 ''후''하고 숨을 내쉬라고 했습니다. 비닐을 묶어 공기 색을 보도록 했습니다. 싸우고 불안할 때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검은색이 나옵니다. 외국인 스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경을 읽거나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할 때 비닐봉지에 ''후''하고 불면 하얀색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흰색은 '광명'을 뜻하고 검은색은 '암흑'을 뜻합니다. 화를 내어 암흑을 만든 것도 나요, 정진하여 광명을 만든 것도 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광명 만드는데 쓰느냐 검은색을 만드는데 쓰느냐는 자신에 달려있습니다.

전라도 월명암에 살 때였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이 놈'을 찾으라고 하니 청년들이 "이 뭐꼬!를 전라도 식으로 '' 요거이 머이당가!' ' 로 해도 되겠냐"고 하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 . 단, 진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간화선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것이 불국정토입니다. 나부터 달라지고 상대가 달라져야 되지 나는 가만히 있고 남부터 달라지라는 것은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뭐꼬?, 요거이 머이당가?"하는 것은 내가 달라지고 이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마음 닦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느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잘 되지 않으면 법당에서 절을 해 보세요. 절이란 뭡니까? 내 몸뚱이에 있는 모든 감정 번뇌는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인격, 이 뭐꼬! 하는 그놈을 받드는 것입니다. 정말 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문제는 반드시 자기가 풀어야 합니다. 어느 부모,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해 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서 그 나를 찾아가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태초의 말, 꽃 한송이 들어 보인 것! 이것을 참구해 가는 것을 우리는 참구, 같이 가며 본다,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볼 간(看)자, 말 나오기 이전의 화두인 말씀 화(話)자, 참선할 선(禪)자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간화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자기를 바로 보고 올곧이 세우기 위한 용맹정진, 이것이 참선입니다." 혜국 스님이 법문에 앞서 1000여 사부대중들과 합장의 예를 올리고 있는 모습.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세계도시 부산! 부처님과 함께!
봉축연합대법회는 FM89.9MHz 부산불교방송에서 생중계 됩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봉축 점등식
일 시 : 4월 21일(음 3.24/토) 오후 6시 30분
장 소 : 부산역 광장
내 용 : 봉축탑, 모형'용', 연등으로 장엄한 봉축상징물의 점등

부산발전 기원「3천배 철야정진」
일 시 : 4월 28일(음 4.1/금) 오후 5시
장 소 : 부산역 광장
내 용 : 50여명의 스님과 500여명의 불자들이 세계도시부산 건설을 기원하는 3천배 철야정진

시민문화축제
일 시 : 4월 29일(음 4.2/토) 오후 2시
장 소 : 부산역 광장
내 용 : 연등나누기, 차 공양, 어린이에게 풍선을, 무차만발공양, 서예가 초청 가훈나누기, 전통무용(연화무), 오케스트라 공연 및 합창, 불교전통 영산대재와 육법공양 등

봉축연합대법회
일 시 : 4월 29일(음 4.2/토) 오후 5시
장 소 : 부산역 광장
내 용 : ① 2만 여명의 시민 · 불자가 함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기념법회
②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찬불합창

제등행진
일 시 : 4월 29일(음 4.2/토) 오후 6시30분
코 스 : 부산역광장 → 부산진역앞 → 부산불교방송앞 → 범냇골로타리 → 서면로타리

■주최 · 주관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전화 : (051)867-0501

나눔의 장 복지행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부처님오신날 기념 "도서전달식"	4월중	해군3함대 군법당 해운사	부산불교사회복지 청소년기관협의회	사무국장 011-569-2363
위문법회	4월중	육군 제53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삼광사	808-7111
교화법회	4월중	부산교도소	삼광사	808-7111
경찰청 경승실 위문	4월중	경찰청경승실	삼광사	808-7111
사회복지시설방문	4월중	성애원(보육원) 미애원(육아원) 보현행원(노인요양원) 평화노인요양원 초음동 불우이웃 평화의집(장애인수용) 정화의집(노인복지) 종덕원(육아원) 황전암로원(노인요양원) 천마재활원(장애인수용) 성우원(장애인수용)	삼광사	808-7111
생일잔치 "떡은 사랑을 싣고"	4. 12 4. 14 11:00	부산소년분류심사원 영도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진여원 혜원정사	338-1008 417-6344
봉축 경로잔치	4. 18	성암사 앞마당	성암사	635-3744
관내 어르신 경로잔치 및 무료급식	4. 21	진여원	진여원	338-1008
소년소녀가장돕기 가금마련 일일찻집	4. 24 12:00	온천장 양자강 뷔페	동래구사암연합회	552-1283
풍선아트 행사 "알록달록 풍선을 타고 날아온 행복"	4. 24~27	상리경로당 외 9곳	혜원정사	417-6344
홀로노인 이.미용 및 목욕봉사	4. 25	문현 1동 동사무소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세심회	635-3744
자비의 쌀나누기	4. 26	지역내 경로기관 및 홀로노인가정	성암사	635-3744
부산교도소 위문	4. 26 12:00	부산교도소	부산여성불자회	817-3166
위문법회	4. 27 14:00	부산구치소	진여원	338-1008
부산역 만발공양(무료급식)	4. 29 11:00	부산 보현의 집	부산보현의집	506-0146
나눔의 전통차 무료공양	4. 29	부산역광장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학생회	635-3744
경찰서(전경) 위문(예정)	5월초		극락선원	628-7200
이웃돕기 성금 전달법회	5월중	삼광사 향적당	삼광사	808-7111
모자가정자립지원사업	5월중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근거리 산책	5월중	근교 공원	화엄종합사회복지관	338-2233
수영구 남천동 불우이웃돕기	5. 2	남천동사무소	극락선원	628-7200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 3(예정)	관내 어르신들 각 가정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독거어르신무료급식	5. 1~5 10:30~12:00	부산보현의집 식당	부산보현의집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및 앞마당	506-0146 866-0454
경로잔치	5. 4 11:00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제11회 어르신 효도큰잔치	5. 8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내 너른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노인건강및보호센터"어버이행사"	5. 8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어버이날 행사	5. 8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어버이날 사랑나누기	5. 8	지역내 어르신 각 가정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어버이날 연간행사	5. 8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1층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866-0454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5. 8	지역내 독거 어르신 가정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 8	해원 경로식당	사회복지법인 해원	868-0138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 8	지역내 독거어르신 가정	해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868-0138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 8	지역내 재가어르신 가정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건강기원 효도나들이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 8	화명동 내 각 대상자 세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338-2233
경로잔치	5. 8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경로잔치	5. 8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106동 주차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	893-5034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경로잔치	5. 8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사랑방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칠순,팔순,구순을 맞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장수잔치	5. 9 (미정)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내 너른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경로잔치	5. 12	물운대복지관 뒷마당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제12회 삼광효행상 시상 및 제16회 삼광경로잔치	5. 13 11: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경로관광	5. 18	진주수목원(안)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893-5034
어르신 일일 온천 나들이	5. 25	장유온천	두송가정봉사원파견센터	265-9471
제1회 경로잔치	5. 26 11:00	삼락정배산실버빌 삼락 및 앞마당 옷장	삼락정 배산 실버빌	756-0569

시민과 함께 전시 · 공연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신새벽 전시 및 이야기 속의 다구 전시	4. 8 17:00	금강사	금강사	555-1383
제2회 부산차발굴 문화제	4. 9 11:00	금강사	금강사	555-1383
두리차회 및 화전놀이	4. 9 14:00	금강사	금강사	555-1383
노인학대 예방 사진전	4. 1 13:00	어린이대공원 내 무료급식소옆	부산서부 노인학대예방센터	867-9119
53존불탑등 점등식	4. 6 18:00	삼광사 53존불탑 앞	삼광사	808-7111
환경정리 및 환경캠페인	4. 9	벚꽃약수터 및 성암사 계곡 일대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학생회	635-3744
제3회 영세지체장애인 전동 및 수동휠체어 100대 기증 및 위안 공연	4. 15 13:30	부산시청 뒤 녹원광장	사)부산불교봉사연합	863-0505
봄맞이 야외나들이	4. 15 10:00	금강공원내 식물원	삼락정 배산실버빌	756-0569
우주를 품은 작은 시선	4. 17~21	국제신문 제2전시실 (17일 14:00)	맑은소리맑은나라	441-0263
혜총스님 출판기념법회	4. 17 18: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감로사 신도회	809-0926
자연보호캠페인	4. 19 14:00	성지곡수원지 일원	부산여성불자회	817-3166
영화보는날 "우리 함께 영화볼까요?"	4. 20 15:00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대강당	내원정사	417-6344
붓다빠라스님 초청강연회	4.20 16:00	동아대교수회관	동아대불교교수회, 불교동문회, 불교학생회	
"한국불교가 전통불교인가"		대강당,		
불교사상강연회	4. 21 15:00	부경대학교 본부	부경대학교불교교수회	582-3351
"화엄세계와 우주심"		본관 2층 대회의실	불교동문회,불교학생회	620-6361
금산 황신규 교수 선화전	4. 21~30	금정문화회관 제1전시실	선화전준비위원회	011-553-4727
봉축탑 탑돌이	4. 22~5.3	부산역광장	삼광사	808-7111
봉축 점등 대법회	4. 28 18:00	삼광사 대웅보전 앞	삼광사	808-7111
기장군과 함께하는 봉축연합대법회	4.30	기장군청 대강당	기장군4.8봉축위원회	721-9500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햇빛연극단 정기공연	5월중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제7회 연등만들기 (연꽃향기 밝은세상)	5. 3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노인학대 예방 홍보 지킴이 활동	5. 4 11:00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및 앞마당	부산서부 노인학대예방센터	867-9119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 후원 모금 행사	5. 4~5	서구 내원정사 앞마당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제7회 성암사 연등축제(신사음악회)	5. 5	성암사 야외광장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635-3744
제등행렬	5. 5	영주암~망미동부산은행~범무청~영주암	영주암	754-2210
제등행렬	5. 5	해운대 신도시내	부처님마을	704-0332
제등행렬	5. 5	남천동 일원	극락선원	628-7200
부처님오신날 맞이 후원행사	5. 5	당리동 관음사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제3회 용호장승축제	5. 8~9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내 너른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자원봉사자 등반대회	5. 20 08:30	금정산(예정)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낙동가족축제	5. 27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자원봉사자 수련회 "충전 1000%"	5. 27(미정)	미정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2006 혜원 열린 음악회	6. 3	연산동 혜원정사	사회복지법인 혜원	868-0138

청소년 행사 미래의 장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장학금 전달식	4. 24 18:30	온천장 양자강 뷔페	동래구사암연합회	552-1283
삼광백일장,독경, 찬불가 경연대회	4. 30 11:00	삼광사 금강대강의실	삼광사	808-7111
제18회삼광한글학술상 시상 및 제12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수상자 시상식	5월중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반항성 장애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주양육자 Empowerment를 통한 가족기능향상 프로그램	5월~12월 (주1회)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내 가족상담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새싹들의 큰잔치	5. 3 09:30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방정환과 마술이 함께하는 어린이 날	5. 4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어린이 한마당	5. 4 14:00	두송복지관 옥상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저소득 청소년 학비지원을 위한 모금행사	5. 5	밀양 여여정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어린이재롱잔치	5. 5	옥련선원 도솔천	옥련선원	757-9067
세대소통 "Old & New" 가슴을 열어라	5. 6	양정청소년수련관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청소년 1318 페스티발	5. 6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아동 동요대회	5. 6 14:00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세대소통 "Old & New" 가슴을 열어라	5. 13	양정청소년수련관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청소년 1318 페스티발	5. 13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청소년의 아름다운 참여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5. 13	양정청소년수련관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즐거운 토요일 -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5. 13 09:00	고성 공룡엑스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장애아동 통합지원P/G "맑은 소리터 가족나들이"	5. 13 10:00	도솔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2006 청소년 동아리 심사	5. 13 14:00 (예정)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2006 청소년 동아리 발대식	5. 20 16:00 (예정)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세대소통 "Old & New" 가슴을 열어라	5. 20	양정청소년수련관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청소년 1318 페스티발	5. 20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 문화의 집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가능빈가 언어치료센터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일일데이트 테마로 떠나는 여행"	5. 27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5. 27	국립경주어린이박물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338-2233
세대소통 "Old & New" 가슴을 열어라	5. 27	양정청소년수련관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청소년 1318 페스티발	5. 27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 문화의 집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양정위 플러스+ 청소년 영화상영회 "For Youth"	5. 27	양정청소년수련관	재)불국토청소년도량	868-0750
청소년의 아름다운 참여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뺏십마루 교실 현장체험학습 "햇살 전통문화 여행기"	5. 27	내원정사 사찰탐방 도자기 체험실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모도리 아이들 (토요휴교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5. 27 09:00	경주 문화 유적지 탐방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재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야유회	5. 27 13:00	김해 연지공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태고종 '종단 대법회' 연다

10월말 서울서…전승관 설립 계기로 '종도 화합'

30년만에 전국규모 법회, 종무원장 회의서 결의

태고종 전국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의 대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태고종단 대법회'가 30여년만에 열린다. 또한 18개 지방교구 종무원이 주축이 된 전국규모의 신도회가 7월중으로 조직된다.

태고종 총무원 및 전국 각 시도 종무원장 스님들은 4월 10일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전국종무원장회의를 열고 올 10월말에 정대불사 및 보살계 형식의 종단 대법회를 개최할 것과 초파일 이후 전국 신도회를 조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불교역사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준공을 앞두고 열리게 될 대법회의 장소와 정확한 시기는 총무원에 일임해 초파일 이후 부장급 이상 회의를 거쳐 결정짓기로 했다.

총무원 부원장 자월 스님은 "1975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법회는 태고종이 거듭나는 계기가 된 모임이었다"며 "전승관이 설립되는 올해 대법회를 통해 종도들이 재발심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고 법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주요안건으로 채택된 전국신도회 조직과 관련, 총무원 기획부장 백운 스님은 "전승관 완공에 앞서 종단의 새 모습을 만드는 차원에서 전국 규모의 실질적인 신도회 조직이 필요하다"며 "초파일 이후 전국을 순방하며 신도회 조직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지침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운 스님은 또 "조직 구성은 과거같이 중앙에서 하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감안한 상향식이 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승관 건립 불사와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현재 전승관 공사는 전체 공정의 37%가 진행돼, 지하 3개 층의 골조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이며, 7월 이전에 지상 3층까지 기본골조를 완공해 올 11월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종단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교구별 종단 소속 스님(권속 포함) 가운데 석박사, 교직경험자, 사회봉사기관 근무 경력자 등의 명단을 종단 차원에서 파악할 것과, 종단 내 사회복지사업 현황을 취합할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심인당 중심으로 봉축 준비

진각종, 지역 포교활성화 새전기 마련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4월 30일)를 앞두고 진각종 신교도들의 손길이 바쁘다. 올해부터 진각종은 중앙 통리원 봉축준비 체제를 벗어나 각 심인당이 포교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심인당 중심체제로 전환했다. 진각종 통리원은 올해를 심인당별 봉축준비 시범운영의 해로 정하고 서울 교구내 심인당에 축제준비 전권을 부여했다. 진각종은 올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부터는 전국 심인당이 자율적으로 봉축행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원심인당(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신교도들을 주축으로 3월말부터 호박, 사과, 버섯, 딸기 등의 과일전통등(燈) 제작에 분주하다. 신교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전통등은 4월 30일 서울 연등축제 때 거리행진에서 선보이고 심인당에 전시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통등 제작은 3년 동안 신교도들이 강습회를 통해 배운 실력을 맘껏 발휘하는 자리여서 참가자들이 "봉축준비를 하며 신심을 배가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심인당(서울 구로구 구로본동)도 연등축제 소품으로 사용되는 연희단 복식을 신교도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다. 실상심인당의 연희단 복식제작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수행복 제작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교도 단체인 총금강회 서울지부도 군무단을 조직하는 한편 연등축제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서울청년회와 자성학교 연합회는 가장행렬과 어린이 연희단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비로자나청소년협회와 진각복지재단 등 종단 산하 법인 종사자들도 연희단을 구성했으며 서울교구를 비롯해 지방의 각 심인당에서도 거리행진에 사용될 마니륜등(단체등)을 자체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금명 스님 추대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은 4월 8일 운천사에서 주지총회를 열고 나주 태평사 주지 금명 스님(사진)을 제13종무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광주 · 전남지역 주지 스님들은 종무원장 선거에 앞서 "신임 종무원장은 투표가 아닌 덕망높은 스님을 추대하자"고 결의하고 금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금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이 하나되어 종단은 물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신임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장 금명 스님은 1940년 전남 화순 生, 1953년 백양사에서 장조 스님 은사로 출가했다. 1975년 태고종 나주분원장, 1998년 전남 총무원장 역임. 1966년 나주 태평사를 창건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준엽 기자

무량종 창종 7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무량종은 4월 9일 종단 총본사인 하동 칠보정사에서 총무원장 혜안, 종회의장 보경, 교육원장 보산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혜안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항상 화합하는 무량종이 되자"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군포교 황금시대 주역이 되자!

군승사관 후보생…東大 등 재학생
군승예비요원…대졸 사미 이상
좌우명 "포교하다 죽는것이 행복"

군법사 되는길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은 4월 4일부터 7일까지 육군훈련소 연무사에서 올해 입대 예정인 군승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50년 예비 군승 입대 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입대 전 교육은 군승의 자세, 군종 교구 업무 및 현황, 주지 법사의 역할, 군과 포교, 군승 리더십, 군종교육 활동, 육해공군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동참한 예비 군승은 군승사관후보생 7명과 군승예비요원 11명 등 모두 18명. 이들은 철저한 예비 군승 선발 과정을 거쳐 그동안 승려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조계종 기초선원 등에서 수행정진해 왔다.

어떻게 하면 군법사가 될 수 있을까?

군법사가 되는 길은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예비요원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군승사관후보생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한 남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매년 7월 시험을 통해 공개 선발된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국민윤리, 일반사회 등 5과목. 정원은 전역하는 군법사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선발 인원이 부족할 경우 2~3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선발을 하게 된다.

선발된 군승사관후보생은 매주 자체 법회를 보고 한달에 한번씩 현역 법사의 현장 지도를 받는다. 더불어 1년에 2번 군종특별교구에서 주관하는 동하계 교육에 참석해 전통의식 실수, 상담기법, 리더쉽 교육 등을 배운다.

또한 졸업후에도 6개월간의 행자 교육을 거쳐야 하며 1년 이상 조계종 기초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한 이후 현역 군법사로 임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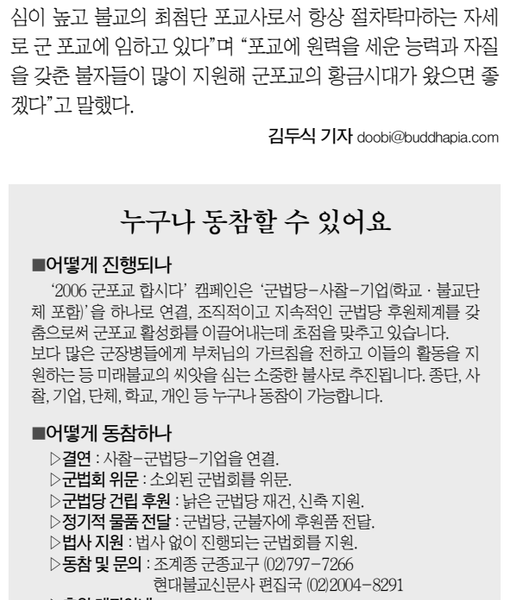
이에 반해 군승예비요원은 이미 승려로서의 자격을 갖춘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4년재 대학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만 35세 미만의 남자로 사미계 이상을 수지해야만 지원 가능하다. 매년 11월 가치관, 의식 실수, 불교학 등 3과목의 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이미 승려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그 다음연도에 바로 임관된다.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예비요원 공히 금치산자 등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선발되며 대학 졸업과 계를 받은 기간 등을 고려해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된다.

예비 군목사의 경우도 예비 군승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지정한 기독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군종장교사관후보생을 선발한다. 예비 군신부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카톨릭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신부 가운데 군종예비요원만 선발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역 군종장교는 개신교 273명, 불교 141명, 천주교 79명 등 493명. 이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장병들의 정신 교육, 상담 등 심리전을 대비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전창응 사무국장은 "군법사의 좌우명이 '포교하다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높고 불교의 최첨단 포교사로서 항상 절차탁마하는 자세로 군 포교에 임하고 있다"며 "포교에 원력을 세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불자들이 많이 지원해 군포교의 황금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승사관 후보생과 군승예비요원들의 입대전 교육모습.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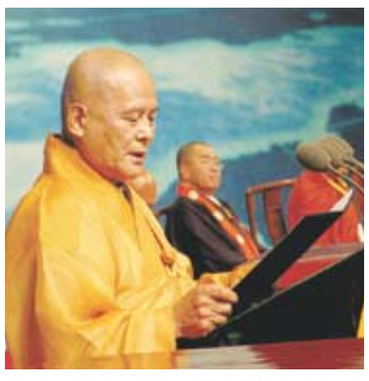
세계화합 · 조화 · 존중

자신의 마음에서

중국 항저우서 열린 '제1차 세계불교포럼' 현장



개막식 첫날인 4월 13일 세계 34개국에서 온 1천여명의 불교도들이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국의 첫 국제종교행사, 1천여 불자들 지혜의 場 펼쳐
지관 스님 기조 연설 통해 '생명존중 상생발전' 당부
대회장 밖도 친교열기 후끈…포옹 · 명함 건네며 인사
15일 저우산서 연등행사와 평화기도 개최 후 일정 마쳐

"세계의 화합과 조화는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자."

피부색깔과 언어는 다르지만 이구동성(異口同聲)이었다. 한국,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불교도 1천여 명이 모여 세계화합을 위해 각자 자신의 마음부터 다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최초의 국제종교행사인 '제1차 세계불교포럼'.

이 행사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인민대회당과 저우산(舟山)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세계 각국의 불자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강연을 제공하고 중국 불자들과 세계의 불자들이 대화 · 교환 · 협력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개적인 국제종교 행사는 사실상 금지하는 등 종교 활동의 제약이 은근히 심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종교 행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은 4월13일 불교포럼 개회식 전 과정을 국영 중앙방송(CCTV)을 통해 생중계했다.

'세계화합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13일 오전 8시 30분 중국불교협회 스님 1백여 명이 연단에 올라 예불의식을 봉행하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장엄하게 문을 열었다.

등젠화(董建華) 중국 국가정치협상회의 부주석(前 홍콩 특별행정자치구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에는 서로 다른 문화나 민족이 많이 존재하지만 인간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불교도들이 주축이 돼 날로 갈등이 심각해지는 지구촌의 평화공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하자"고 역설했다.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겸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비롯해, 라오스 불교도협회 케오봉파 종정 시사바쓰 스님, 사쿠리 코오지 일본 대본산 중산사 원로 스님, 중국정부가 임명한 티베트 판첸라마, 다쇼상계왕초 부탄왕국정부문화장관, 라오청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스님, 마하 수메다 텝부 캄보디아 불교협회 승왕, 마하테로 스리랑카 불교협회장 스님, 성운 대만 불광산사 종정 등 세계 불교지도자 9명이 발표하는 기조연설. 연사들에게 발표 제한 시간인 8분을 정해주고 만일 시간을 넘기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 객석에서 간간히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관 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전 세계 불교도들은 생명존중의 실천, 정신문화의 발전,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는 사회 건설, 상생발전하려는 지혜, 세계평화와 화합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불교도들은 세계평화와 중생제도에 앞장서기를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대만의 성운 스님도 "이 행사는 불교가 전 세계의 화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유익한 자리"라며 "이 자리에 모인 1천여 불교도들에게 딱딱함보다는 유연성 있는 관리, 자기반성이 뒤따르는 자각적인 관리, 인간 감동을 통한 관리, 불법에 의지하는 관리 등 네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중국에서의 첫 종교행사라는 것 외에도 주목되는 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에게 불교가 서방종교에 대응하는 복안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방종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교는 중국 정부에게 더없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의 개방으로 야기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중국에서 신도 수가 가장 많은 불교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대회가 자못 흥미로운 것은 포럼 형식을 띠고 있지만 대회장 밖에서는 불교를 통한 친교와 우의를 다지려는 불교지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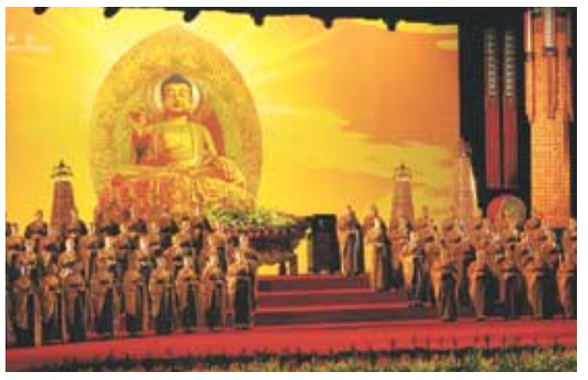
불교지도자들은 각 국가의 종교대사처럼 안면이 있는 스님들에게는 악수나 포옹을, 처음 보는 이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친목을 돈돈히 다졌다.

엽소문 중국 종교국 국장을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성휘 스님, 서안 법문사 방장 학성 스님, 저장성 불교협회장 계인 스님, 광동성 불교협회장 명생 스님 등도 개막식 날 모든 행사가 끝난 뒤 한국 측 포럼 참가단이 머무는 월드무역호텔을 방문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휘 스님은 "이번 불교포럼은 11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한중일 불교우호대회를 거쳐오면서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지의 중화권 스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특히 이 대회의 취지를 한국불교 측에 가장 먼저 알렸고 또한 다른 여러 나라보다도 한국불교 측에서 큰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시로 기조발표 때 지관 스님을 가장 먼저 순서에 배정했다"고 우호적인 감정을 피력했다. 이에 지관 스님도 팔만대장경판 중 <반야심경>을 새긴 경판모형을 기념으로 선물하기도 했다.

포럼 휴식시간에는 복도에서 마주친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불교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번 행사는 4월 13~14일 항저우 인민대회장의 개막식과 분과토론, 환영만찬, 불교종합예술의 밤 행사에 이어 15일 저우산에서는 연등행사와 세계평화기도 행사를 개최했으며, 16일 막을 내렸다. 행사가 끝난 뒤 각국으로 돌아가는 1천여 불교도들의 걸망엔 화합으로 굳게 다져진 기쁨과 희망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글 · 사진/중국 항저우=김주일 기자



4월 13일 개막식에 앞서 중국불교협회 소속 1백여 스님들이 예불의식을 하고 있다.



개막식날 일정이 끝난 뒤 한국측 포럼 참가단이 머물고 있는 월드무역호텔을 방문해 지관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성휘 스님(오른쪽).



한국 측 포럼 참가단 숙소를 인사차 방문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오른쪽)에게 지관 스님이 해인사 범종을 축소해 만든 기념품을 선물하고 있다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 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나눔이 화두

21세기 경영키워드, 불교에 있었네

현대 · 기아차그룹 사태와 외국계기업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부당인수 사건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업이 갖춰야할 윤리적 책임을 등한시한 결과다. '윤리경영'으로 불리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최근 10년새 가장 중요한 경영철학으로 등장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경제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키워드들을 짚어봤다.

◇변화하는 기업이 성공한다

무한경쟁, 불확실의 시대다. 경제의 국경이 사라지고, 기업 경영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된다. 예외란 있을 수 없다. 글로벌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세계를 움직인다. '베이징에서 나비 한마리가 날개를 퍼덕임으로써 뉴욕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나비효과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 같은 변화에 순응하는 기업이 곧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대변된다. 시류를 잘 읽어내는 안목과 변화를 위해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가 오늘날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경영을 선보이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우리나라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은 CEO의 경영철학에 앞서 '신경영'으로 불리는 삼성의 철학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신경영'의 핵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변화할 자세를 갖추는데 있다. 삼성은 나로부터의 변화를 무한경쟁, 불확실의 시대를 이겨내는 해법의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경영철학도 변한다

바야흐로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렸다. 기업의 생명력은 소비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소비자는 어느 때보다 막강한 파워를 지녔다. 여기에서 21세기 경영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나 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만족' 경영이 생겨났다.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인재경영'이다. 인적자원 관리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라는 인재경영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모토에서 출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GE와 같은 세계의 유수기업은 인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도요다자동차가 세계 3위의 굴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도 직원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 '인간 존중'에 있다. 도요다자동차의 경영시스템과 기법은 수많은 기업이 벤치마킹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직원들의 마음가짐은 배우지 못했다.

'윤리' '투명' 경영도 21세기 CEO가 갖추어야할 키워드다. 500대 글로벌기업의 90%가 강력한 윤리체계를 갖춤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과 매출증대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행한 글로벌기업의 윤리경영 현황과 경영성과 보고서에서도 윤리 경영을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미래성장 동력의 또 다른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객만족, 인재, 윤리 경영은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고객, 직원, CEO를 중심에 두고 있는 반면, 최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나눔 경영은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나눔 경영은 이윤을 나누어 계량화되지 않는 이익을 창출하는 윈-윈(Win-Win) 경영이다. 일찌감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외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 LG, SK 등 우리 대기업들에 나눔 경영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악덕기업주로 유명했던 록펠러가 록펠러 재단 설립 이후 2~3세를 거쳐오면서 악덕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이 좋은 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시류 읽어내는 안목이 기업경쟁력 평가 잣대
'고객만족 · 인재 · 윤리 경영' 21세기 키워드로
이윤 사회 환원 통한 또다른 이익 창출 확산

분다의 경제학 (6)

환경이 있기에 인간이 존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새만금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만금의 새로운 운명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지금도 새만금의 매립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족한 국토의 확장과 경제개발의 논리가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부딪쳐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가 몹시도 힘들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대법원의 판단도 올바른 판단이기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정치적 기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리라.

환경,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세계적 과제
경제개발과 자연훼손 연기법과 상통
철저한 경제적 분석만이 이익 가져와

경제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 문제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나라, 모든 인류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세계적 차원의 문제다. 이 문제는 풀리면 좋고 풀리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다.

이 문제 해결 여부에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세계 모든 인류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가 얽힌 문제, 그것도 국가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는 늘 이런식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이 자신들의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해놓고 후진국에게만 환경의 보전을 강요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지구 환경을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구환경의 보전을 운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의 훼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 차무고피무 차멸고피멸(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났으므로 저것이 생겨났다고 해석되는 이 경구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법을 설명하는 말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 아래에서 생존하고, 번성해왔다. 지금까지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오늘을 있게 한 지구 환경이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도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없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금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상이변과 자연 재해들로 인해 우리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 징후들이 다가올 재앙의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인간들의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현재의 경제학은 환경의 훼손이 가져올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을 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다. 설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환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학 이외의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다.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새만금을 보존하는 것보다 개발이 이롭다고 결론지었지만, 평가 과정에서 개발로 인해 부담하게 될 비용들을 명확하게 계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분석을 한다면, 우리는 환경의 올바른 보전이 보다 우리에게 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인간이 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경제학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달마의 氣 펜던트



액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준다는 달마도를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로 개발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신비로운 효능을 갖춘 '달마의 기(氣) 펜던트'는 건강과 행복의 징표로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4K 금장으로 달마를 형상화한 예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맥 · 전자파 차단 기능으로 원적외선응용평가원의 FI 품질보증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SGS 검증을 얻었습니다.

가격: 귀걸이 16만원
펜던트 15만원

경제에서 발견한 불교

'경영자와 근로자' 상생의 不二 관계

기업을 구성하는 두 축인 경영자와 근로자는 따로 떼어 나눌 수 없는 관계[불이(不二)]에 있다.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발전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상생(相生), 정진(精進)].

그러나 기업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제행무상(諸行無常)].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1965년의 100대 기업 중 현재 100대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은 CJ, LG화학, 현대해상, 한진중공업, 대림산업, 한화, 한국전력 8개사 뿐이다. 기업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명예회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펼쳐지며,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릴 리가 없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 법칙을 기업경영에 적용한 경영인이다. 그는 저서 <카르마 경영>에서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뤄지며 강렬히 생각하면 현실에서 이뤄진다[업(業)]"고 역설했다.

수월관음도



높이88cm 가로58cm

점안불공과 축원불공 카필라 용어해설!
점안불공은 불교의식으로 부처님, 불상, 불화, 법구, 공양구등에 영험을 넣어 영험이 나타나게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법구 또는 공양구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는 의식이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하고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명칭이다.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점안불공의 영험 축원 불공의 소원성취!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패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 195,000
문의: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관세음보살 영험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놀라운 영험!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점안불공을 마친 평생 부자지갑

쌍춘절이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섬세하게 꾸며져있고 색상도 은나노 진보라색이라 세련된 최고급 지갑으로 안되
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돈을 버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용어해설!
점안불공은 불교의식으로 부처님 불상, 불화, 법구, 공양구등에 영험을 넣어 영험이 나타나게 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법구 또는 공양구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이 성취되게하는 의식이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49재,천도재
범음,범패
이수자도량
금강정사
011-9769-8868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드립니다
사업하시는분, 영업하시는분
집에 입시생이나
환자가 계시는 분
다라니 기도 하시는 분
대라니경 사이즈 가로 1m, 세로 1m
010-3113-9580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시식 사물 바라나비 경전
학인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행자모집
입산(入山)하여 바르게
수행하여 스님이 될
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실 02)353-5016
주지실 02)353-4924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뻑뻑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공일문의 (02)2631-2205,1305

종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직보살구합니다
(PC가능자, 법당에서 일해본 경험자)
보수 : 100-150만원
031)559-0891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평생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전세도 드릴 수
있습니다
(55세-65세)
018-427-225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포교원 개원 및 운영을
함께 하실 처사님,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조계종스님
051)621-0530

기도정진하실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및
처사님도 찾습니다
011-9803-6301

비구부전스님
불심돈독하고
pc(엑셀)가능한 50세이하
女종무원 구합니다
061)352-8097
019-320-9926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053)632-4844
053)641-4844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사찰관리하며 서로 탁마
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실
비구니 스님들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533-4203
011-9790-1779

천년고찰 선원에서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비슬산
053)614-91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자로서 인터넷PC
가능한 45세 이하
女경리 구합니다
▷경북 구미
010-3131-1094

비구니
부전스님 및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11-568-0108

산세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처사님 보살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52)254-5125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경기도 여주
011-259-5989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연등 국제 선원
내외국인 참선 수행 도량
032)937-7033
011-9554-3568

비구니 기도스님
(女)행자 모집합니다
(고졸 49세 미만)
대학 및 수행하는데
모든 지원 해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팔공산
011-549-3821
010-3500-4004

백련채식뷔페, 전통찻집
(사찰음식연구소)
사찰음식 연구하실
비구니스님(급)구함
031)485-9411
011-707-5552

조용한 산사에서 평생
기도하며 정진할 비구니
공양주 및 출가자를
원합니다
▷나이 30~50대
017-569-3722

사찰女
사무원
구합니다
(45세이하)
041)673-1888

법률상식과 능력있고 시간
자유로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신심깊은
50~60대 재가불자
처사님 연락요(차량소유자)
011-831-6434
055)367-1964

비구, 비구니 스님이
되고 싶은분
승려증이 필요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17-571-5599

비구,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전통사찰
055)335-6449

공 고
삼화불교신문 2006년 4월 7일자 제25호
3면 입종사찰안내란에 "오봉수-효란스님"의
입종기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으므로
입종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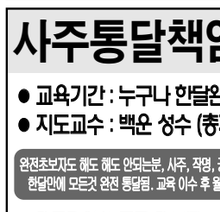
제1기 제1기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선착순 30명)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지방분 환영 ●포교활동 하실분 ●스님동참환영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 ●전국만행 ●맨발등산 하실분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신행단체 특강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635-7008 상담은
018-789-5008 서울739-5008 마산245-2662 중요합니다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고급" 1자 지장보살(청자 · 백자)
1,000불 저렴하게 드립니다
※ 한정판매 300불 이상 선착순
● 높이: (좌대포함) 약 34cm ● 넓이: (가로) 약 14cm
● 가격: 1불당 12,000원
● 요장: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 판매 연락처: 042)282-2334
016-606-5658

수강회원모집
◆ 周易原典講座 개강
◎ (수) 오후 7시~9시 - 4월5일개강(주역 계사전)
◎ (수) 오전 11시~1시 - 5월3일 개강(주역입문)
◆ 중용(中庸) 개강
◎ 매주 (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4월5일 개강
◆ 논어(論語) 개강
◎ 매주 (목) 오후 7시~9시 - 5월 4일 개강
◆ 월 수강회비: 주역 7만원, 기타 6만원
(사) 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www.dongbang.or.kr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구큰절 053)474-8228 | 경산도량 053)811-0337 | 칠곡도량 053)312-822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자여러분께 알립니다
'프로폴리스'를 직접 채취하여 판다는 건강기능양봉원의 성구스님(속가명 유복렬)이라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승적을 가진자로서 00양봉원에서 프로폴리스(허가도 없는 제품)를 헐값에 구입하여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판매한 기간은 5년정도로 매우 많은 양을 팔아 자신의 치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제보자 : 시원심 보살 010-9195-3173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 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5. 1
월 · 화 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학인(염불)스님. 행자승 모집
재(齋)의식. 염불(각단불공)을 배우고저 하시는 스님. 전법사, 천도재의식. 상단불공. 관음불공. 지장불공. 신중불공. 조왕. 산신불공. 용왕불공. 칠성불공. 삼재풀이불공. 시식. 목탁. 법고. 태징. 사물 다루는법을 성심 성의껏 기초부터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특히 스님이 되고싶어 출가를 결심하고 망설이고 계시는분 환영합니다. 문의 하십시요!
(원하시면 득도후 행자 기간을 거쳐 순천 선암사 강원이나 등방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보사 주지 석경보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문의전화 051)364-4889 / 0502)364-4889

병고,불치병,신병,정신병등 무료로 기치료 해드림
중생들이여! 약사여래의 수기가피력을 받아 자성광명을 밝히소서!
신병,정신병,비만,중풍,만성두통,불면,요통,당뇨,불임,불감증,견통,요실금, 해소,천식,아토피,간질,혈압,신장,관절통,각종 원인불명증세 등 특히 영적문제,영가작용,업장문제 등 어떤 문제도 대부분 즉각효과
◆ 외국에 계신분도 원격치료해 드립니다
◆ 생활기공무료지도
▷비전法氣침술법,신비氣기치유법전수
▷수기및기활용술 - 단기간전수, 즉시 활용가능
삼각산마하부다사 011-222-8485, 02)994-3376

실버타운 소원성취 기도처
산세 수려한 청정도량
저렴한 보시금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편히 모십니다
주지 법사 010-9367-5982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사찰 터 -

● 위치 : 부산 ● 위치 : 포항 ● 위치 : 경남사천
● 법당 : 25평 ● 법당 : 20평 ● 총평수 : 16000평 ● 가액 : 4억1천
● 요사 : 50평 ● 요사 : 25평 ● 위치 : 경북포항
● 부지 : 80평 ● 부지 : 760평 ● 총평수 : 700평 ● 가액 : 3천만원
● 가액 : 2억5천 ● 가액 : 6억 ● 위치 : 경남사천
● 총평수 : 7000평 ● 가액 : 1억6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남한강사찰 1000평-3억
2.서울종로산중사찰-30억
3.경기광주현대식사찰-12억
4.퇴촌절터27000평-5억4천
5.여주사찰120평-전세2억
6.수유포교당15평-월40만원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요지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2채, 방4칸
주차장
● 가액 : 7억(절충가능)
018-554-6198

사찰안내

● 위치: 창녕읍에서 7분거리
● 평수 : 148평(등기필)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차진입가능, 요사채 3칸
● 답사후 가격 결정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
앞에 비구니스님이 살다간 곳임
주거지역임, 비구니스님 환영
● 시내버스 100M 앞까지 옴
011-9502-323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토굴 급히 구함

양도하실분은 지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청옆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일체시설완벽, 부처님 5불,
아미타불, 호신불 300불,
불단 옥탑에 산신각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6244-9111
032)684-389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평수: 45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시설완비 8년 운영
010-5458-6730

제주도안내

● 사찰 및 사찰터
농가주택, 과수원,
전원주택
● 시내근교땅
064)711-1447
011-9773-4414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 위치 : 서울 국립공원 내 ● 위치 : 대구
● 부지 : 약 500평 ● 부지 : 약 5천5백평
● 법당 : 약 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2동 ● 요사 : 100평
● 가액 : 5억5천 ● 가액 : 9억(대불사중)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광역시
● 부지: 100평(종교용지)
● 법당 35평(2층, 단층)
● 요사 35평, 기타 산신각
● 가액: 2억6천5백만원
● 특징: 신시가지에 위치한
도심사찰임

● 위치: 경북 영주시 소재
● 부지: 1500평 법당 35평
(목조, 단층) 요사 40평
● 기타 산신각 석등
● 가액: 2억3천5백만원
● 특징: 기암괴석의 바위와
산세가 어우러진 멋진도량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동구
● 대지 : 105평
● 요사채45평,2층법당28평
현대식 2층건물
● 실내욕실2, 실외화장실2,
창고, 심야보일러
● 가액: 3억(절충가능)
※ 부동산 사절.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011-785-567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500평, 건물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포교원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1동
2호선 5호선 2분거리
● 8층건물 중 7층
실내평수 50평
● 도시가스와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시설비 2400만원
02)2699-9358
011-622-4299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
(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
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산신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 건물: 53평
4층건물에 4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010-4601-12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옥산동
● 법당: 30평
● 특징: 냉난방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3443-0277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포교원 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절충
011-9393-4965

토굴안내

● 위치: 충남 홍성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 가액: 2억2천만원
010-6428-1129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시에서 10분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종단본사)
● 가액: 6억
019-692-22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가액: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440-3347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042)585-3573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화악산 자락
● 대지: 270평
법당: 목조기와 단청 남향
요사: 3동 황토 심야보일러
● 지방문화재 가까움 산세
계곡 수려함
● 가액: 5억7천만원
● 집기일체양도
011-9058-1051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보령시
주고면 신대천리
● 건물: 611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27평
● 가액: 2억5천만원
041)932-0533
016-236-007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 건물: 대웅전 25평,
종각 2평, 산신각 5평,
용왕전 3평
요사방 6개, 주방 10평
● 실평수 900평정도,
사용평수 2000평
● 주차 30대, 사찰연혁 70년
● 가액: 5억
010-4877-5900

포교원안내

포교원을 양도 또는 같이
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부산 중구
● 평수 : 총 60평
● 가액: 전세 8,000만원
(월세도 可) 시설비 협의
010-9258-2358
010-8678-544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IC 5분거리
대전역20분
● 대지: 250평중 100평대지
법당: 25평 산신각5평(목조)
부속건물18평 11평 주차장
● 가액: 1억2천. 시설및 집기완비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불로동 부근
● 65평, 주방, 방3칸,
삼존불, 소불(지장불
100불, 관음불 100불)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 / 시설비500만원
011-509-1525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암사1동 부근
● 평수:35평, 방1, 다락1,
입식부엌, 상단, 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가액:2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350만원
010-7337-2698
02)442-5698

사찰안내

● 위치: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 개인등기 창원시
전 1,000평
● 400평 공찰
● 총 가액 1억 3천만원
055)291-640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사천읍 구암3동
● 평수:1,000평
● 조립식건물 2동
● 심야보일러, 130m 암반수
● 가액: 시가1억 5천만원
016-9559-8889
055)854-340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소재
(교통편리함)
● 법당: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4층중 2층
● 총 70평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552-258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천7백만원에
월 35만원
010-8419-8004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235호
● 3층 건물중 2,3층
2층법당 34평 3층 공양간
방 3개 부엌있음 30평
● 가액: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없음
(현재 법당이 비어있음)
● 포교당 최적지
010-5710-1732

사찰 터 및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대지 170평, 전 480평
● 가액 : 6500만원
● 산세수려하고,
수행기도처로 적합
011-594-152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소재
(교통편리함)
● 법당: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4층중 2층
● 총 70평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552-258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천7백만원에
월 35만원
010-8419-8004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235호
● 3층 건물중 2,3층
2층법당 34평 3층 공양간
방 3개 부엌있음 30평
● 가액: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없음
(현재 법당이 비어있음)
● 포교당 최적지
010-5710-1732

사찰 터 및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대지 170평, 전 480평
● 가액 : 6500만원
● 산세수려하고,
수행기도처로 적합
011-594-1526

사찰안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2번지
● 대지: 문화재급 목조건물
대웅전 36평 요사채 30평
● 삼성각 6평, 종 누각 2층 10평
● 미륵부처님, 부처님 다 모셔져있음
● 물좋고 산세 수려함
기도도량으로 최적
● 가액: 15억
031)674-1117
011-250-727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연신내우체국옆
3, 6호 연신내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층건물중 2층
약40평, 방2칸, 부엌1칸
삼존불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
월 50만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좋은조건 의논
016-542-1055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근교
● 거리: 서울에서1시간 원주터미널
원주역에서 10분거리
● 종교용지800평외 320평,
보궁20평, 법당30평
신축요사채 50평(심야전기보일러)
● 산신각 미륵대불 3층불보탑
● 삼십년이상된 사찰임
● 건강상 사유로 급안내
● 가액: 3억9천만원
(절충가능)
018-731-8205
011-361-0516

토굴안내

● 위치: 경남
● 대지: 50평
● 건물 3동
임법당, 방2개,
입식부엌
● 배산임수로 촌낙의
끝자락 조용한곳
● 도지세 1년 80만원
답사 후 절충
010-4879-022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앞
● 평수: 40평
● 시설 일체완비
각단탱화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4846-519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상가건물 53평 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삼존불외, 후불, 신중, 독성,
산신 탱화,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2개 시설A급
● 지장입구 주차장완비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위치좋음.
●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7-508-2675
053)651-4027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북수원 동신아파트 부근
● 평수 : 약 70평. 3층건물 중 3층
신축건물이며 옥상사용가능
● 법당, 스님, 친견실, 스님방, 공양간,
공양방, 샤워실 있음. 시설위치 특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304-0036
※ 포교활동해보니 좋은곳입니다.
최상의 포교원으로 사정상 안내함

계율 근본정신 살리며 시대 따라잡을 '코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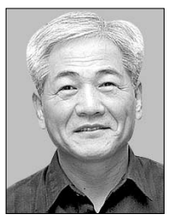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 '계율의 현대적 조명' 학술발표

수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인 '계율(戒律)'. 계율의 근본정신을 살리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계율의 현대적 조명'이란 주제로 4월 14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의 '남 · 북방 계율의 상호보완성 탐색'과 동아대 강동균 교수의 '정토교 계율의 현대적 조명' 금강대 권탄준 교수의 '화엄경 계율의 현대적 조명'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의 '계율과 청규의 관계에서 본 현대 한국의 선원 청규' 등 계율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목을 집중시킨 2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화엄경' 계율의 현대적 조명

이기적 현대인에 이타 자비행 강조

금강대 **권탄준** 교수



<화엄경>에서는 십선계에 중점을 두고 계행을 강조하고 있다. '십무진장'의 계장, '십지품'이구지의 삼취정계 그리고 '이세간품'의 십종정계 등에서 중점적으로 계를 설하고 있다. 십선계는 이미 <아함경>에서 설해져 상당히 중요시된 교설이었다. 또한 십선계는 전체적으로 출가자에게도 통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재가자의 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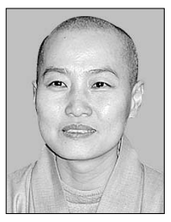
화엄의 계가 이렇게 십선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타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다. 화엄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모든 계에는 보살이 중생을 요익케 하고 안락케 하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하는 정신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승의 법을 버려야 한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문과 연각이 타인을 배려함이 없이 자신의 성취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계행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생을 위한 이타 자비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다운 자아실현과 진정한 인간의 삶을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십행품' 에서 자타를 이롭게 하는 요익행을 설하면서 스스로 깨끗한 계를 수호해서 가지며 일체의 감각대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설하고 있는 것도 오욕에 탐착해서 거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할 법문이라 할 수 있다.

계율과 청규의 관계에서 본 현대 한국의 '선원청규'

우리시대 수행에 맞는 '新청규' 필요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



근 · 현대 불교사적 관점에서 선원청규를 살펴보면, 고청규에서 선원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내규'로서 점차 변용됨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선원청규는 각 총림이 청규라고 제시하면서도 스스로 '내규'라고 밝히듯 선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주체측의 내규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조직의 규율에 벗어나면 바로 퇴방한다는 '승제(僧制)'와 다름없는 규정을 만들었다. 고청규에는 심원(心源)을 깨치도록 방장(조실, 선지식)과 소임자, 대중이 서로 봉사해야 하며 퇴방에 대한 규정으로서 죄의 경중을 두어 벌해야 하며, 범죄자가 다시 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선원의 방부자가 궁극적으로 불도완성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참회로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규구(規矩)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 조계종단이 크게 관심을 두는 청정승가의 '수행풍토'는 엄정한 수행체제에서 이루어진다. 더구나 간화선을 선법으로 하는 교단으로는, 선원의 청규는 더욱 중요하다. 조계종단의 각 총림에서 제정한 청규의 내용이 선원운영을 위한 효율적 관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조계의 '돈오'사상을 선지(禪旨)로 삼은 간화선 수행은 더욱 미혹되어 대혜가 묵조선을 '흑산하타좌(黑山下打坐)'라고 한 선수(禪修)를 도리어 범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로의 불도완성'을 위해 제정한 '고청규'를 근거로 다시 우리 시대의 수행에 걸 맞는 '신청규'가 나와야 할 것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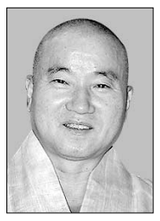
학술대회 인터넷 실황중계

보조사상硏 4월 22일 불교의 생태관 주제 월례발표회

학술세미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청한다.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세미나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다피아(www.buddhapia.com)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 사진)의 4월 월례 학술대회를 인터넷으로 실황 생방송한다.

4월 22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리는 이번 월례발표회는 불교세계관과 생태학적 위치에 대해 선사상과 각 종단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불교 법계관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의 '선사상의 생태학적 접근'과 위덕대 장익 교수의 '밀교의 생태관' 등을 포함해 3편의 논문이 소개된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가며 학술대회를 찾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보조사상연구원과 부다피아는 앞으로 열릴 월례발표회를 매번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도록이 편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차에 걸쳐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를 조사하고 최근 그 결과를 정리해 도록으로 발간했다.

오구라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남선합동전기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오구라 타케노스케(1896~1964)가 1922년부터 52년까지 국내에서 수집한 유물 1,100점의 문화재를 지칭하는 말로 그동안 '재단법인 오구라컬렉션 보존회'가 관리해 오다 오구라의 아들 야스유키에 의해 1980년대 초반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됐다.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사진), 고려 목종 10년(1007년)에 제작된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 등 다수 성보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오쿠라컬렉션은 회화, 조각, 공예, 전적, 복식류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재가 망라돼 있다.

김두식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7>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부쩍 카메라가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강점은 아마도 필름 비용이나 인화 · 현상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일 것이다.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전자와 홀이 공짜니까'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

찍고자 하는 물체의 빛이 반도체 칩에서 전자와 홀로 변환이 되고, 이 전자와 홀의 수를 반도체 칩의 회로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꾼 후, 바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원리다.

물체의 색깔과 빛의 세기가 화학 물질인 감광 물질을 변화시킨 후, 이 변화를 다시 사진용 종이에 전사시키는 예전의 필름 방식과는 다르게, 요즈음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빛이 반도체칩에서 전자와 홀로 변환되는 것이다.

전자와 홀이 반도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전자와 홀이 공짜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도체 내에서 빛이 전자와 홀로 변환되는 원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빛 에너지가 반도체 칩의 소자(화소라고 한다)에 비치게 되면, 반도체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간 후 자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빈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만들어진 빈자리를 홀(구멍)이라고 한다. 전자는 ⊖전기를 띠고, 빈자리는 ⊕전기를 띠게 된다. 떨어져 나간 전자와 빈자리인 홀이 소자 밖으로 이동하면, 회로가 전자와 홀의 수를 세게 된다. 결합을 이루고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간 빈자리인 홀은 마치 목욕탕 물에서 생긴 방울이 이웃하는 물이 채워짐으로써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위의 속박전자들이 빈자리를 채워 나감으로써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가 디지털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회로가 동작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인터넷에서 빛 신호로 전송하는 이유는 빛에 많은 신호를 실어 유리섬유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시각 또한 신호를 전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외부의 빛이 눈의 안쪽에 존재하는 망막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이 자극에 의해서 신경 세포내의 물질이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되고 이 이온이 시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파되는 형식이다. 반도체와의 차이점은 전자와 홀 대신 전자와 +이온이 분리되어 전파된다는 점이다.

상호관계에 의해 신호 · 에너지 주고 받으며 변화하는 모습이야말로 존재의 참모습

이렇게 전자와 홀, 그리고 빛 사이에 신호 그리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불변이라고 믿는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와 같은 느낌들이 사실은 빛이라는 파동, 그리고 전자와 홀의 상호 변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코 어떤 인식도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상호 관계에 의해서 신호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변화하는 모습이야 말로 존재의 참 모습일지도 모른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메모리 스틱에 저장하고 전송하면서도 우리는 2600년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무상함,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참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22-25-0005-381(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 건물: 2층주택 50평 방3,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0만원 가격절충가능
051)783-9265

포교당(급)안내
- 위치: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무학재역 3분 홍제역2분거리 대로변임. 3층건물 중 3층
- 약 15평 옥탑방 사용가능
- 삼존불, 탱화2점 및 산신탱화 1점 집기등일체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시설비 800만원
011-274-385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 법당 15평 요사채 75평 부지 1000평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5천만원
016-536-877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대지: 400여평
- 건물2동(100여평)
- 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
- 포교원으로 매우 적합
- 가액: 12억
011-587-2275

사찰 및 실버타운부지
- 위치 : 부산근교 바닷가
- 부지: 2만4천평(100% 평지) 정남향, 2차선도로 접
- 평당 25만원
- 사찰 및 사찰부지 다수 확보 비밀보장, 신속처리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051)863-6661/011-560-852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정토사)
- 대지 : 임야 5,700평
- 건물(시설): 요사채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
- 법당: 50평 산신각 10평 지장보살 조성
- 특징: 충주 중앙탑 건너편
- 가액: 13억5천만원
053)763-9881
011-9375-0108
011-866-7900

포교당 구합니다
- 위치: 경북 경주 지역
- 평수: 30평 이상
010-7272-8041

토굴안내
- 위치:용인시 모현면 외국어대학 근처, 교통편리
- 대지 140평, 텃밭 150평
- 건물 : 조립식 30평 (방3,거실,욕실,주방)
- 자연약수터 있고, 동네에서 700m 떨어져 있음.
- 가액 : 4천5백만원
010-6330-3340

사찰안내
- 위치 : 양산 IC부근
- 대지 12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앞 계곡, 교통좋음
- 가액: 2억1천만원
011-596-3563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김해 대동
- 대동IC 5분거리, 부산시내10분거리 김해10분거리
- 대지 : 170평 법당, 대웅전 요사채2동
- 가액 : 1억 5천만원
011-557-9293
055)337-2233

포교당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통 연세대, 명지대 근처
- 평수 : 30평, 2층 전체 사용, 삼존불 등등
- 몸만와도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벽, 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개인사정으로 인수자를 찾습니다
010-4766-1158
02)376-115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 지하철역 바로옆 부산 도심지 지하철역 최고 조건
- 평수 : 20평. 삼불부처님, 신중탱화 후불탱화, 영가단, 각단탱화 등
- 방2, 주방, 욕실, 시설완벽
- 신심이 돈독한 비구, 비구니스님에게 무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가액 : 보증금 전세 2천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011-488-03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다향 예술원)
- 총평수: 2500평(대지 450평)
- 법당, 황토방(2칸)
- 건물: 총 150평
- 특징: 황토집, 사찰 윗편 석류굴 바다와 시내 10분거리
- 가액: 3억(전세가능) 답사후가액절충可
054)783-8265
011-9572-244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위치 최고
- 총평수 : 47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2천 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235-9318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부도 내
- 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
- 가액 : 500만원 6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010-4215-9119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부근 2층
- 약 80평(주차시설 완비)
- 법당, 삼존불(동), 후불, 신중탱화 방사 4개, 공양간
- 가액: 일억사천만원 보증금 7천만원(월세,관리비 없음) 시설비 7천만원(절충가능)
- 서울,구리,성남,이천,원주 일대 포교당과 교환가능
011-9788-3306
011-9987-2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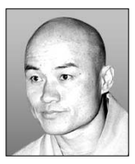
사찰안내(토굴)
- 위치: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33 미타사
- 대지 : 270평
- 등기건평 : 30평(기와슬라브) (가건물2동,본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텃밭,경관수려,지하수 2)
- 가액: 1억3천500만원
041)834-0206
011-9408-0055
011-9344-9718

일주문



삼존불 점안법회

장성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4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곡우제를 겸해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61)392-7502



송광사 삼월불사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4월 23~24일 국사전에서 제796주기 보조국사 종재를 여는 등 삼월불사를 봉행한다. (061)755-0107



장학금 전달 및 점등식

성북구불교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4월 19일 오후 6시 성북구청 광장에서 청소년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점등식 행사를 개최한다.



대구 반야사 낙성식

대구 반야사 주지 도오 스님은 4월 26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낙성 및 미얀마에서 이운해온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053)984-6421



주지취임 및 암도 스님 초청 법회

김포 동산사 주지 법전 스님은 4월 23일 오전 10시 동산사 대웅전에서 주지취임 및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성지순례 겸 단합대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구교구종무원장 석담 스님은 대구교구 27명 스님들과 4월 4~6일 거제 미래사에서 성지순례 겸 단합대회를 열었다.



제1회 야생화전시회

양주 대원정사 주지 해련 스님은 신도회 및 우리꽃 사랑모임(회장 이말순)과 함께 5월 4~7일 제1회 야생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31)855-5502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개관식

청담문화센터 이근우 평생교육원장은 4월 20일 오후 1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개관식을 봉행한다.

문태준 시인 제21회 소월시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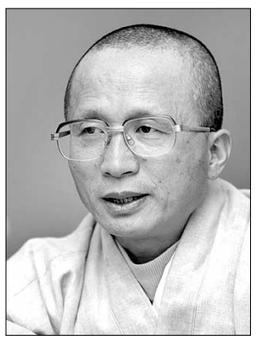


문태준(36 · 불교방송 PD • 사진) 시인이 제21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그맘때에는' 외 15편. 상금은 1300만원이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 시인은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세계불교 구심점 세우기에 동참을 …"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세계순례 한국展 여는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사진)은 불교계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많은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현재 티벳박물관을 통해 티베트 불교문화를 한국에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 스님이 이번 '마이트레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리는 '미륵불상 심장전(心臟殿) 사리 세계순례 전시회'의 한국 측 공동주최자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불교의 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불교의 구심점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세계불교 통합과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화를 의미합니다."

현장 스님은 이번 전시회와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불교의 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것 외에 티베트 불교의 순수성과 '다르마'(法)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절대적 신앙심이 국내 불자들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티베트인들에게 불교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티베트인들은 불법의 힘을 믿고, 또 그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정치인이나 문학가 등 유력인사들이 티베트 불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현장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힘이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로서의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장 스님이 티베트 불교에 매료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87년 티베트 성지순례를 갔다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을 만나고 나서 한국과 한국불교가 근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티베트인들은 고스란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티베트 불교를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를 알차게 꾸미기 위해 현장 스님은 전시회 기간 동안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의 대표자인 라마 조파 린포체 초청법회와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초청 공연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장 스님은 "40여명 가량은 대원사에서 숙박이 가능해 봄나들이 차 사리전시회를 관람하고 인근 보성차밭과 해남 미황사, 화순 운주사 등을 둘러보는 일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이번 사리전시회에 관심을 가져 주길 희망했다. (061)852-1755

한명우 기자

"법인 설립 · 조직 활성화에 최선"

불교산악인연합회 양춘동 신임총재



"산악인연합회를 공식 법인으로 만들고 분산돼 있는 조직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역조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월 1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불교산악인연합회 6대 총재로 추대된 양춘동(68 · 사진)씨는 조직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0여개 단위 산악회에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결속력이 약하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 양 총재는 "산악인연합회가 회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면서도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0여년간 조계사 반야회에서 활동하며 신행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양 총재는 "산과 사찰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며 "남북불자 금강산 공동 산행 등 주제가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행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총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계사에서 새벽예불을 올리고 있는 독실한 불자.

양 총재는 오는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열리는 취임법회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유철주 기자

스리랑카서 사경법회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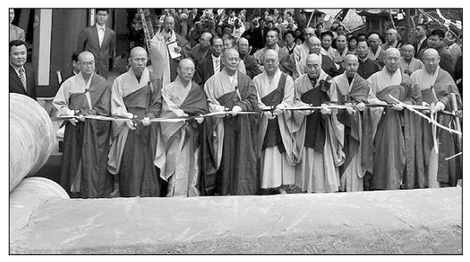
"사경(寫經) 수행의 본고장 스리랑카에 1,700년 한국 사경의 정수를 보여주겠습니다."

4월 16일 스리랑카 마라다너 사원에서 '고려 전통사경 법회'를 봉행한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사진)은 이번 법회가 고려시대 찬란했던 사경 전통을 세계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스리랑카 사경법회를 계기로, 빠르면 올 가을 경에 중국 산동성 제남시 인근 전통사찰과 일본 등에서도 고려전통 사경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경산 스님 조사전 건립불사 기공법회



서울 적조사(주지 자제)는 불교정화에 헌신했던 경산 스님 조사전 건립불사 기공법회를 4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문도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적조사 대웅전 복원불사 회향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기공법회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동학원 개교 60주년 기념식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이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4월 7일 광동중학교 강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광동학원은 합동대법회(5월 중순), 음악회(6월), 운악제(10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또 10월 경 교문 신축 기념식을 거행하고 <광동 6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 호산마을 복지관 준공 법회



광주 대각사(주지 도산)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호산마을 복지관이 4월 8일 준공됐다. 준공법회에는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 스님들과 최인기 국회의원, 이영남 화순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호산마을 복지관은 336평의 부지에 5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부산 내원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



부산 내원정사 내원불교대학(학장 정련)은 4월 12일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내원정사는 2002년 3월부터 진행해오던 내원불교교양대학을 2006년 4월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으며, 신입생 202명을 1기생으로 매주 화, 수요일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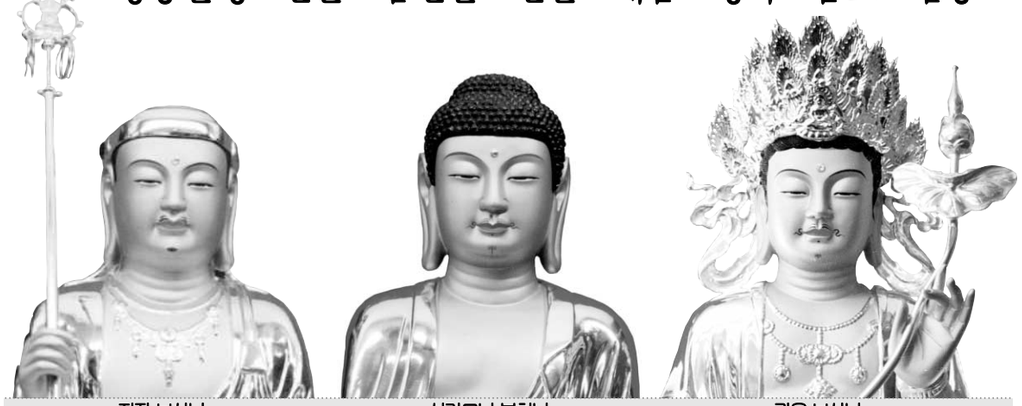
인천불교회관 개원2주년 기념법회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은 4월 9일 개원 2주년기념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대법회를 열었다. 대전 영선사 회주 성관, 경주 연지암 주지 법진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스리랑카 국립무용단의 '불교민속무용' 공연과 경로잔치도 열렸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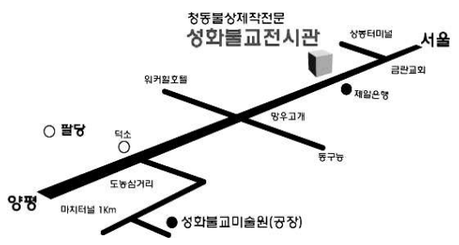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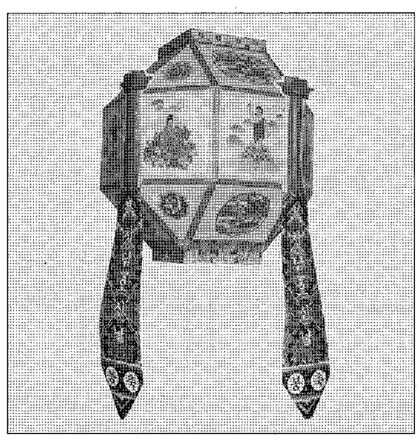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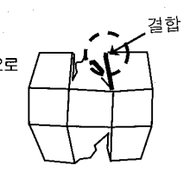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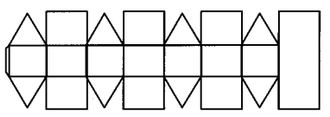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불자 세상보기

신 연 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

가정폭력의 피해자

최근 마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살인사건인데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마산의 가정폭력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2시간 넘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 남편이 잠들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남편의 목을 졸랐고 자수했다. 당시 그 피해자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있었고 두개골과 갈비뼈엔 골절상을 입어 자수한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릉여중생의 아버지 치사사건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이란 점에서 여성계에선 환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비슷한 사건들 가운데 가정폭력의 상황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에서야 가정폭력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정상참작으로 양형에 참고할 뿐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결을 내린 적은 없다.

가정폭력과 연관된 가족원의 살해 행위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의한 살해와 가정폭력 피해자인 부인과 자녀에 의한 가해자 살해 행위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처리과정은 현저히 다르다. 가정폭력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살인과 살해행위는 보통의 경우 폭행치사 등으로 처벌되며 심지어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는 거의 살인으로 예외없이 중형으로 처벌을 받아왔고 그 사건의 원인이 된 가정폭력이 경시되고 심지어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여 처벌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살해 행위 중 장기간의 폭력상황 노출과 며칠간 혹은 사건당일에도 강력한 폭력과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가 잠을 자는 가해자를 죽이는 경우는 폭력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관점'에서는 가해자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구타당해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살인 당시 자신이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폭력의 현재성, 방어의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폭력 피해여성에게 맞다가 죽으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많은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 후 잠든 남편을 죽이게 된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계속 때리다가 잠이든 남편이나 아버지는 잠이 깨면 또 때리는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잠깐 쉬는 것이지 폭력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여성에게는 잠이든 남편을 죽이는 것에 대해 폭력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재판부에서 최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고 형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의 전화'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형법 개정논의를 통해 남성중심적인 정당방위 규정을(이는 남성과 남성간의 힘의 균형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폭력만을 범주에 놓고 있을 뿐이다) 바꾸어 냄과 동시에 법의 적용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재해석과 이를 통한 사법체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활발하고 끈질긴 활동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열린마당

지난주(제573호) 현대불교신문의 1면 머릿기사였던 '교회가야 친구들과…'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불교계 청소년 포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성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조계종의 포교담당 국장, 지역사찰의 스님, 불교계 유일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관계자, 일선 중학교 교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대안은 무엇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스포츠 등 다양한 포교방법 찾자

우리는 지금 청소년 포교를 열심히 해 성공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평 상원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호산스님은 사찰에서만 펼쳐졌던 청소년과의 만남들을 탈피해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스님은 홍천 대명 스키장에서 4년째 달마배 주니어 시합을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 관음사 포교국장 비구니 스님은 롤러스케이트를 사찰에 비치해 놓고 청소년들과 함께 움직이며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스님은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포교 현장을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구미 진오 스님의 마라톤, 법륜사 보경 스님의 축구교실, 대구 관음사 우학 스님의 야구단 창설 등등 처처에서 스포츠를 통한 포교전략이 서서히 자리매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처럼 스포츠 등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포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종책으로 발전시켜야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포교전략이 필요한 때다.

재현(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성지순례 등 가족과 함께 신행을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대해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인 방법론이나 대안이 부족한 게 불교계 현실이다.

사찰 구조상 아이들의 구미에 딱 맞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몇몇 사찰이나 포교당을 제외하고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는 강요는 오히려 사춘기의 청소년에게는 부작용만 더해갈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자연스런 접근과 충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포교에 있어 제1선은 내 주변이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후 5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신 후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성을 향해 전법의 길을 나선다. 내 가족에 대해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들이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신 혼자만의 신행생활에 그친다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의 불교, 함께 공부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식탁에 오관게를 적어놓고 식사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주말에 가족이 함께 사찰순례 여행을 다니고 템플스테이에도 참가하다보면 아이들에게 여행의 기쁨과 자연이 주는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으며 그 자취는 아이의 가슴속에 크게 자리 잡을 것이다.

각우(보은 법주사 포교국장)

사찰에서 먼저 '놀토' 활용해야

사찰에서의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 청소년포교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갈수록 더해만 가는 입시의 치열함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여가생활과 종교활동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컴퓨터게임과 인터넷만큼 청소년들의 관심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두 제도의 도입으로 가족단위의 여가활용과 체험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로 사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될 거라는 사실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찰을 찾아 체험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포교와 연결될 수 있다. 도심지 사찰에서는 지역 학교와 연계를 통해 사찰을 활용한 토요휴무제(놀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놀토 프로그램을 대상별(청소년, 가족), 기간별(당일, 합숙형), 내용별로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도자 교육과 연수를 통해 보급해야 한다.

조한곤 (사)파라미타청소년협 사무과장

불교 장점 개발해 청소년에 다가가자

많은 사찰에서의 청소년 포교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포교가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교의 장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이유도 있다.

학생들의 행동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두 불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학 때 한번 느껴본 템플스테이나 사찰에서 경험한 참나 찾기 수련회가 아이들의 인상에 깊어 불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만의 우리 불교가 지닌 장점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다가갈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찾아본다면 우리의 청소년을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경 (동대부중 교법사)

종교편향 언행 정치인에 '불심'은 싸늘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조사기간: 3.23~4.13, 총 참여자 70명)

공직자들의 잇따른 공식석상 종교편향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 대선 또는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한 것이므로 무방하다	1명 (1%)
② 문제는 있지만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거나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지지하겠다	3명 (4%)
③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	48명 (69%)
④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18명 (26%)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명동성당에서 펼쳐진 영산재

한국 가톨릭의 본산인 명동 성당 꼬스트홀에서 불교전통의식인 영산재가 4월 19일 열렸다. 지난 해 조계사 청년회는 유교, 기독교, 이슬람 성직자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화합을 모색하는 자리다. 가히 혁명적 발상의 산물이다. 그런 걸 보면서 아득한 옛 기억이 떠오른다.

빵 신자의 추억이 서린 곳, 논산훈련소다. 일요일 아침이면 대다수 훈련병들은 독실한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가 된다. 대열을 이루어 군종병의 인솔 하에 군가를 부르며 씩씩하게 법당으로, 교회로 간다.

신자에게는 특권이 있다. 노예 사냥하듯 마구잡이로 끌려가야하는 사역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리고 법당에서,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푸짐한 빵을 받아 안심하고 꾸역꾸역 먹는다.

빵 신자의 면면은 수시로 바뀐다. 맛있는 빵을 넉넉하게 주는 쪽으로 몰린다. 부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은 오직 빵에 달려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는다. 지난 주에 법당에서 수계 받은 놈이 이번 주에는 세례 받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다. 성직자도 동료들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린 모두 절박한 처지에 놓인 훈련병일 뿐이다.

종교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다. 종교적 갈등이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전이된다. 타종교란 용어가 이웃 종교로 바뀌는데 100년 이상 걸렸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재,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 종교적 다양성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종교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종교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 일을 펼치고 저지르는 것이 정치라면, 종교는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명이다. 정치에 휘둘리거나 정치적 야심을 종교를 통해 구현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반쯤 얼이 빠져 있는 훈련병에게 제공한 약간의 위안과 빵 한 조각, 종교의 사명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들에게 빵을 건넨 손이 누구의 손인가는 묻지 말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 보시 가운데 으뜸은 무주상보시라. 가르침이 같으니 다툴 일이 무어 있으랴.

■ 이우상(소설가)



고불총림 백양사
대웅전 삼존불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병술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1천4백여년전 백제 무왕때 창건하여 각진국사를 비롯한 만암,
서옹대종사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유서깊은 도량입니다.
그간 사부대중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에 힘입어 삼존불 조성불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어 점안의식 및
회향법회를 아래의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아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대웅전 삼존불 점안 대 법회
일시 : 불기2550년(2006년) 4월 20일(목) 10시
식순 : 1부 - 점안의식 및 회향법회, 2부 - 축하공연

내년 백양사 대웅전 삼존불 봉안식을 위해 삼존불 봉안을 성스럽게 장엄하는 불사에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동참안내
문 의 : 061-392-7502(종무소)
접수처 : 종무소, 대웅전법당
〈입금계좌안내 : 농협 645117-51-018856〉



대한불교 조계종
古佛叢林白羊寺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Tel : 061-392-7502

녹야원에 '한국어 초전법륜비' 제막

4월4일 인도 현지서…혜총 스님 원력 결실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했던 초전법륜지에 한국어 초전법륜비(初傳法輪碑)가 제막됐다. 이로써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되는 우리말 초전법륜비를 통해 2550년 전 최초로 이곳에서 설법을 하셨던 부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가슴에 아로새길 수 있게 됐다.

한국어 초전법륜비 제막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이 있다. 스님은 2004년 한-인수교 3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녹야원 최초의 한국 불상 봉안법회에서 법주를 맡으면서 이번 불사와 인연이 됐다. 당시 한국불상이 모셔진 녹야원 대각회 본당 주지인 스리랑카 수메다 스님으로부터 "한국어로 된 초전법륜비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곳에 한국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워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영국, 미얀마, 태국, 일본, 스리랑카 등의 불교국가에서 각국의 언어로 새긴 초전법륜비가 세워져 있었지만 한국어로 된 비(碑)는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4월 4일 인도 녹야원 대각회 야외에서 제막식을 가진 한국어 초전법륜비는 한국 불자 300여 명의 보시 공덕으로 현지에서 제작됐다.

가로 2m, 세로 1.5m 크기 대리석으로 조성된 한국어 초전법륜비에는 '최초의 부처님 가르침' 이라는 큰 제목 밑에 <초전법륜경(初傳法輪經)>에서 발췌한 부처님의 최초 법문을 새겨 넣었다.

바라나시 근교 이씨빠따나 녹야원에서 아야다교진여 등 5명의 비구를 제도하기 위해 설했던, 출가자가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과 그것을 떠난 중도, 팔정도의 가르침과 사성제에 대한 법문 내용을 담았다. 또한 초전법륜비 하단에는 세계 평화, 국운융창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한국불자들의 발원문도 함께 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장관과 티베트불교대학 부학장, 현지의 학생들, 한국에서 참여한 신도 등 1천여 명이 운집했다.

의식은 스리랑카식과 한국식이 함께 진행됐다.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이 4월4일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열린 초전법륜비 제막식에서 인도 · 스리랑카 스님들과 한국에서 온 불자들과 함께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동권 교수

현지 행사에 동참한 강동균 동아대 교수는 "너무나 많은 현지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초전법륜비 제막에 관심을 보이며 마음을 모아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했다.

의식이 끝난 후 수메다 스님은 혜총 스님과 함께 참석한 28명의 한국 불자들을 위한 특별 다과회를 베풀며 한국어 초전법륜비 제막을 축하했다.

수메다 스님은 "많은 한국불자들이 찾는 이곳에 한국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초전법륜비가 세워진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기뻐했다.

혜총 스님은 "초전법륜비 제막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하게 받들고 부처님 오신 뜻과 전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차(茶)로 한국불교 알려요"

뉴질랜드 남국정사, 다도회 구성 한국문화 소개



뉴질랜드 남국정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다도회를 열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은 1993년 초 약 2천명에서 현재 3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늘어났다. 이곳의 초기 한국 이민사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다양한 계층이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특정 분야를 전공(공대)한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착한 것이다.

불교는 언제나 그렇듯이 강력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흡인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 교민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200여 곳(한인교회)으로 늘어난 반면 불교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

처음 만나면 묻는 말이 누구나 "어느 교회 나가세요?"였고, "절에 다닌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뉴질랜드에도 절이 있습니까"였다.

그런 가운데 1994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일부 교민 불자들이 모여 남국정사가 창립됐다. 처음엔 21명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해 말에는 270여명으로 늘어났고, 장소도 초대 회장의 집에서 가정법회로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의 작은 강당을 빌려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드디어 뉴질랜드 남부 오클랜드 쿠메우(Kumeu)의 현 장소로 이전해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이곳 현지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위원장들을 초대해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국불교를 소개한다.

특히 남국정사(주지 동진)는 차 문화를 통해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차 문화는 서양인들에게는 낯설지만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불교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한국의 차 전문가를 초빙해 강좌를 열었고, 8월에는 오클랜드 남쪽에 위치한 '해밀턴 박물관'에서 주최한 '한국 전통자수 전시회' 행사에 찬조 출연해 한국다도를 알리는 '선차시연'도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많은 현지인들은 높은 호응과 함께 우리 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런 반응에 용기를 얻은 남국정사는 현지인들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다도회를 구성했고, 올해 1월 17일에는 '제 1차 다도 기초반수료식'을 가졌다.

물론 뉴질랜드에 차 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차에 매력을 느끼는 현지인들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곳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뉴질랜드에서 한국불교가,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곳 현지인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키자는 각오가 대단하다.

글 · 사진/뉴질랜드=보리안(본지 통신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불교에서 미래찾는 중국정부

빈부격차·지역간 갈등·환경오염 고통 속 조화로운 사회 건설 위한 불가피한 선택

중국에 전해진 이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불교는 중국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불교가 없었다면, 방대한 스케일과 깊이를 함께 간직해온 중국의 문학 · 미술 · 음악 ·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서기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른바 '개혁 개방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불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민을 억압해온 권력이며 아편'으로 대접을 받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 4월 12일자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불교포럼'을 제안하여, 세계 30여 나라에서 온 불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 1차 대회를 저지앙(浙江)성 항저우(杭州)와 저우산(舟山)에서 개최하고 있다.

'세계의 화합은 마음으로 시작하자'를 주제로 내건 이번 포럼의 주최 측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자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강연을 제공하고 중국 불자들과 세계의 불자들이 대화 · 교환 · 협력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이 포럼의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가 중국 불교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포럼'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중국종교성 소속의 한 스님이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한 정책을 좀더 관용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이번 '포럼'의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新華)통신'에서 "중국에서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49년 공산당 집권 이후 최초의 행사"라고 보도하는 것만 보아도, 이번 '포럼'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그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서구 언론의 시각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비판에 치중하는 서구의 시각은 별개로 하고, 우리는 '중국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불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2006년 4월 11일자에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공헌하는 불교'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요지는 "중국의 주류 종교인 불교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종교사무국 예샤오원(葉小文) 국장은 "화합과 평화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종교인 불교가 인민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조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동안 배고픔의 해결이 과제였던 중국이 이제는 빈부 격차와 지역간 갈등, 산업화에 따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 '답'을 찾아 탐색하여 '그 해결책을 불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제 그 결과가 '다양한 불교 정책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샤오원 국장의 말과 같이, 화합 · 평화와 자비라고 하는 불교적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중국 내부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음은 확실하다.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 변화는, '사회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불교가 필수가 된 현실 상황'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 자유기고가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나라번영 민족화합 세계평화 불교중흥기원
제 11 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형스님이 20여년간 길상도를 연구하고 정진 하여 1996년 새봄에 봉행한 제1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 大宗師께서 친히 임석 중앙법어를 전하시고, 당시 대통령 축전으로 축하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여수성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와 시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만히 성취 되었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금년 제11회 대길상도전을 거행합니다. 길상은 불고의 범구비유경 제4권에 상세히 설하여져 있습니다. 대제전 작품은 대길상도와 함께 왕희지체 서법, 漢代의 예서체, 역대 중국황제필법, 淸代의 등석여체, 齊白石 필법 등 法書 작품을 연각하여 道와 예술의 심오한 경지를 성취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力作들로 무한한 감동을 체험케 할것입니다. 대제전은 그동안 불교계 대표적 문화제전의 한 흐름으로 뿌리내려 불교발전과 밝은사회 구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격려와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봉행되었던 제10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문스님, 일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등 각계인사 다수가 법문 축사와 축하의 뜻으로 동참하였습니다. 石山 玉龍子 석지형 스님 선필 대길상도는 세계적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歷代대사관등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石山 玉龍子 석지형 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 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명의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11회 제전을 동행함에 고강한 필력의 다양한 길상도와 무려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추사체, 문수동자도, 낙산대불도 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九龍海樹長瑚

玉龍子

❀ 기념대법회 : 2006년 4월 20일(목) 오전 11시
❀ 작품전 : 2006년 4월 20일 ~ 4월 23일(4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법사님의 특별대강좌 마련
❀ 장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 지방순회작품전 : 2006년 4월 24일(월) ~ 5월 12일(금)
※ 등원 불자님께 호신불 목걸이 증정 등 기념품 증정

世界的 禪筆 天馬圖 구도적 예술세계



2005년 5,000여명이 동참한 제10회 대제전 기념대법회 장면



玉龍子대길상도의장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회득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법사는 입입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3446-2158,2185, 3443-9871~7, 511-6210~5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4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574 호

한 땀 한 땀에 멋·얼 녹여요



한복명장 김복연씨

산문밖의 선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일류 한복점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화려한 옷감들로 눈이 부시는 한복골목은 평생 한복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의 보금자리다.

김복연 한복명장(제2002-17호)의 연구실도 한복골목에 있다. 10평 남짓한 연구소는 문 입구에 명장의 연구실임을 알리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을 뿐이다. 주인은 그 작은 간판으로 '진정한 멋은 화려한 치장 속에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게다.

침모의 바느질 어깨너머 배워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는 법이지요. 누구에게 보일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한 길을 그렇게 왔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달인중의 달인 6명에게만 수여된 명장의 반열에 오른 김복연(72)씨의 꾸밈없는 한마디에 뭔지 모를 깊이가 느껴진다.

1935년 성주의 양가집 둘째 딸로 곱게 자란 김복연 명장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 좋아 어린시절 침모(집에서 바느질일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의 바느질을 항상 어깨 너머로 배웠고, 비단에 수를 놓으며 비단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꾸밀 줄 알게 됐다. 단오절에는 창포로 머리를 감았고, 댕기를 휘날리며 그네를 탔다.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가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김 명장에게는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삶과 멋이 고스란히 배어있고, 평생 우리 옷을 만들며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그 멋과 얼을 녹였다.

"한복엔 자연스런 멋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옷고름도 자연스럽게 날리고, 빨간 댕기도 두루막도 휘날리는 멋이 있는 것입니다. 입었을 때 저고리 소매는 편안한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양버들이 편안히 늘어지듯이 말입니다."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 알아야"

김 명장은 우리옷의 자연스러운 멋을 강조했다. 그 멋을 모른 채 소매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또, 오래되어 빛이 바랜 무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모른 채 새것만 고집하는 현대인들의 조급함과 물질지향주의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선다.

"새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랜 것이나 옛 것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함이 스며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오래 된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의 눈에서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 가늠된다. 또 자연스러운 것이야말로 참된 멋임을 아는 그의 마음에서 흐트러짐 없는 격조가 창출되는 것이리라.

옛 선조들의 깊은 멋과 감각을 익혀 온 김 명장에게는 서양복식에나 적용되는 센티미터와 인치의 개념이 일상화되어 한복 기능대회에서까지 적용되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현대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릴때부터 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에 마음이 끌려 한복만들기를 일생의 업으로 삼아온 김복연 명장. '자연스러움'과 '옛것의 아름다움'을 작업의 화두로 삼고 있다.

한복은 수양버들같은 자연스러움이 최고

김 명장은 한복에 서양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단국대학에서 늦은 배움의 길을 걸었다.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왔지만 배울 때는 초심의 마음으로 홈질부터 배웠다. 하심의 도리를 알고 실천해 온 김 명장은 서양의 규칙을 우리 옷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모두 익혔고, 궁중복식 재현과 응용까지 두루 통하게 됐다. 그리고 명장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바로 서류를 접수해 한번에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명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장인이었지만….

김 명장은 "어린시절 그릇이 큰 부모님에게서 받은 가르침 하나하나가 오늘날 명장에 오를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불을 끄고 서랍에 들어있는 중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주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도 김 명장의 삶을 이끄는 지침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김 명장이 바느질 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부모님은 시집 간 딸이 바느질을 하지 못하도록 쌀가게를 차려줬을 정도였다. 하지만 김복연 명장은 오직 두 손가락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바늘을 놓을 수 없었다.

고희를 넘긴 김 명장은 "마음을 살피고 바르게 뜻을 세웠으면 갈등하지 말고 한 길로 나아가라"고 충고한다. 인생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길로 나아가면 바람과 비가 그치고 해가 난다는 것이다.

뜻 세우면 갈등 말고 한길로…

한때 남편이 운영하던 철물공장을 실패하면서 김치조차 담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김 명장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즐겁게 살았다"며 웃음을 머금었다. 그 웃음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는 생생한 법문이다.

"세상 모든 일은 기본에 충실할 때 발전할 할 수 있다"는 김 명장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찾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몸과 마음가짐 기본 기술의 습득을 강조한다. 종이 한 조각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한복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자세며, 홈질을 통해 손 감각을 키우는 조각보자기 만들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술로 여긴다.

상설한복전시장 마련이 꿈

열일곱 나이에 수놓은 무궁화며, 국화꽃 문양 베개 모서리를 소중히 펼쳐 보이는 김 명장의 얼굴에는 세월의 멋과 맛, 정성의 소중함에 대한 환희심이 가득 피어올랐다. 작은 비단조각을 통해 우리민족의 멋과 얼을 말하고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김 명장의 목소리엔 수행자의 거침없는 기상이 깃들어 있다.

불국사와 석가탑 문양을 본떠 창작한 십자수 베개피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준 비단이불조각을 펼쳐 보이는 김 명장의 얼굴에서 '오래된 아름다움'이 읽혀졌다. 그 아름다움을 읽는 사람은 더불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 질 것 같다.

김 명장은 비단이불조각의 꽃문양으로는 언젠가 수를 놓아 멋진 한복을 만들어 우리옷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방한모는 제대로 복원해 우리조상의 솜씨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참이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을 전하고, 우리옷의 아름다움을 알릴 상설한복전시장도 마련하고 싶은 김 명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확인시켜 주듯 김 명장의 손은 어느새 바늘과 실, 옷감들을 매만지고 있다.

대구/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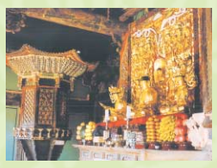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간직해 온 꽃문양 수와 비단들을 펼쳐 보이며 얼과 멋을 이야기하는 김 명장.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벙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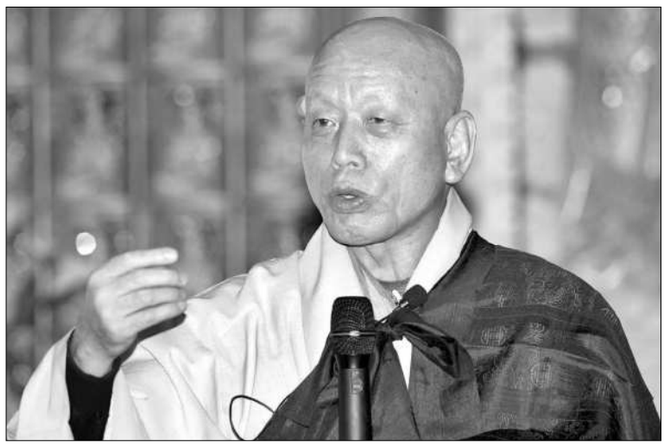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www.yongmoonsa.com

"도의국사를 종조로 봐야 합리적" 법통관 피력

특강-한암대종사의 종단관

현해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한 평생을 수좌로 살았던 한암 스님. 스님은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사상 전반과 역대조사에 대해 두루 통달했다. 스님의 저서 〈일발록(一鉢錄)〉에는 매우 다양한 자료가 인용되고 있다. 생전에 많은 책을 섭렵했다는 방증이다. 4월 7일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네 번째 주제인 '한암 대종사의 종단관' 강의에 나선 현해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은 "한암 스님은 어느 때는 매우 합리적인 면모를 보이고, 또 어느 때는 초합리적인 선사의 면모도 보였던 분"이라며 "스님은 특유의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근거해 조계종의 종통에 대한 통찰력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해 스님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은 4월7일 월정사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에서 "한암 스님의 종통관을 보완 · 수정해 합리적인 종통관을 세우자"고 밝혔다.

우리는 평소에 종단이 실질적 문제로 안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논의를 한 바 없어 혼란한 상태로 남아 있는 현 조계종 종통관(宗統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한암 스님의 종통관은 어떠하며 이를 근거로 종통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암 스님의 '눈 밝은'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근거로 보다 현실적인 종통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왜 법통(法統)을 종통이라고 부르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킨 후에 불교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 전에는 태고보우 국사나 보조지눌 국사가 통일시키려 했으나 통합이 안 됐었지요. 흔히 5교 9산이라고 말합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시기에 약 13개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종파마다 독립된 채로 따로 유지돼왔으며, 조선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이 종파는 유지됐습니다. 1950년 이후부터 각 종파가 독립하기 시작해 천태종, 태고종 등으로 갈라졌으며, 현재는 약 60여 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우 스님을 종조로 세우는 건 사대주의 발상"

'도의→보조→각엄→졸암→구곡→벽계'로 이어져

그런데 법통이라고 말하면, 이 많은 종파의 법통을 어떻게 다 하나로 모으며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열반종은 열반종대로의 종통이 있고, 천태종은 천태종만의 종통이 있는 법입니다. 조계종 역시 종통이라고 해야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암 스님 이전에는 조계종에 이른바 '종통관'이라는 관념도, 어느 쪽이 '법통이다'라는 정설도 없었습니다. 다만 1764년 송광사 채영 스님이 자료를 정리해 편찬한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原流)〉에 종통 계보가 적혀 있어 현재 이를 토대로 조계종의 일반적인 '종통설'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의 일반적인 '종통설'은 〈해동불조원류〉를 참고해 석옥청공→태고보우→환암혼수→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부휴선수(이하생략)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암 스님은 도의국사→법일→보조지눌→각엄→졸암연은→구곡각운→벽계정심으로 이어지는 종통관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암 스님은 〈불교〉 제70호(1930)에 발표한 '해동초조에 대하야'를 통해 "근래 문학상에 태고보우 국사를 해동초조로 정하는 일이 간혹 나타나니, 이는 스스로 위배됨이 극심하다 하겠다.(중략) 신라의 모든 국사들이 처음 조문에 들어가서 법을 얻어 동(東)으로 돌아오신 것이 오늘날 태고가 초조라는 주장 때문에 허황하게 되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또한 연원계통을 정직하게 가릴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형제가 태고 연원이 아님을 단언하는 바이다. 왜 그러냐면 구곡각운 선사가 조계종 제13대 국사 각엄 존자의 손제자가 됨은 분명히 이능화 선생이 저술한 〈불교통사〉에 기재돼 있는데, 태고국사의 손제자라는 문구는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기록이나 또는 비명(碑銘)에도 도무지 없다고 하였은즉 무엇을 근거로 태고를 구곡의 스승으로 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당당한 해동 조계종 제13대 국사의 손제자인 구곡이 다시 임제종의 후손인 석옥에게 법을 얻어 온 태고의 손제자가 될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목은 이색(李穡)이 찬한 〈원증국사탑비〉의 문도 명단에 환암혼수가 제일 먼저 기재 돼 있으나, 환암혼수가 태고보우의 법제자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석총람 하권〉에 실린 청룡사 보각국사비에는 환암혼수가 나옹의 법을 이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전래의 종통설에는 구곡각운이 환암의 법을 전수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방증은 없습니다. 다만 유방선이 지은 〈봉증만우천봉〉이나 고려말 이승인이 지은 〈송우천봉상인유방서〉에는 구곡의 제자인 만우를 환암의 계통으로 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구곡이 환암의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암 스님은, 태고를 종조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유교인이 정자 · 주자를 사모하는 것과 같이 중국의 연원을 계승하는 것을 그럴싸하다고 생각했거나 억불숭유의 시대에 승려가 살아남기 힘들어 해동조계종의 연원이 단절됨을 애석히 여겨 제13대 국사 각엄 존자의 손제자였던 구곡을 멀리 계승하여 조계연원을 부활하게 한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스님은 "따라서 해동 조계종 보조국사로부터 제13대 국사 각엄 존자의 손제자인 구곡선사와 구곡을 멀리 계승해 조계종을 부활하게 한 벽계선사의 연원이요, 태고의 연원이 아님을 단언"하며 조계종 법통이 단절됐으므로 정심이 구곡을 원사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계종 종헌을 보면 제1조에 '본 종의 기원을 도의국사에 두고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의 제종포섭으로 조계종이라 공칭한 이후 그 종맥이 면면 부절한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제6조에 '…태고보우를 중흥조로 하여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7조에서는 '본종의 법맥상승은 사자문의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의 수수로써 행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헌상으로 보아 입실면수나 전법게의 수수는 중간 중간 단절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의→보조→각엄→졸암→구곡→벽계로 이어지는 한암 스님의 종통관은 상당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옹 스님의 비문이나 환암 스님의 비문과 〈동문선〉을 종합해 봤을 때 한암 스님의 법통관을 약간 수정해서 도의→보조→나옹→환암→각엄→졸암→구곡→벽계→벽송으로 보완한다면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종통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창 월정사/정리=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서간문으로 보는 한암 스님의 인간미

21세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출가해 23세때 경허 선사에게 '인가'를 받아 깨달음을 얻은 한암 스님. 한암 스님의 제자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승으로 이름을 떨친 탄허 스님이 있다.

탄허 스님은 20세 이후 3년에 걸쳐 한암 스님과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침내 발심해 출가하게 된다. 구도열정과 더불어 스님들의 인간적인 면모 역시 놓칠 수 없는 대목. 제자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스승의 모습, 그리움과 진솔함이 그대로 드러난 서간문을 통해 제자의 구도를 간절히 기원하는 스승의 애틋한 마음도 느낄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불교사에 걸출한 족적을 남긴 3대에 걸친 사제지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서신과 한암 스님 말년기록인 〈일생패궐(一生敗闕)〉을 통해 살펴본다.

● 은사(경허)스님이 제자(한암)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건넨 글



경허 스님

나는 천성이 인간 세상에 섞여 살기를 좋아하고, 겸하여 꼬리를 진흙 가운데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만 스스로 절룩거리며 삽살개 뒷다리 같은 너절한 삶을 44년 간 살아왔는데, 우연히 해인정사에서 한암을 만나게 됐다. 그의 성행은 순직하고 학문은 고명했다. 함께 추운 겨울을 서로 세상 만난 듯 지냈는데 오늘 서로 이별을 하게 되니, (중략) 옛 사람이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랴."하지 않았던가. 슬프다. 한암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랴! 그래서 시 한 수 지어서 뒷날에 서로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하노라.(후략)

● 한암 스님이 세상을 떠난 스승(경허)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글

(전략)갑진년(1904) 통도사에서 지내던 중 마침 돈이 생겨 병을 치료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그럭저럭 6년 세월이 흘렀다.(중략) 하지만 당시는 말세인지라 불법이 매우 쇠미하여 명안종사의 인증(印證)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화상(경허)께서도 머리를 기르고 유생의 옷을 입고서 갑산, 강계 등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해(1912)에 입적하시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 한 토막글을 써서 스스로를 꾸짖고 스스로 맹서하노니 한 소식 분명하기를 기약하노라.

● 은사(한암)스님이 제자(탄허)의 첫 편지를 받고



탄허 스님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만족하게 도에 향하는 정성을 보겠노라. 장년의 호걸스러운 기운이 넘쳐 업을 지음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를 때에 능히 장부의 뜻을 세워 위없는 도를 배우고저 하니 숙세에 심은 선근이 깊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오. 축하하고 축하하노라.(중략) 반드시 시끄럽다고 고요한 곳을 구하거나 속됨을 버리고 참됨을 향하지 말지니라. 매양 고요함은 시끄러운데서 구하고 참됨은 속됨 속에 찾는다. 구하고 찾는 것이 가히 구하고 찾을 없는데 도달하면 시끄러움이 아니요, 참됨도 참된 것이 아니니라. 부르면 꺾어지고 고함지르면 끊어지느니라.(후략)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군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봉행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승가오칙(僧伽五則)'의 수행법을 널리 펴신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방 수좌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학림 기간 중에 화엄사상의 중심처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엄경〉의 대강백스님들을 초빙하여 화엄산림을 봉행합니다.







기 간 : 3. 17 ~ 4. 24. (매주 금 ~ 일)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참가비 : 주당 10만원

▌수행학림 전체 일정 (3. 17 ~ 4. 23 매주 금 · 토 · 일)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매주	금	19:00	저녁예불	월정사
		20:00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토	04:00	새벽예불 / 염불정진	
		05:00	경행(전나무 숲) / 아침공양 / 운력	
		09:00-15:00	오대 참배(108배 및 참선)	동·서·남·북대
		15:00-17:00	화엄산림(화엄경 강의 - 6회) / 약석	월정사
		19:00	저녁예불	상원사
		20:00	좌선법 강의 및 지도	
		21:00-05:00	철야정진(좌선)	
	일	05:00-06:00	경행(한암 · 탄허대종사 부도탑)	
			아침공양	
		09:00-10:30	참법 및 포살	중대사자암
		11:00	삼보일배 / 정근정진	적멸보궁
		12:00	서원 및 회향	적멸보궁
4. 24		09:00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대법륜전
		10:40	한암대종사 탄신재	
		11:00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12:30	'한국불교와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0시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漢岩大宗師의 思想과 그 影向' 학술세미나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2:00 ~ 17:00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문의처 : 월정사 종무소 033)332-6664,5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4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 현대불교신문사

화엄산림-제4강(23~30품)

번뇌 그대로 해탈! 실천행과 함께 가라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4월 8일, 월정사 수행학림 기간 중 대법륜전에서 열린 '화엄산림'에서 "화엄 사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진열해 놓은 대형 종합백화점과 같은 잡화(雜華)사상이며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추구해 온 특색"이라고 강조했다. 참선 수행 열풍이 부는 요즈음에 더욱 <화엄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엄경> 23품에서 30품까지를 강설한 지안 스님의 법문을 요약한다.

<화엄경> 강설 이전에 화엄산림이 열리고 있는 월정사와 <화엄경>의 인연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고 보면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법회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깊은 인연의 이치입니다.

오대산은 전통적으로 문수도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화엄삼성(華嚴三聖) 중 한 분이시지요. 그러니 오대산은 화엄도량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연관이 깊으며, 前 월정사 조실이셨던 탄허 스님께서도 생전에 '화엄대가'라, 70년대 말에 <화엄경> 강의를 직접 이곳에서 열기도 하시고, <화엄경> 번역도 하셨지요.


월정사 화엄산림에 참가한 사부대중.

'화엄경' 알려면 삼매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무엇이든 만들어 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23품 '승도솔천궁품(昇兜率天宮品)'을 살펴볼까요. 이 품은 부처님이 6번째 욕계천상계인 도솔천궁에 오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처님이 해인삼매에 드신 채로 처음 앉아계셨던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정,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서 도솔천궁으로 오르셨다고 나옵니다.

<화엄경>을 이해하려면 삼매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허구적인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천상에 오르다니,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마음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마음이 무엇이든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꿈속에서 보고 듣고 다 하지요. 의식으로 말하자면 몽중의식(夢中意識)인데 실제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꿈에서 보고 듣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엄경>을 설명할 때 '삼매 속에서 설해진 경전이다'라는 말은 '삼매 속에서 시방의 불보살이 등장하고 불가사의하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삼매 속에서 설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승도솔천궁품'은 흔히 5회 십회향법문이 시작되는 품이라고 불립니다. 도솔천왕이 마니장사자좌를 마련하고 부처님을 영접하고, 이어 24품 '도솔천궁게찬품(兜率天宮偈讚品)'에서는 금강당보살을 위시한 10당보살들이 게송을 설하며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어지는 25품이 '십회향품(十廻向品)'입니다.

금강장보살이 보살지광삼매에서 한량없는 지혜를 얻고 일어나 10가지 회향을 설하는데, 이 회향은 모두 3곳으로 회향됩니다. 중생회향, 실제회향, 진여회향이 그것입니다. 아래로는 중생에게 향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는 이야기지요.

<화엄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이 몇 개 있습니다. 3회의 십주(十住, 보살이 가져야 할 10가지 마음가짐), 4회의 십행(十行, 보살이 행해야 할 10가지 행위), 5회의 십회향(十廻向, 수행의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보살의 10가지 행위)이 그것입니다.

이 십주, 십행, 십회향이 성취되고 나서야 십지법문이 설해집니다. 십회향 전체가 십지로 나아가는 덕을 설한 법문이기에, 십회향법문은 십지법문을 위한 전 단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지품(十地品)'은 보살에 이르는 10가지 수행단계를 밝혀놓은 품입니다. 앞의 십회향, 십주, 십행 수행은 관법(觀法)에 의해 수행이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직접 체험하는 본격적인 보살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지, 십주, 십회향, 십행…. <화엄경>에는 이렇게 10자가 들어가는 품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허 스님께서는 생전에 통현장자의 <화엄론>을 중시하고 이를 근거로 <화엄경>강설을 많이 하셨는데, 이 통현장자의 <화엄론>을 보면 <화엄경>에 나타나는 10자가 상징하는 바를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10은 만수(滿數)를 상징하는 동시에 십바라밀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인 육바라밀에 방편(方便), 원(願), 역(力), 지(智) 바라밀을 더해 십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지 수행은 십바라밀에 배대해 설해졌으며, 또 한 지위가 다른 지위를 모두 포함하고 한 행이 모든 행을 다 갖춘 원만 융통한 보현행을 자세히 보이는 법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파악할 때 한 단면에 얽매이지만, 하나 속에는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십바라밀은 차례대로 십지와 대응되지만 실제로는 각 지마다 십바라밀이 갖춰져 원만 융통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화엄경>은 동적인 수행을 권장하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엄'이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듯이, <화엄경>은 '보살이여, 만행화(萬行華)로 깨달음의 길을 꾸며놓으라'는 참 뜻을 갖고 있지요. 부처님 법따라 살아가고 수행길따라 살아가려고 마음 낸 사람이 행함을 통해 일생을 항상 아름답게 꾸미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경전이 뜻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27품은 '십정품(十定品)'입니다. 한 마디로 십지보살수행을 완성한 다음 얻는 깨달음에 직결되는 경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지혜의 근본인 10가지 선정을 말하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계·정·혜를 삼학(三學)이라 부릅니다. 동시에 수행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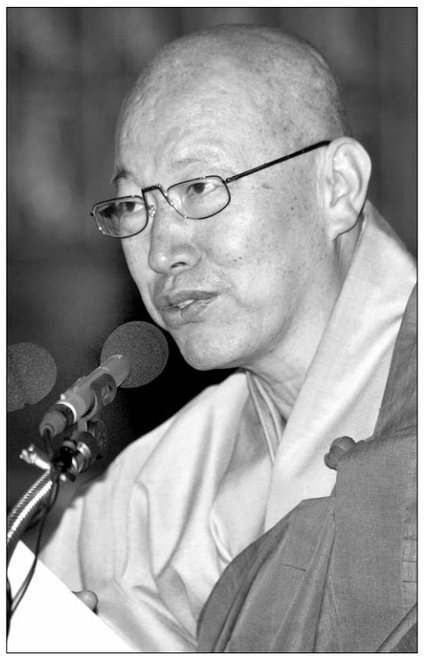
그런데 <화엄경>의 특이한 점은, 마치 의상의 <법성게>에 나오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처럼 점수적 단계에 있으면서도 대번에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깊이 공부하는 분 중에는 십주 성불론을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십정품'은 보살이 수행을 완성하면 십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품 '십통품'에서는 십정에서 십통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어 29품 '십인품(十忍品)'에서는 앞 품의 십통이 어루어지면 다시 열 가지 지혜의 인(忍)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품 '아승지품(阿僧祇品)'의 '아승지'는 범어를 음차한 단어입니다. 이 품은 124개의 대수(大數)를 설해놓은 품입니다.

흔히 <화엄경>을 교상 판석할 때 '원교', 즉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바닷물이 지상의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제법을 모두 수용해 조화시켰다고도 표현합니다.

이 화엄의 정신이 바로 한국불교의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불교는 부파불교, 중국불교는 종파불교라고 말해온 반면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라고 말합니다. 서로 모아서 소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모든 종파의 교의를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지요. 이 회통의 근거가 바로 <화엄경>에서 나옵니다.


월정사 화엄산림 네번째 강사인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화엄경>은 '보살이 만행화로 깨달음의 길을 꾸며 살아가라'고 설파하는 경"이라고 강조했다.

'성불은 못했지만 부처의 정신 바로 세워보자'

만물은 본래 평등한 것, 이것이 화엄정신입니다

<화엄경>은 대의를 '통만법명일심(統萬法明一心)' 혹은 '통만법귀일심(統萬法歸一心)'이라 표현해 일체 만법을 통합해 마음으로 돌리는 유심법문으로 요약합니다. 한마음을 밝힌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화엄도리'입니다. 마음은 갖가지 오온(五蘊)을 만들어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오지요. 즉, <화엄경>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진열해 놓은 대형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엄경>의 별명을 '잡화경(雜華經)'이라 하는 것처럼 화엄법문 안에는 온갖 잡화사상이 두루 수용돼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불교보다 기층민의 무속적인 면에서부터 고도의 선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과 상통합니다.

마음에 탐진치 삼독(三毒)이 있으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욕망을 끊고 해탈하자, 이것은 성문연각이 하는 말입니다.

대승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번뇌를 끊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다! 번뇌 그대로가 해탈이다! 실천행과 함께 가라,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사상입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말할 때도 화엄사상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불교에는 선 수행의 장점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신라 때의 구산선문에서 시작된 선풍은 중국선에 의지해 모방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외려 보조국사가 <화엄경>을 읽고 자극받았다는 이야기처럼, 깨달음의 경계를 내적으로 체험했다 하더라도 화엄의 사사무애를 통한 대외적 이타원력이 결핍되면 수행은 좀처럼 완성될 수 없습니다.

화엄사상은 원효·의상 스님에서 시작해 한 때는 우리 불교의 우수성을 일본이나 중국에까지 과시했던 사상입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현수·법장 스님 뿐 아니라 중국의 화엄사조인 청량국사도 원효 스님의 교설을 소중히 대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탁월한 법풍에 의해 창도되고 계도된 한국의 화엄사상은 통일 신라

'성불은 못했지만 부처의 정신 바로 세워보자!' 이것이 바로 화엄의 정신입니다. 중생 핑계 대며 나쁜 짓 골라하지 말고, 학 다리가 길면 긴대로, 오리 다리 짧으면 짧은 대로 본래 평등한 것, 그것이 화엄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세운 이 화엄의 가치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으며 또 손상 훼손될 수도 없는 정신입니다.

평창 월정사/정리=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밀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우신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제21회 불이상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알찬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1.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①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②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철학·문학·예술·비교사상, 기타) 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①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 또는 불교단체
②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3. 후보자 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총장·대학원장, 기타 기관및단체의 장)
4. 접수마감 : 2006년 6월 5일까지
5. 심사 : 불이상 심사 위원회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뜨레비앙 148호
전화 02)762-5624~6 / 전송 02)762-5627

不 二 會

Young Buddha Association
창립총회 대법회 공고

능인선원 지광 큰스님을 모시고
청년불자 양성과 국제교류사업을 선도할
Young Buddha Association 창립총회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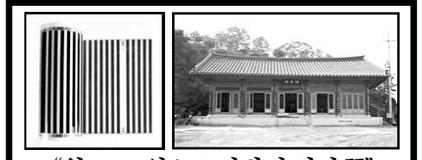
- 아 래 -

장소 서울 강남구 포이동 능인선원 대법당
시간 2006년 4월23일 오전 10시 30분

안건 및 중요식순
* 지광스님 축하법문
* 정관 채택
* 임원 선임
* 사업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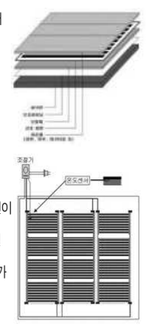
YBA 설립준비위 Tel & Fax 02) 6414-1034
서울 강남구 포이동 192-3 능인청년교육관 4층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금호필름의 특징
■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열선타입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시공하고 당일사용이 가능합니다.
■ 두께가 얇고 경량이어서 건물의 하중에 영향이 없습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 기존 전기판넬의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명이 반 영구적입니다.
■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안 가득 훈기가 탁월합니다.
■ 철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 혹한에도 동파걱정이 없습니다.
■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은 바닥만 따뜻한 일부 전기제품 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텍에서 설치하면 확실이 다릅니다."

금호 에너텍 KUMHO Enertech co. 상담/문의 031)422-0467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7>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 '구자무불성' 화두 끊임없이 공부 챙길 것 강조

간화선이란 명칭은 묵조선을 염두에 두고 붙인 것으로서 임제종 대혜(1089~1163) 스님의 가풍을 상징한다. 간(看)은 '본다'라는 뜻이고 화(話)는 '공안'이라는 뜻이다. 고인(古人)의 화두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구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이런 선풍을 간화선(看話禪)이라고 한다.

먼저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주장하는 묵조선과는 달리 간화선은 지혜를 우선하였고, 지혜를 얻으면 고요한 선정은 저절로 따라 오는 것으로 보았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간화선은 당나라 조주 스님(778~897)의 '개에게는 불성(佛性)이 없다'라는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공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조주 스님은 당나라 사람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남전보원(南泉普願) 스님 밑에서 이십 년 동안 머물렀고, 그 뒤 여러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다.

여든 살에 대중들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여 조주의 관음원에서 머물면서 사십 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을 맞이하여 가르치며 선풍을 크게 드날렸다. 북쪽에서 남종선(南宗禪)의 가풍을 크게 떨치던 조주 스님은 백스무 살에 입적하였다.

시호를 진제대사(眞際大師)라고 받았고 저서로는 <진제대사어록(眞際大師語錄)> 3권이 남아 있다. 그의 가르침이 참으로 컸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조주(趙州)의 고불(古佛)'이라고 불렀다.

당(唐)나라 말기에는 고칙(古則) 공안으로 알음알이를 타파하는 선풍이 극에 달했고, 송(宋)나라 대혜 스님에 이르러서 화두를 전문적으로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다.

뒷날 임제종에서는 이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공부의 기준으로 삼은 뒤 간화선의 선풍은 더욱 드날리게 된다.

이러한 선풍은 오늘날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송나라 이후에는 선종과 정토종을 결합시켜 '아미타불(阿彌陀佛)' 네 자를 공안으로 삼는 선풍도 한 때 크게 일어났다. 이것 역시 간화선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간화선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선가귀감>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日用應緣處 只擧狗子無佛性話 擧來擧去 疑來疑去 覺得沒理路沒義路沒滋味 心頭熱悶時

便是當人放身命處 亦是成佛作祖底基本也

날마다 맞이하는 인연 속에서 다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만 들고 오고 가며 끊임없이 의심하여 공부를 챙겨가다,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도 알 수 없으며 아무 재미도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답답해질 때, 바로 그 자리가 목숨을 놓아 버릴 곳이며 또한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되는 기본 바탕이 된다.

조주 스님에게 어느 날 어떤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조주는 "없다"라고 하였다. 경에서는 꿈틀거리는 보잘것없는 미물들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는 무슨 까닭으로 "없다" 라고 말했는가?

몽산 스님은 <몽산법어> '무자(無字) 십절목(十節目)'에서 말하기를 "만약 조주 스님의 선(禪)을 말로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뒷날 쇠몽둥이로 맞으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할까? 화두를 들 때 조금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재주들은 조금도 써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오고 가며 앉고 눕는 삶 속에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뿐이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제멋대로 이리저리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공부를 챙겨 나가다가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도 알 수 없으며 아무 재미도 없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답답해질 때, 바로 그 자리가 산 사람의 목숨을 내던질 곳이다. 이와 같은 경계에 이르러 놀라 선뜻 물러날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니, 이때가 바로 부처님이 되고 조사 스님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어떤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 스님은 '없다' 라고 하였다. 이 한 마디는 종문(宗門)의 한 관문이며 못된 지견을 꺾는 무기이기도 하며 모든 부처님의 얼굴이기도 하며 모든 조사 스님들의 골수이기도 하다. 이 관문을 뚫은 뒤에라야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 될 수 있다."

오조법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하였다.

趙州露刃劒 寒霜光焰焰
擬議問如何 分身作兩段
시퍼렇게 날이 선 조주 스님 칼
서릿발 기운처럼 번뜩이는데
이리저리 무어라고 물을라치면
그 자리서 몸뚱이가 두 동강 나리.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불사(佛事)

최근 축구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사찰에 들렀다가 월드컵 4강을 기원하는 '기와불사'에 동참했다고 해서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지요? 아마도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람을 담았겠지요. 그런데 기와불사가 무엇일까요? 사실 절에 가면 '대웅전불사' '중창불사' '범종불사' '개금불사' 등 불사(佛事)라는 말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원래 불사의 의미는 '부처님의 덕을 널리 펴는 것' 또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와서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령 법당을 새로 짓는다든가, 탑을 세운다든가, 범종을 새로 조성하는 등의 일을 불사라고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불사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사는 어떤 일이든 개인적인 것이 아닌 공적으로 불교를 위해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일 모두를 불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사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의 모든 재산과 기물들이 공유물로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행복의 조건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8강 육조의 구결 정신, <금강경>과 <육조단경>

혜능의 돈교, "새 술을 헌 부대에"

혜능의 구결이 한편 엉터리이면서 매우 독창적이고, 실참적(實參的)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혜능은 경전의 원래 의미와 문맥을 덮고, 천연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그렇다. 삶과 경험이 목소리를 높일 때, 한때 스승이었던 경전의 낡은 문자는 이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전을 발 아래 두지 못했다면, 아직 경전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스승을 넘지 못한다면 그는 똑똑한 제자라고 할 수 없다.

혜능의 구결 정신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는 곧 <육조단경>의 정신이기도 하다.

혜능과 신수

신수의 점교는 계율과 선정의 작법(作法)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 권한다. 이는 <법구경(法句經)>의 가르침, 즉 "여러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뭇 착한 일을 해 나가라.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라앉힐지니, 이것이 여러 부처의 가르침이니라(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是諸佛敎)"와 같은 정신을 표명하고 있다. 신수는 이 길을 철저히 밀고나가 신비한 위광을 얻고, 이윽고 측천무후의 심복과 귀의를 얻기까지 했다.

혜능의 돈교는 그러나 좀 달리 말한다. 그는 마음은 본시 자유로운 것이라 안에도 밖에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가 처음 저자거리에서 들은 <금강경>의 권고처럼, 비밀은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는데(應無所住而生其心)"에 있었다.

그러자면 마음속의 불순물과 고착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여기 범부의 습기뿐만 아니라 법을 성취하려는 수행자의 욕심까지 걷어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불교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과 대면하도록 가르칠 뿐이다. 백척간두(百尺竿頭), 법을 위시하여 일체의 기대를 버릴 때, 그 진일보(進一步) 앞에 천신이 하늘수레를 대령할 것이다.

그래서 혜능은 불교의 전 경전을 "자신과 대면하라"는 한 구절로 집약시켰다.

<육조단경>의 정신, "너는 이미 부처다"

혜능의 돈교는 그동안의 불교를 근본적이고 파괴적이며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핵심은 부처를 자신의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발견한데 있다! "너 자신이 곧 부처이다(心卽是佛)!"

그동안의 불교는 저쪽 언덕에 거룩한 부처들이 있고, 이편 언덕에서 한심한 내가 그분들을 경배하고, 그분들을 닮기 위해 길고 고된 수련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육조의 선은 이 점교(漸敎)의 발상을 일거에 쓸어버렸다.

"다시 기억해라. 네가 곧 부처이다. 너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의 혀에 속지 마라."

이 돈교(頓敎)의 선언으로 하여 그동안 불교를 구성하고 있던 수많은 코드들이 혹은 버려지고, 혹은 전혀 다른 얼굴로 재편되었다. 그 자신불(自身佛)의 혁명이 <육조단경>이다. 그 메시지, 혹은 강령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팔만대장경의 가르침들이 더 이상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없었다. 깨달음의 비밀은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것은 경전의 문자를 통한 지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즉 '정보에 의지하지 않는, 경전 밖의 진실!' 이 선의 표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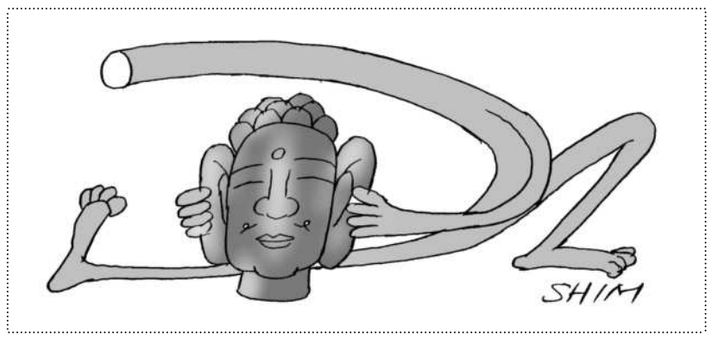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조화

전통적 경전과 수행법들을 버렸으니, 선은 새로운 독자적 방법을 개발해야 했다. 그것이 선의 얼굴과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었다.

육조 혜능은 그러나, 전통 전체를 내버리기보다, 그 오래된 부대에 단순화 직절화의 새 술을 담는 쪽을 방법을 택했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것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조화시키려는 전략의 결과이다. 너무 파격적이었다면 준비 안 된 청중들은 등을 돌렸을 것이다. 이 전통 존중적(?) 태도는 나중 선의 파격과 파천황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온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전통적 불교의 교학과 수련법들을 '마음의 즉각적 파지' 하나로 귀착시켰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2) 팔만대장경은 결국 내 마음 속의 부처를 깨닫게 하는 보조 장치이므로, 굳이 버릴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문자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핵심적 취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평생 <법화경>을 읽어왔다는 어느 학승을 향해, "그 근본 취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굴림 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그 취지를 장악하는 것이 소승과 대승을 가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3) 소승과 대승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혜능은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한다. 혜능의 새로운 교판(敎判)에 따르면, "소승은 아직 문자의 숲에서 헤매는 사람이고, 중승(中乘)은 문자의 취지를 대강 캐치한 사람, 그리고 대승은 바로 그 자각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럼 최상승은…그는 바로 그런 노력조차 필요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마음 하나 가다듬는 것으로 끝

4) 불교적 수련법에 대해서도 혜능의 생각은 파격적이다. 그는 "마음은 거울이 아니므로, 어디 손댈 데가 없고, 손을 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삼학(三學)이라 하여 주어진 계율을 지키고, 특정한 명상에 몰입하며, 불교식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삼학 또한 "마음에 아무런 내적 외적 갈등이 없는 것, 자신의 불성이 아무런 장애 없이 스스로의 빛과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파격적으로 재 정위한다.

앞의 <금강경> 4장 구결에서 보았듯이, 보시(布施)조차, 남을 향한 베풂이 아니라, 제 마음 속의 먹구름을 흩어내는(普散) '자기 정화'로 읽는 것을 보라.

특히 <육조단경>은 기존 불교에 대한 '파격적 재 정위'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그는 좌선이라는 전통적 수행법도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에 빠져드는 특정한 작법(作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무런 외적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본래의 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각성의 길"이라고 돈교적으로 변용해서 해석해 나간다.

그는,

5) 이 마음의 자기 각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믿는다. 그밖에 다른 어떤 외적인 장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불교가 오랫동안 그린 꿈인 서방의 정토나 극락도 실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각성이 주는 안락함으로 해석했다. "

서방 정토는 없다. 그것은 지금 여기, 당신들의 마음 안에 있다." 놀라는 무리들에게 그는 "어디, 한번 보여주랴"라고 농을 할 정도이다.

이 혁명으로 하여 불교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7세기 선의 태동이 없었다면, 불교는 교학의 형식과 승려들의 권위에 눌려, 삶과 절연되고 대중들과 유리되면서 서서히 자신의 생명을 꺼트려나갔을 것이다. 틀림없다. 자연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들을 멸종시키고, 새 생명들을 잉태시킴으로써 자신의 생명력을 일신해 왔으니. 어디 자연만인가, 문명이 그렇고, 불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고, 지식 또한 그렇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절이 있어 행복하여라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징검다리 '절'의 미학


산과 절이 이룬 최고의 조화를 보여준다는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

"절로 가는 길은 곧 산으로 가는 길이고, 산으로 가는 길은 또한 절로 가는 길이다. 산과 절은 구름과 비의 관계처럼 서로를 내포한다. 마치 바위나 구름처럼 산의 일부로 존재하는 절은 그곳으로 발길을 한 사람들이 절로 자연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가장 자연화된 인간의 거처, 절은 그런 곳이다. 절은 지음(知音)이다. 산에 절이 있어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내밀한 풍광 속으로 들어설 수 있다."

<자연과 사람사이 절>을 펴낸 윤제학(동화작가, 前 본지 취재부장)씨는 절집을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말한다. 절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 있으며, 사이는 '관계'이며 '거리'라는 것이다.

그는 "그곳엔 결코 사람들의 쓸모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 소나무가, 그것도 휘어진 소나무가 기둥이나 대들보가 되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또 그곳엔 헛된 것들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산다"고 단정한다.

저자는 이런 절의 대표적인 곳으로 연꽃봉우리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를 꼽는다. 그는 언제 가봐도 산과 절이 이룬 최고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자연과 사람사이 절
윤제학 지음
명상 | 1만3500원

"산과 짝하여 어울리지 않는 절이 있겠습니까만, 청량산과 청량사의 관계는 '이것과 저것'의 경계를 지우며 온전히 한몸을 이룹니다. 청량사는 가파른 산 기슭에 깃든 작은 절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쇠락의 경과만은 아닙니다. 산세로 미루어 볼 때 흥성했던 시절에도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일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산 자체를 깨달음의 집으로 삼고 봉우리들을 부처와 보살의 현신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그의 시각은 정겹다. 절에 있는 산신각을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 산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우리네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보였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그에게 절은 부처와 같은 말인 자연의 품과 같다.

그는 독자들에게 절에 갈 때 그냥 보고 느꼈으면 한다고 말한다.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옳다면 '보는 만큼 안다'는 말도 그만큼 일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가 책의 서두에 어떤 이유로 절을 찾든, 절집에 머무는 동안 만큼은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통 절의 존재의미를 새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신앙의 공간으로 어떤이는 문화재로서, 어떤이는 휴식처로, 어떤이는 구경거리로 받아들인다.

저자는 책에서 계속 절에 대한 환상깨기에 주력한다. 절은 무조건 평화롭고 신선들이나 사는 이상향 같은 곳이라는 환상을 가지지 말아 달라는. '행여 있을지 모를 독자의 오해를 깨기 위함'이라고 사족을 덧붙이고 있지만 그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절은 분명 사람이 사는 곳이며, 또 다른말로 세밀하게 얘기하면 가장 자연화된 거처라는 것이다. 절과 자연과 사람의 이상적인 어우러짐을 중점적으로 본 것은 그것이 궁극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그가 얘기하는 절은 열린공간으로 귀결된다. 무당도 오고 타종교인도 올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가급적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개념을 설명해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독자들 스스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기 위해 절의 자연주의 미학에 대한 발견을 시도하며, 풍부한 사진을 곁들이면서도 현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흑백위주로 사용했다.

이 책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절에 담긴 자연주위 미학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찰의 역사와 인물, 관련된 불교교리가 글 속에 녹아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자연을 닮은 집으로 장곡사 고운사 미황사 백양사 부석사, 자연이 담긴 집으로 망해사 향일암 대흥사 신륵사 청량사, 자연을 담을 집으로 운주사 선운사 화암사 무량사 법흥사, 부처와 사람이 만나는 집으로 은해사 봉정사 내소사 법화사 수종사를 들고 있다.

저자에게 다시 한 번 꼭 가고 싶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충남 부여의 만수산 무량사를 꼽았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을 등지고 출가승이 되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곳, 그리고 김시습의 시비가 있는. 패망한 백제땅의 있는 사찰인 무량사에서 저자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낯선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과 방법



블루오션 전략 교보문고, 르네 마보안 지음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이 무의미한 비경쟁 시장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유혈경쟁의 레드오션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게 한다. 즉, 경쟁자를 벤치마킹하거나 줄어드는 수요를 경쟁업체와 나누는 대신, 수요를 늘리고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이다. 이 책은 기업에게 도전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블루오션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기존 경쟁시장인 레드오션에서 가치혁신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시장인 블루오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기존 시장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전례 없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전쟁이 심화되고, 가격 마진이 축소되어 점차 전인미답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블루오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블루오션 전략은 경쟁사를 이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구매자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공간을 열어 나가자는 것이다. (lee13925, aladdin.co.kr)

환상과 현실 그 너머, 숨겨진 희망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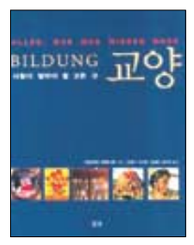
돌뗏목 해냄출판사, 사라마구 지음

사라마구의 상상력은 기발하다. 환상과 현실을 경계없이 넘나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어느 날 땅이 갈라져 반도가 섬이 되어버렸다. 이베리아 반도는 거대한 돌뗏목이 되어 대양 위에 동동 떠다닌다. 다른 섬과 충돌하는 순간, 이 돌뗏목은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이제 이베리아는 텅빈 폐가처럼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밟히고 죽는다. 뿐만이 아니다. 이베리아를 두고 세계의 강대국들은 자기 잇속에 맞게 이러쿵저러쿵 재단질을 한다. 작가는 네 명의 등장인물들의 속내를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한편, 세계 정상국가들의 졸렬한 목소리까지 죄 실어나른다.

그러니 이 상상력을 착하게 졸졸 따라가다 보면, 구린내 나는 곳들을 모두 지나게 된다. 혐오스럽지만 그 안에서 절망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으니 난처하다. 하지만 끝끝내 사라마구의 결론까지 동행하면, 내 안의 절망은 어느새 순진하게도 희망이 되어 있다. 땅에 꽂힌 마른 나무토막이 기적을 일으켜 뿌리를 내리고 녹색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제 곧 꽃이 필 거라는 기대도 당연히 하는 게 좋다. (이림, yahoo.com/ysp/libro)

책속의 밑줄긋기



○… 바그너가 살았던 시기에 확인되는 이러한 숭배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편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예술이 지배할 수 있는 최고봉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예술의 최고봉은 음악이라고 믿었고, 상징주의 시대에도 문학은 마치 음악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 세기 전화기의 미학주의에서도 삶은 예술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이에 상응하여 바그너는 종합예술을 구상하여, 모든 예술을 음악의 지배 아래 두려고 했다. 텍스트와 음악, 그리고 무대장치와 무용안무가 일찍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그의 오페라는 더이상 숫자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막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등장하도록 구성되었다. -<교양 :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448쪽에서, 들녘, 디트리히 슈바니츠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주원료 : 야생 머위 추출 액상과 생메실 추출즙 액상, 곡즙 추출혼합물
폴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증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음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계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원두막 겸 방가로 7000×4000×3200[mm]
홍보할인가격 ~~650만원~~ → 550만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원두막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 평상 1500×620×350[mm] 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 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대작한 플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관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hangaro.com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평상.net / 원두막.kr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진품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사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체로 세상을 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의 시송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성철 스님은 정말 현실에 침묵했나?



돈오돈수론으로 본 세계관 · 역사인식 다각도로 분석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성철 스님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민주화 열기로 소용돌이치던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법어는 종교의 현실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선승의 신비감과 대중적인 카리스마의 원천이기도 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가장 압축적으로 경험하던 시기에 살았던 성철 스님(1912~1993 · 사진).

이번에 나온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퇴옹성철의 깨달음과 수행>은 스님의 역사적 맥락에서 현실인식까지 소상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책이다.

조 교수는 이 책에서 "성철 스님은 몰역사적인 선승이 아니었다"고 강변한다. 스스로 산승(山僧)이기를 자처하며 현실사회와 정치에 침묵하여 철저히 은둔한 듯 보였지만 그의 삶은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국내 모기관이 '해방이후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철 스님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스님이 시기마다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해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만 역사에 무관심한 선승이라는 세인의 평가는 주로 당시 사회적 엘리트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스님의 대응방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한다는 것.

조 교수는 성철 스님의 사회참여 방식이 근대적이고 전통복고적인 개혁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즉 1947년 봉암사 결사에서 1981년 <선문정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책의 구성은 1부 성철의 불교관과 돈오돈수론과 관련 '퇴옹성철의 불교해석학과 선불교윤리(박진영)' '성철 돈오돈수론의 불이법적 세계관(윤원철)' '성철 초기불교 이해(김종명)' '퇴옹의 간화선(김영욱)' '성철의 법맥론에 대한 검토(박해당)' 등의 논문이 소개된다.

2부 성철의 현실인식과 불교실천에서는 '간디와 성철(허우성)' '이성철의 불교개혁론(김광식)' '성철의 중도관과 실천방향(김경집)' ' '합리성과 엄격성으로 바라본 성철사상(이병욱)' '한국불교 현실에 대한 성철의 대응과 돈오돈수(김종인)' 등의 논문과 논평이 실려있다.



퇴옹성철의 깨달음과 수행
조성택 엮음 | 예문서원 | 2만3000원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150만 사경인 위한 개론서



한국의 사경
김경호 지음
한국사경연구회
2만원

현재 1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경인들을 위한 사경 개론서 <韓國의 寫經(한국의 사경)>이 발간됐다.

본래 사경은 불교경전을 옮겨쓰는 행위를 말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면 '사경을 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이라도 즉시 소멸되고 이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과 고뇌 그리고 아주 작은 악업까지 다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선지 우리나라에서 사경은 불교 전래와 더불어 1700여년의 장구한 세월을 이어왔다. 당시 인쇄불이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경은 경전유포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경에 대해 그동안 종류와 형식 내용에 대해 분류하고 고찰한 서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경수행 30년의 한국사경연구회 외길 김경호 회장이 사경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범위, 체제, 양식 변천의 원인인 각 부분의 상징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한 개론서의 발간은 의미가 크다. 김 회장은 35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사경수행을 하며 전통사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체재와 양식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사경의 역사와 통일신라의 사경신앙에 대해 조망하면서 신라말 금자 대장경을 사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더욱 발전하여 중국을 월등히 능가하는 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회장은 "우리 조상들이 세계최초로 인쇄술을 개발하게 된 연원은 사경에 있다"며 "이렇게 이루어진 전통사경은 세계속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자 민족정신의 위대한 승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세계 책의 날' 행사 다채



4월 23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 7회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부산 영광도서등 전국 18개 중대형 서점들은 24일 서점을 찾는 사람들에게 책 한 권과 장미 한 송이씩을 무료로 나눠준다. 참여 서점은 교보문고(광화문점 대구점 인천점) 영풍문고(서울 종로점) 서울문고(서울 강남점) 씨티문고(강남점) 서현문고(분당) 동보서적 남포문고(이상 부산), 리브로(수원) 북하우스(파주), 태영문고(고양) 계룡문고(대전), 홍지서림(전북 전주), 학문당(마산), 삼복서점(광주), 북하우스(진주)이다.

출판도시문화재단과 아름다운가게는 파주출판단지 헌책방 보물섬 일원에서 '책 벼룩시장-책장의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행사를 연다. '책 벼룩시장' 헌책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031)955-007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책 읽는 사람들과 책이 있는 풍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 백수향 씨의 사진전을 인사동 갤러리 북스(VOOK'S)에서 12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한편 (사)한국출판인회의는 '세계 책의 날' 기념 포스터(사진)를 제작, 12일부터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 주요 서점,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중이다. (02) 3142-2333

새로 나온 책



■ **큰스님 큰 가르침**(윤청광 지음, 문예출판사)= 이 책은 방송작가인 윤청광씨가 법보신문에 '큰스승 큰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경허 만공 효봉 경봉 청담 성철 스님등 열아홉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고승들은 어떻게 출가하여 수행하고 도를 깨달았는지, 생활속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는지 보여준다.

생활 속에서 쌀 한톨도 무섭게 알고 아끼며 도를 수행할 때는 매섭고 자신에게 엄격하기 그지없는 큰스님의 모습등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준다.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이름만 알고 있던 큰 스님의 업적과 인격을 느껴볼 수 있다.



■ **불교의 여성관**(서영애 지음, 불교시대사)=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주체적인 의지와 오력을 가지고 바라문교 문화와 여성차별의 문제에 대처했다.

오늘의 불교인들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여성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그와같은 마음가짐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신념이다.

이 책은 불교는 과연 여성차별문제에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일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경전을 통하여 과연 어떤 여성관이 불교의 기본적 인간관 또는 여성관인가를 살펴본다.

"보시를 흔히 베푸는 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나누는 일입니다. 본래 자기 것이 있어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때 맡아 가지고 있는 법계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젊은 시절 강남대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나 출가한 스님.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동국대에서 국악을 공부한 스님. 현재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탄탄 스님(용인 대덕사 주지). 스님은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미국 워싱턴과 안양 반야사, 안양불교문화원장등의 활동을 통해 늘 포교현장에 서 있었던 탄탄 스님이 법회에서 설법했던 내용을 모아 산문집을 펴냈다. <이름 지을 수 없는 삶>은 산문집이라고 하지만 설법집이나 법어집에 가깝다.



이름 지을 수 없는 삶
탄탄 스님 지음
운주사
1만원

책에는 포교현장에서 열정적이고 걸림없으면서도 수행자의 엄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스님의 삶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스님은 "수행이란 산속이나 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고요한 곳에서 가라앉힌 마음은 다시 세간으로 되돌아와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참된 수행은 생활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스님의 이야기는 포교일선에서 부대끼며 원력을 실현해가는 젊은 수행자의 풋풋함과 투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점이 있다.

스님은 말한다. "사랑에 메이지 않고 미워하되 미움에 묶이지 않으면 내 마음과 삶이 어디에 묶여서 부자유스럽고 불안하겠으며, 애증의 물굽이가 잠잠해지면 파도는 어디에 있겠느냐"고.

책의 내용은 1장 '불자로 산다는 것'편에서는 '자비무적' '화혼한 부부에게' 등 신행이나 불자로서의 삶에 관련된 산문 형식의 글들이 실려있다. 2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믿음의 기쁨으로'는 '불교의 효도관' '삼법인' 등 교리적인 내용들을 현실성을 담아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 닷이다** 시공사, 지수 스님, 9500원
-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열림원, 정찬주, 9800원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00가지** 민족사, 석성우외, 6000원
- **산사에서 만든 차** 정리출판사, 이정애, 3만3000원
- **생활속의 예불문** 효림, 김현준, 6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부다가야가 드리는 "가슴에 새겨지는 깊고 그윽한 향기" ①

남 잘되게 하기

오 심 스님의 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 모음집



"마음은 마음을 알지 못하니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상이 일어나면 치痴요,
마음에 상이 없으면 곧 열반이다.
공을 알고 보면
모든 것에 하찮은 상념이 없는 것이다.
거울을 삼기름으로 닦으면
저절로 영상이 보인다.
그 영상이 거울 속에서 나오느냐? 아니다.
그것이 밖에서부터 거울 속으로 나오느냐? 아니다.
기름으로 맑게 닦으므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망상이 있기 때문이니
그 마음이 치심이다.
망상이 없으면 곧 열반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오직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남 잘되게 하기 (오심스님 지음, 신국판, 값9,000원)
부산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의 생활법문을 모아, 메말라가는 현실에 한 가닥 실낱같은 희망과 올바른 생활을 향한 지혜를 안겨준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 즉 이타행利他行을 향한 진리의 메시지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놈’ 때문에…”

10년만에 소설 <연적> 발표한 문형렬 작가



“10년 동안 다시는 소설을 쓰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내 가슴에 들어앉은 그 놈 때문에 글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산고 끝에 출산한 작품 <연적>을 들고 소설가 문형렬씨가 10년 만에 독자들을 찾아왔다.

“내 작품에 내가 의도하는 복선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주인공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요. 주인공이 웅크리고 있으면 저도 하릴없이 기다립니다.”

글을 쓸 때 캐릭터를 중시한다는 문 작가는 어느 순간 가슴 속에 똬리를 틀고 들어앉은 주인공이 활개를 펼 때까지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작업만 한다고 밝힌다. “내가 없어져도 내가 만든 주인공들은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란다”고 할 만큼 문 작가가 주인공에게 가지는 애착은 크다.

“이번 소설은 구운몽에서 주인공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오는 모티브만 따왔다”는 문 작가는 “인간세상으로 쫓겨나기 싫어서 도망 다니고 뇌물을 쓰고 8도사와 싸우는 등 비열하기까지 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간 내면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소설의 속살을 들춰 보였다.

동학혁명의 한 가운데로 아기의 모습도 아닌 20살 성인의 모습으로 벌거숭이가 되어 떨어지는 성진은 인간세상에서 양소유 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 천상의 일을 그대로 기억한 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한복판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 하늘을 원망하는 주인공.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재 세상의 축소판이다.

소설 <연적>은 동학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죽어간 30만, 아니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에 달한다는 이름모를 민초들을 위한 진혼곡이기도 하다. “정면으로 위로하기보다 정반대로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럽게 접근해 위로하고 싶었다”는 것이 문 작가의 고백이다.

<연적>에는 역사적 인물들도 나온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비롯해 대원군 등이 이야기의 커다란 걸개를 구성한다면 주인공 성진 · 양소유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야비하고 비열한 인물상을 겉으로 드러내 근본적인 완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이번 작품은 2004년 2월부터 쓰기 시작했다. 구상은 소설을 절필했던 10여 년간 꾸준히 계속해 왔다. 작업에 몰두하고자 중국 북경에서 2달간 머물기도 했다. “단 한 줄도 못 썼어요. 매일 하루 2시간씩 중국어 배우고 하루 종일 중국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역시 작가는 모국어 문화권에서 모국어로 말하고 모국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연적>을 쓰는 동안 10kg이 넘게 빠졌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물만 먹게 된다는 문 작가는 물로 연명하며 글을 써내려갔다.

“문학 · 예술 · 수행 ·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궁극의 문제는 깨달음이요, 자기완성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형식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가. 여기에 존재하며 동시에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 완성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내면의 모습과 사랑 그리고 완성을 다룬 소설 <연적>에 대해 “가장 불교적인 내 생각을 담은 작품으로 사랑 그 자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한 문 작가는 198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해 신춘문예 4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시 소설 등을 넘나드는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부처님 다룬 초대형 뮤지컬 만들 것”

interview

작곡 40년 헌정공연 가진 김희갑 선생



40년간 작품 수 정확히 모를 정도
내면에 항상 불교 심성 간직
인드라 스님 음반 작업 중

작곡 인생 40년을 맞아 4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헌정공연을 가진 작곡가 김희갑, 작사가 양인자 부부를 만났다.

‘타타타’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사랑의 미로’ 등 주옥같은 대중가요, 영화음악, 뮤지컬 명성황후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히트작을 양산한 김희갑 양인자 부부는 “신행생활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에 불교적 심성이 맞닿아 있다”는 말을 한다.

작업한 음악이 얼마냐는 물음에 김희갑 선생이 “한 3000여곡 된다”고 말하자 양인자 선생이 “20년 전부터 3000곡”이라며 웃는다. 그 통계도 KBS 음반실에서 내준 대략적인 통계라 전체 작품수가 얼마인지 모른단다. 양인자 선생에게도 물었다. “200곡정도”라는 선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희갑 선생이 “여기는 15년 전부터 200곡인데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작업한 노래만도 100곡이니까 아마 500곡은 될 것”이라고 정정해준다.

음악과 함께 여서 더욱 생생함과 다정함을 드러내는 이 음악가 부부는 현재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는 인드라 스님의 음반을 작업하고 있다.

5월 말경 발표할 음반에는 ‘정구업진언’ 등 불교색이 진한 노래 외에도 ‘무명’ ‘사막의 전갈’ 등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얘기를, ‘응원가’는 산스크리트어 ‘가떼 가떼 파라가떼’(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구호 삼아 외치도록 흥겹게 만들었다.

6개월간 인드라 스님을 위해 9곡을 작업한 김희갑 양인자 선생은 “인드라 스님의 노래 분석능력과 습득력이 놀라울 정도여서 작업이 빨리 진행됐다”고 말한다.

보통 이들이 한 가수의 작업을 시작하면 1년 정도에 걸쳐 진행한다. 노래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가수의 가슴 속에 들어가 녹아날 정도로 연습을 시키고 몰입시킨다.

“이번 헌정 무대에서 스님이 ‘무명’을 노래하는데 관세음보살이 화현한 것 같이 아름다워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 스님의 데뷔음반이 마무리되면 바로 가수 마야랑 작업할 예정인 김희갑 양인자 부부는 마야를 위해 강렬한 카리스마와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연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3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공연하듯 앞으로 붓다를 주인공으로 한 초대형 뮤지컬을 작업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심성의 근저를 깨우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뮤지컬로 만들어 100년 200년 후에도 공연되는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요.” 강지연 기자

연극 ‘지대방’ 출연진 조계사서 삭발
원담 스님 희곡 … 5월 12일부터 공연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희곡을 쓴 연극 ‘지대방’(연출 강영걸)에 출연할 배우들이 4월 13일 오후 조계사에서 삭발식(사진)을 했다. ‘지대방’은 사찰 지대방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엮은 연극.

이날 삭발식에서는 스님역을 맡은 명로진(혜산 스님 役), 배수백(돈조 스님 役), 이태환(우지 스님 役)씨 등 배우 3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주지 도문, 교무국장 석연, 재무국장 원경 스님의 집전으로 머리를 깎았다. 허운 스님 역할을 맡은 배우 정진씨와 오영수씨는 미리 삭발해 이날 삭발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1996년 10 · 27 법난을 주제로 한 연극 ‘뜰 앞의 잣나무’로 이미 작가 ‘데뷔’를 했던 원담 스님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유쾌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극 ‘지대방’은 5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종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에서 공연될 예정이다.(02) 3443-1010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

한국불교는 念佛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대중화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중흥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시민이 필요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 성지대회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나무아미타불! 탑돌이 합시다!!!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보성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를 순례하였고 올해 2006년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에서 9차년도 염불성지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시없는, 금생에 한번뿐인 이번 행사에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경주 불국사 전경

◆ 일 시 : 2006년 7월 30일 ~ 8월 1일(2박 3일)
◆ 장 소 : 경주불국사, 석굴암
◆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 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 동 참 비 : 개인직접불국사로 오실 분 8만원 ·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분 11만원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문 의 : 02)732-1215~17 / FAX 732-1207

※평소 염불수행을 원하는 신규회원 - 가입안내:가입비 3만원(염불수첩제공)
◎ 세계문화유산인 관계로 포시즌 호텔에서 숙식합니다.
◎ 차량과 숙식관계로 5월 31까지 1차 마감함.
◎ 전국염불만일회 불국사 성지대회에 동참하실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일평생 염불수행 일상이 삼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설산 스님 (염불만일회 법주)



설산 스님은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4시, 오후 6시 두차례 지극정성으로 염불 수행을 한다.



설산 스님이 늘 돌리고 있는 천알 염주.



차를 마실때도 설산 스님은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염불을 놓지 않는다.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오른쪽)과의 차담 모습.

1만일 염불 서원…27년만에 회향
하루 두번 1천번씩 "관세음보살"
틈틈이 만해 스님 자료도 정리

며칠전 내린 봄비로 개나리와 철쭉이 삼각산에 가득했다. 삼각산의 봄 내음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게 하는 것 같았다. 초행이라 도량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 평창동 마을 어귀를 지나는 순간 정토사라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조그마한 마을길을 따라 삼각산 중턱으로 올라서자 불사가 한창인 정토사가 반겼다.

前 태안사 조실 청화 스님과 함께 염불 수행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설산(雪山) 스님. 선지식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서일까, 불사가 한창인 도심사찰 정토사를 보는 순간 다소 낯선 느낌이 들었다.

공사 자재를 피해 겨우 법당으로 올라가 삼배를 하고 스님이 기거하시는 아래층 요사채로 들어가자 설산 스님은 문 앞 소파에 앉아 반갑게 맞아 주었다.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얼굴은 마치 어린 아이 같이 해맑았다.

삼배를 마치고 큰스님에게 법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왔다고 여쭙자 "법문이 뭐 별건가, 얼굴 한번 보고 가면 되지" 하며 연신 웃으신다.

스님의 뵙자마자 어떻게 평생을 염불만 하고 살아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마음 한켠에서 불쑥 솟아났다. 먼저 스님께 어떻게 염불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물었다.

"15세 나이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는데 당시 건봉사에는 강원과 염불방, 참선방이 다 있었어요. 강원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는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염불방에 가보니 10여명의 스님들이 염불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그 염불 소리를 좇아 가는거야. 그래서 염불로 불법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염불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벌써 한평생이 되었네요."

설산 스님은 건봉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참선 수행을 시작해 10하안거를 성만했다. 한국전쟁으로 건봉사가 폐사되자 이곳 삼각산 자락에 정토사를 세우고 염불 수행에 매진해왔다.

1974년, 1만일 염불 수행의 서원을 세운 스님은 매일 일념으로 염불을 해 오셨다. 27년동안 한번도 거름없이 염불을 해 만일을 회향하고 나서, 2001년 10월 건봉사에서 다시 만일 염불 정진에 돌입했다.

설산 스님의 하루는 여느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시작된다. 그러나 사중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워낙 고령이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데다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이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요사에 머무르시라는 간곡한 청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스님은 예불 시간에 요사에서 염불 수행을 하신다.

설산 스님이 방으로 들어가자고 해 처소로 자리를 옮겼다.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자는 당황스러웠다. 방은 한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벽에 걸린 관세음보살도와 서가, 조그마한 간이 책상, 바구니 안에 놓인 천알 염주와 거북이 목각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새벽 4시~5시, 저녁 6시~7시 매일 두차례 지극정성으로 염불 수행을 한다. 수행 방법도 특이하다. 정좌를 한 다음 간이 책상위 거북이 목각과 천알 염주를 가지런히 놓고 염주를 한알 한알 돌리며 입과 마음으로 칭명 염불을 한다. 천번을 다 돌리면 염주와 거북이를 정리한 다음 다시 반복한다.

하루에 두 번 염불을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중생심이다. 스님은 밥 먹을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놓는 법이 없다. 말하자면 하루 종일 염불을 하는 것이다.

저녁 6시 아미타부처님에게 염불을 한다는 것을 고한 이후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염주를 돌리는 스님의 모습에서 웬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다.

염불 수행을 하는 틈틈이 설산 스님은 만해 스님의 자료를 정리한다. 고성 건봉사에서 만해 스님으로부터 직접 경전을 배웠고 누구보다도 만해 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다. 그래서 이생을 마감하기 전에 만해 스님의 자료를 모아 책으로 만들어 스님으로서의 만해 스님을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다. 스님은 만해 스님에게 보내는 존경의 염이 넘쳐흘러 그동안 '산거' 등 여러편의 시를 지었다.

설산 스님은 왼쪽 발가락이 하나 밖에 없다. 일제 강점기에 학도병으로 끌려 갈수 없다는 항거의 표시로 스스로 네 발가락을 잘랐기 때문이다. 60여년을 절뚝이며 살아왔지만 스님은 만해 스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음을 지어보이신다.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스님의 성치 않은 다리에서 민족의 비애를 느낄 수 있었다.

책꽂이 앞에서 만해 스님 자료를 정리하다가 스님은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는 제목을 책을 기자에게 내밀었다. 청담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편찬한 책이다.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불교 정화운동에 동참하는 등 굴곡의 한국 불교와 함께 해 왔다. 특히 청담 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재임할 당시 스님의 수법제자가 되어 종단화합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지금은 고령에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지팡이와 벽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동이 불편한 스님. 그러나 아직까지 염불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며 웃음을 지어보이시는 모습에서 정토에 활짝 핀 연꽃이 연상되었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禪敎에 두루밝은 선지식 설산 스님은

1919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설산 스님은 15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건봉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건봉사 공비생(公費生)'으로 선발되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

청담 스님의 수법제자로 종회의원, 건봉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실달학원 원장을 맡아 후학지도와 수행교화에 헌신해 왔다.

현재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고 계시며 저서로는 회고록 <뚜껑없는 조선 역사책>과 사찰 안내서 <명찰 고찰 따라> 등 다수가 있다.

설산 스님은 경율론 삼장은 물론 선지에도 밝고 실천하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토사 주지 응찬 스님은 "큰스님을 보면 부처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평생을 한결같이 염불 수행을 해 오신 스님의 실천행이 우리같은 후학들에게는 사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 4회 가침박달 꽃 축제

화장사 경내에 자생하는 가침박달꽃은 부처님께서 오신 오월에 만개하여 순백의 단아함이 마치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 합니다. 가침박달나무 숲은 충북고시 제32호로 지정된 천연보호림이며 또한 이 나무들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꽃을 보고 있노라면 깨침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만 같은 향내에 '깨침꽃'이 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만 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이 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가시길 바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초대하오니 여러 분들이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대기간 : 2006년 4월 29일 - 5월 5일(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 주요행사
▷ 4월 29일(토) 오후 3시 - 4시 30분
HCN 공개방송 특집 열전최고스타 '제4회 가침박달가요제'
초대가수 - 송대관, LPG등
▷ 5월 1일(월) 오전 11시 - 오후 4시
꽃과 차와 전국다인의 아름다운 인연
▷ 5월 2일(화) 오전 11시 - 오후 2시
어르신, 환경미화원과 함께하는 위안잔치
▷ 5월 5일(금) 오전 10시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29-4 전화 043)255-5758 www.hwajang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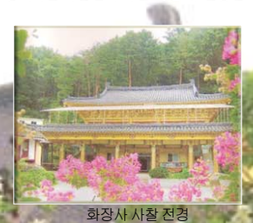
茶 · 禪 · 食 박물관 건립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세요

우리는 21세기의 현 시대를 웰빙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걸 맞는 다선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몇 해 전부터 고민을 해오다 화장사 의 경제 힘만으로는 미약하여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립으로 추진한 지난해 12월 박물관 건립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지역여론을 모은 결과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선식박물관건립의 요지로서 교통과 환경여건이 잘 갖추어져 이 곳의 부지가 최적이라는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사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수목인 가침박달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또한 사찰 주위에는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코스이기도 합니다. 다선식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지역사회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교육할 수 있는 생활박물관의 장을 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급격하게 다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그 조급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다선식의 생활교육입니다. 함께하는 박물관이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선식 박물관 추진내용

◆ 시 설
◦ 유물전시관 : 다구 및 차류 전시실, 선사유품 전시실, 옛 조리도구 전시실
◦ 체 험 관 : 다도 실습실, 시민선방, 사찰음식 실습실
◦ 교 육 관 : 세미나실, 대회의실

◆ 유물 기증 및 후원안내
다선식 박물관을 후원하는 것은 인류의 풍요로운 정신세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유물기증 및 기금후원을 통해 박물관 건립에 동참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유물기증 : 다선식 박물관에 전시할 각종 다구 및 도자기, 선사들의 유품(시 서 화 포함), 취사도구 등을 유상, 무상, 임대등의 형태로 기증을 받으며 무상기증, 무상임대의 경우 기증자의 이름을 동판으로 제작해 명예의 전당에 전시하게 됩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기증 서약 후 박물관 건립 추진경과에 따라 실행에 옮겨 주시면 됩니다.
◦ 기금후원 : 다선식 박물관은 대한불교조계종 화장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각종 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게 됩니다.
건립에 따른 주요 예산을 국 · 도비가 되겠지만 여러분의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질때 그 건립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유물기증 및 기금후원과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화장사 사찰 전경

대한불교조계종 화 장 사 · 다선식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무진 김진영 합장

1초 염불하면 1초가 극락

설산 스님의 가르침

저는 평생 염불 수행을 한 사람이라 법문을 하라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염불 수행을 하라는 법문은 많이 했으니 오늘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因緣)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인연의 참된 뜻을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연은 인(因)과 연(緣)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은 한마디로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과거의 업보에 의해 오늘의 내가 모양 지어졌기 때문이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중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연은 후천적 노력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전화도 하고 맛난 음식을 같이 먹는 등 서로가 노력했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후천적 노력이 없다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 수백겁의 인연이 있고 업식이 쌓여서 금생에 옷깃을 스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불교는 인연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서로 인연이 되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이같은 존재 방식을 연기(緣起) 또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부처님 명호 불러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연기의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회 전생의 연자방아가 도는 것처럼, 생사고해에서 헤매며 하루밤에도 수 천 번 죽고 태어나는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같은 인과응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선방에 앉아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용맹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 염불, 절, 사경 등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염불을 평생 수행으로 살아왔습니다. 염불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사리불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명호를 외우면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聖衆)들이 나타나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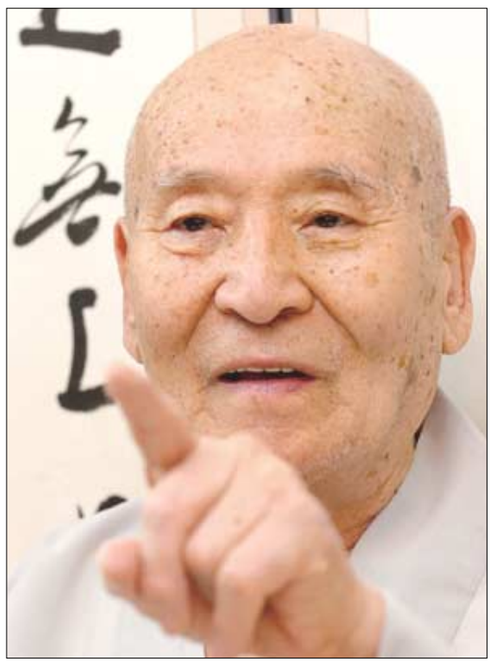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염불의 공덕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염불을 해 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단 1초를 염불하려라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호를 불러 보세요. 그 1초가 바로 극락입니다.

또한 1초가 다시 1초로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염불 삼매의 경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만독, 20만독을 하는 것보다 지성으로 1초를 호명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클 수 있습니다. 염불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며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불 수행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쉽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입니다. 집에서 밥 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도 한마음으로 염불을 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뜨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듯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금강같이 단단해 집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칭명 염불을 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지만 마음속으로 칭명을 하는 것도 염불 수행의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설산 스님은 불자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수행을 하라고 당부한다.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 놓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1만번씩만 해 보십시오.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염불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할 것이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불 공덕도 쌓고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매일매일 살아있는 참된 불자가 될 것입니다.

불자들은 아미타불을 호명하면 극락에 간다고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저도 건봉사 염불방에서 처음으로 염불을 배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인지라 그것이 극락인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관세음보살 염불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다보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바로 연기의 도리를 깨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침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임을 관세음보살이 알려줍니다.

다소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염불 수행한 저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불러보면 관세음보살이 분명 극락세계를 일러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 보세요.

참선을 중요시하는 한국불교의 특성상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이 최상의 수행법이라고 많은 불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불을 기복 신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불 정진은 불자들의 지극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불심을 더 돈독하게 하는 정토 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참선과 같은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번 부처님의 명호를 몸과 마음으로 호명해 보세요.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1>



그 식당 아주머니의 고민

우리 동네 부대찌개 식당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아주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식당을 확장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돈이 좀 벌린다 싶으면 사업장부터 넓히려 든다"면서 작은 식당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분을 제가 신문에 큼직하게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절에 가면 스님들로부터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는 법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치이고 돈 벌기에 급급해서 살다가 마음 한 자락 내려놓고 싶어 찾아간 법회에서 그런 법문을 들으면 세속의 내 삶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절을 나서는 발걸음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다면 지금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욕심이란 말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싶은 것도, 건강하고 싶은 것도, 행복해지고 싶은 것도 욕심일까? 남편과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까?

그런 게 다 욕심이라면 절에 가서 법문 들으며 내 인생을 의미있게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까요? 그럼 스님들이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법문하시는 것도 욕심일까요? 욕심을 버리겠다는 마음도 욕심일까요?

남편과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까?

삶 개선 ·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욕심 아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그 고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제 슬슬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그런데 절에 가면 욕심을 버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충분히 돈을 더 벌고 사업을 더 일으킬 능력이 있는데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일까?'

<중아함경(제법본경)>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욕(欲)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欲)이란 것은 이러저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에게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이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룬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삶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마음,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절대로 버려야 할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이 없는 사람이니 세상을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도 살아갈 방도를 찾으려는 생각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니 부지런히 돈을 모으기만 할 뿐 얻은 재산으로 제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두 눈이 다 있는 사람이니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벌어둔 돈도 잘 관리하면서 두루두루 베푸는 사람입니다.(칠처삼관경)

이것만 보아도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 즉 의욕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따끔하게 지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버려야 할 욕심'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치에 어리석은 이가 품는 욕심입니다. 그 이치는 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인과법인 것이지요. 인과법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도 머리로만 알아서는 남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들을 탐내는 마음이 바로 버려야 할 욕심인 것입니다. 한 아름의 수확을 얻고 싶으면 그 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고작 한 줌의 노력만 기울이고는 한 아름의 수확을 바라는 마음, 자식에게 선업을 짓도록 가르치지 않고 오직 자식이 복 받기 만을 원하는 마음이 버려야 할 욕심입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사업장을 넓히고 싶은 것은 '버려야 할 욕심'이 아닙니다. 그 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식당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사업장을 넓힐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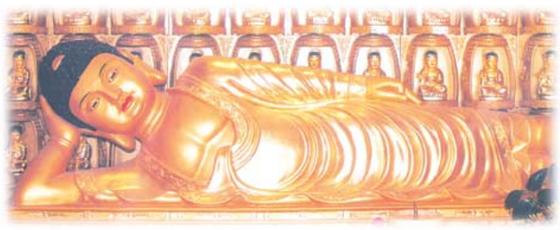
다만 부처님은 이런 점은 꼭 당부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벌어들인 돈은 주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에는 독불장군이란 없다는 점,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내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평생을 쌓아올린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능력 있는 이 내 몸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불려가고 사업을 확장하는 재미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잊지만 않는다면 부처님도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맞이하게 된 식당 아주머니의 사업 확장의 꿈을 위하여.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삼사순례 및 방생. 기도영험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 해 사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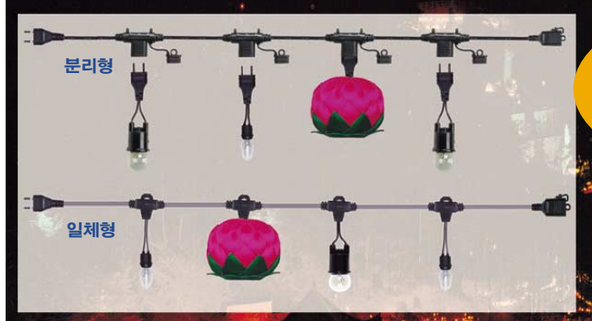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귀먹고, 눈멀고, 다리불구이거나, 곱추거나, 정신이상이거나, 여러가지 신병에 결렸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명호를 듣게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소원을 이루리라는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소원이루시길 바랍니다 .

불사안내
◆와 불 : 1구좌 100만원 ◆몸속부처님원불 : 1000만원 ◆후불탱화 : 300만원(몸속부처님은 옥불로 모심)
◆협사불 : 각 700만원 ◆천 불 : 한부처님 3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견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햇차라도 수확시기 따라 달라

우전 세작 중작…어떤 차 고를까



녹차는 수확 시기와 찻잎의 크기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차 수확 시기와 횟수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수확 횟수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우전? 작설? 세작? 어떤 걸 사야할까?"

첫차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곡우(穀雨, 4월 20일)를 앞두고 햇차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우전'이나 '작설' '세작' 등의 낯선 이름 때문에 구입을 망설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차 구입의 잣대가 되는 녹차의 등급과 분류법을 수확시기와 수확횟수, 찻잎의 모양 등에 따라 알아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차의 경우 대부분이 찻잎의 크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분류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은 곡우 전에 난 찻잎으로 만든 '우전'과 잎의 크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작' '중작' '대작'으로 나누는 것이다.

우전(雨前)은 '곡우 전후에 수확한 잎으로 만든 차'라는 뜻으로, 찻잎의 모양이 참새 혀를 닮았다고 해 '작설(雀舌)'이라고도 불린다. 여린 순과 잎인 일창일기(一槍一旗)로 만든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곡우 전에는 차 생산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곡우 전에 딴 찻잎'이라는 뜻 보다는 '최고급 차'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다.

곡우 전 찻잎 채취는 '우전'
이후를 '세작' '중작' '대작'으로
지역마다 따는 시기 달라
수확 순번따라 분류 주장도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인 조선시대 초의 스님 역시 <동다송>에서 "우리나라의 차는 곡우 전후는 너무 이르고 입하(入夏, 5월 5~6일) 전후가 적당하다"고 했다.

세작(細雀)은 곡우에서 4월 말경, 늦게는 입하까지 생산되는 녹차를 말한다. 차의 순이 자라난 싹이므로 맛과 향이 더 진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은 "우리나라 기후 여건 상 실제 곡우 전에 차를 수확하기는 어렵다"며 "수확시기에 따른 분류 대신 차를 수확하는 순번에 따라 일번차, 이번차, 삼번차 등으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찻잎의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수확한 차와 그 다음에 수확한 차는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찻잎 크기에 따른 분류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박 소장은 "제다회사별로 차의 개성과 품질을 특징짓는 이름을 붙이지만, 차의 객관적인 수준과 수확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일번차' '이번차' 등을 함께 써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하나에 잎이 두 개 붙은 찻잎(일창이기)으로 만들며 감칠맛과 단맛이 강하다.

중작(中雀)은 5월 초순에서 중순사이에 수확한 찻잎으로 만든 차로, 찻잎의 순이 작고 잎이 크며 녹색이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이다. 첫맛은 강하고 뒷맛은 떫은맛을 느낄 수 있다. 차의 색향미(色香味)를 고르게 즐길 수 있는 차로도 꼽힌다.

대작(大雀)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수확한 잎이 크고 두꺼운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한다. 찻잎이 크고 억세 섬유질이 많으며 우려낸 찻물색이 진한 녹색을 띠며 개운한 맛을 낸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차를 수확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우전차'가 생산되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수확시기에 따른 분류 대신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 채엽 횟수에 따른 분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까지 딴 차를 첫물차,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딴 차를 두물차, 8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딴 차를 세물차,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딴 차를 네물차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혜우전통차 제다교육원장 혜우 스님은 "차를 잎의 크기로 분류한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곡우 전에 만든 우전 첫물차, 곡우 이후에 만든 첫물차, 두물차, 여름차, 가을차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한다. 같은 첫물차라고 해도 곡우 전과 후에 나오는 찻잎은 품질에서 차이가 나고, 두물차의 경우 첫물차를 딸 때 솟은 차 눈이 자라난 싹이므로 맛과 향이 더 진하다는 것이다.

신현철 최웅택 도예展 열려

문경과 이천, 여주 등 도자기의 고향에서 '도자축제'가 열리는데 이어 도예가들의 전시도 잇달아 선보인다.

참새다관과 연밥찻상으로 유명한 신현철씨(신현철도예연구소장)는 개인전 '연과 신현철 다구 조형전'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신씨가 지난 20여 년 간 모아온 찻잔과 찻사발, 찻주전자 등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www.shcceramic.co.kr (031)762-2525

대구에서는 도예가 최웅택(웅천요 대표)씨의 '웅천찻사발 초대전'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열린다.

제6회 봉산도예전 특별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400년전 조선 웅천찻사발과 최웅택의 웅천찻사발의 만남전'을 주제로 웅천찻사발 재현작품 50여 점과 창작품 20여 점을 비롯해 진품 웅천찻사발, 400여 년 전 웅천 옛가마에서 만들어진 찻사발 굽 50여 점 등 150여 점이 전시된다.

김해 웅천 지역은 이도(井戶)다완의 제작처로 알려진 곳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조선 웅천찻사발을 재현하려는 도예가들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3)426-1515



신현철씨의 다구 세트.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흥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4. 보이차의 건창과 습창

홍콩, 마카오의 상인들은 보이차 창고를 만들어 해마다 운남에서 들어오는 보이차를 저장·보관했는데, 그 보관방법에 따라 훗날 소위 건창(乾倉), 습창(濕倉)이라는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倉)'이란 저장의 공간을 뜻하며, '습(濕)'과 '건(乾)'의 차이는 저장 공간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 것이다. 즉 30℃ 이상의 실내온도와 80% 이상의 상대습도의 공간을 습창(濕倉)이라 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을 건창(乾倉)이라 한다.

여기에서 '건(乾)'자에 대한 풀이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조(乾燥)' 또 하나는 '건정(乾淨)' 즉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건(乾)' 건조 건정 의미로 자연상태 저장
인위적인 발효 습창차는 위해 물질 많아

보이차의 매력은 생차로 불리는 청병(靑餠)이나 미생물로 통해 만든 숙병(熟餠)이나 모두 묵히는데 그 진가가 있다. 이는 미생물발효를 통해 만든 숙병일지라도 약 20% 정도의 폴리페놀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병이든 숙병이든 자연환경을 통한 긴 시간의 발효(산화)는 보이차 찻잎 속의 내용물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매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에 청병을 자연 환경 아래 저장하여 훗날 발효되어 상품화한 것을 건창차(乾倉茶)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상인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계한 공간에 저장하여 2차적으로 가속발효시켜 상품화한 것을 습창차(濕倉茶)라고 한다.

환경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청병일 경우 4년이면 상품화되어 출고되는 것이 상례다. 저장 과정 중 2단계의 저장 공정을 거치며 4년일 경우 초기는 3년, 후기는 1년이란 공정을 거쳐 상품화한다.

초기의 3년은 생병(청병)을 바람과 빛이 완전하게 차단된 밀폐된 지하 공간에 넣어 저장하는데, 상인들은 이것을 '입창(入倉)'이라고 하며 만약 공간의 습도가 낮을 경우 청병 위에 물을 뿌리고 젖은 마포(麻布) 자루를 덮어 차의 습도를 높이도록 한다. 곰팡이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마다 병차의 자리를 한 번 씩 옮겨 품질을 관리한다. 이를 '번창(翻倉)'이라한다.

이러한 3년간의 관리 공정을 걸쳐 지상으로 옮겨 통풍이 잘되고 일정한 습도(70~80%)가 유지되는 깨끗하고 그늘진 공간 즉 건창(乾倉)이란 자연 환경 아래 1년 동안 저장하여 지하에서 배인 곰팡이냄새를 제거하는 동시에 진일보 산화시킨 후 출하한다. 이러한 자리의 옮김을 가리켜 차상인들은 '퇴창(退倉)'이라고 하며 퇴창의 시간이 길수록 차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습창으로 만든 지하창고에서 저장한 차들은 대부분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상인들은 지상의 빈 공터에 함석으로 지붕을 지은 가건물에 차를 저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 광동지역에서는 방공호를 이용한 저장 공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광동지역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렀던 곳이다. 이에 이 지역 곳곳에 방공호들이 폐광처럼 방치되어있다. 일부 차상인들은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여 차를 저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진일보 발전되어 지상공간을 이용한 공장도 더러 있다. 이러한 설계에 의한 환경 아래 저장된 차는 모두 고온다습의 원리에 따라 인위적으로 발효시킨 것을 가리켜 '습창법'이라고 한다.

자연방법 즉 '건창'으로 통하지 않는 저장방법은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다. 특히 인위적인 고온다습 공간에서 저장한 '습창차'는 우리 몸에 해로운점이 많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보이차다.

■ 한서대학교



건창법으로 저장한 보이차.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 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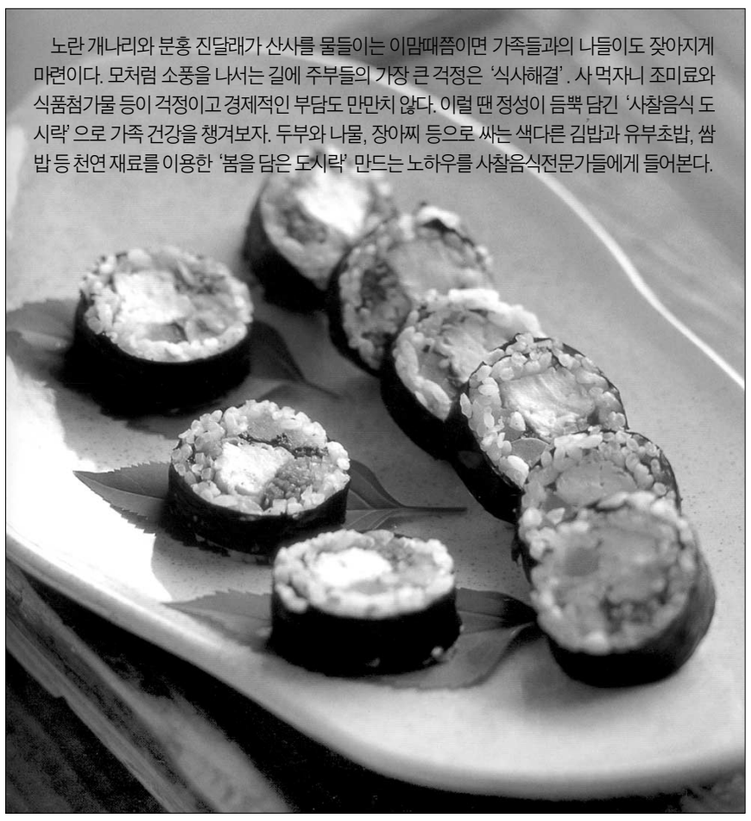
한국산 6년근 인삼 9증 9포한
약 왕 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홍삼엑기스 판매"
"자 죽염 판매"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 약왕사 (왕솔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약왕사)

(주)천성건설
공 사 개 요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석재, 부품 일체
◆ 석, 조각, 석물 일체
◆ 석, 불상, 좌상, 미륵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건설부문
◆ 석굴, 납골당 공사
◆ 석굴, 법당 조성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석 공사 일체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 사 완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 재 갑
(株)天星建設

봄 소풍 갈때 '사찰표 도시락' 어때?

햄·고기 대신 두부·야채 넣은 3색 김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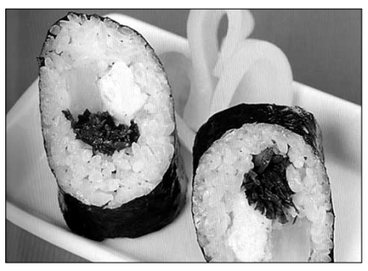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산사를 물들이는 이맘때쯤이면 가족들과의 나들이도 잦아지게 마련이다. 모처럼 소풍을 나서는 길에 주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식사해결'. 사 먹자니 조미료와 식품첨가물 등이 걱정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럴 땐 정성이 듬뿍 담긴 '사찰음식 도시락'으로 가족 건강을 챙겨보자. 두부와 나물, 장아찌 등으로 싸는 색다른 김밥과 유부초밥, 쌈밥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한 '봄을 담은 도시락' 만드는 노하우를 사찰음식전문가들에게 들어본다.



▷ 선재 스님의 두부 김밥

쌀 3컵, 다시마(10㎝) 1장, 김 10장, 두부 2모, 우엉 1/2대, 당근 1/2개, 오이 1개, 시금치 1/2단, 단무지 10줄, 두부 · 우엉 조림장(진간장 4큰술, 물엿 1큰술), 식용유 · 들기름 · 참기름 · 소금 · 통깨 약간씩

1. 두부는 굵고 길게 썰어 소금을 뿌려 물기가 빠지면 170℃ 식용유에서 노릇노릇하게 두 번 튀긴다.
2. 채썬 우엉은 들기름을 두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조림장의 반을 넣고 조린다. 우엉은 건져내고 나머지 조림장을 넣은 후 끓으면 튀긴 두부를 넣어 조린다.
3. 당근, 오이는 가늘게 채썬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센불에서 당근과 오이를 각각 볶다가 마지막으로 소금간한다. 시금치는 다듬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소금, 참기름을 넣어 무친다. 단무지도 가늘게 썬다.
4. 쌀에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밥을 지어 소금, 참기름, 통깨로 간한다.
5. 김 위에 밥을 반쯤 얇게 펴고 그 위에 두부와 갖은 재료를 놓고 김밥을 만다.



▷ 이여영씨의 냉이 김밥

냉이 200g, 찹쌀 1/2컵, 멥쌀 2컵, 다시마물 3컵, 두부 1모, 단무지 100g, 구운소금, 참기름, 김, 녹말가루

1. 솥에 다시마물을 붓고 쌀을 넣어 소금간한 후 밥을 고슬하게 짓는다.
2. 냉이는 끓는 소금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다음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한다.
3. 두부는 마른 면보로 물기를 거둔 다음 소금을 뿌려 녹말가루에 살짝 묻혀 노릇하게 지진다.
4. 단무지와 두부는 얇고 길게 썬다.
5. 발 위에 김을 얹고 밥을 얇게 편 후 냉이, 두부, 단무지를 얹어 김밥을 만다.

▷ 박상혜씨의 장아찌 김밥

밥 4공기, 오이지 1개, 오이 1개, 고추장아찌 8개, 김 8장, 깻잎 16장, 당근 1개,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2큰술, 표고버섯 가루 1/2 작은술, 죽염 · 소금 약간, 맛기름(식용유 2컵, 대파 1뿌리, 양파 1/2개)

1. 갓 지은 밥에 맛기름과 통깨, 죽염, 표고버섯 가루를 섞는다. 맛기름은 분량의 재료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인 후 야채를 건져내고 식혀서 만든다.
2. 깻잎은 씻고 오이는 길이로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다. 오이지와 고추장아찌는 다지고 당근은 채썬다.
3. 오이지와 고추장아찌에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를 넣어 버무린다.
4. 김을 깔고 양념한 밥을 고루 편 후 깻잎을 깔고 재료를 올려 김밥을 만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천연재료 이용한 도시락 김밥 가이드

▷ 유부 채소밥



유부 20개, 유부 조림장(진간장 2큰술, 물엿 1/2큰술), 쌀 2컵, 다시마(10cm) 1장, 표고버섯 5장, 당근 1/2개, 오이 1/2개, 우엉 1/2대, 흑임자 · 소금 · 들기름 · 진간장 · 물엿 약간

1. 유부는 반으로 갈라 속을 벌려 주머니를 만든 다음 끓는 물에 데쳐 헹군다. 냄비에 진간장과 물엿을 넣고 끓이다가 유부를 넣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린다.
2. 표고버섯, 당근, 오이는 각각 다져 소금간해 볶아 식힌다. 우엉은 곱게 다져 들기름에 충분히 볶다가 진간장, 물엿을 넣어 조린다.
3. 밥에 볶은 채소와 흑임자를 넣고 소금으로 간한 후 밥을 쥐어 유부 속에 넣고 모양을 만든다.

▷ 곰취나물 쌈밥



멥쌀 2컵, 다시마물 3컵, 곰취나물 200g, 참깨 2큰술, 참기름 1큰술, 구운소금 1작은술

1. 멥쌀을 씻어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다음 다시마물을 붓고 뜸을 잘들여 고슬하게 밥을 짓는다.
2. 곰취나물을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살짝 데쳐 찬물에 식힌 후 꼭 짜서 물기를 없앤다.
3. 한 김 나간 밥에 소금, 참깨, 참기름을 섞어 한 입 크기로 밥을 뭉친 다음 곰취잎에 하나씩 싼다.
4. 곰취나물 쌈밥에 겨자 초간장을 곁들인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5>

미역주먹밥과 미역자반





저는 학창시절에 불교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이들의 선생님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활발한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초등학생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의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학생법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법회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형과 누나를 따라온 어린 동생들까지 합세해 늘 북적였습니다. 게다가 일요일이면 군인 법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은 초등학생들과 유치부 학생들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신도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일요일은 언제나 풍성한 간식 파티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간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일 맛있었던 것은 미역을 참기름에 달달 볶은 다음 참깨에 버무려 밥과 함께 만들어 주신 '공양주 보살님표 주먹밥'이었습니다. 절에는 생일불공이 많았기에 미역은 정말 많이 들어오는 시주물 중 하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양주 보살님은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경내의 마당에 앉아서, 혹은 군인 아저씨랑 유치부 아이들과 술래잡기하면서 먹어본 그 주먹밥. 새삼 그립습니다.

요즘에야 스님들께서 워낙 세련되셔서 채식 카레라이스나 채식 자장면 등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 옛날 시골에서야 자장이나 카레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나이 드신 공양주 보살님이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던 공양주 보살님의 그 깊은 마음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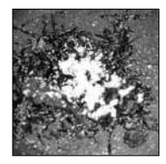
아이들을 위해 따로 간식을 만들어주고 또 일을 하셨어야 할 보살님. 그 보살님이 계셨기에 지금 제가 이런 글도 쓸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 번 그 맛있는 주먹밥을 맛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법



<미역주먹밥> 재료: 마른미역 1줌, 공기밥 2공기, 참기름 2큰술, 참깨 약간, 죽염약간, 표고버섯가루 약간

① 마른 미역을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아서 수분을 날려준다. ② 볶은 미역을 곱게 칼등으로 잘라준다. ③ 밥에 참기름, 참깨, 죽염, 표고버섯가루로 양념한다. ④ 양념한 밥에 다져 놓은 미역을 넣어 한입 크기의 주먹밥으로 만든다.



<미역자반> 재료: 마른미역 1줌, 녹차기름 약간, 통깨 약간, 다진 대파 흰부분 약간, 양념장(참기름, 설탕, 진간장 2큰술)

① 마른 미역을 한입 크기로 자른 뒤 녹차기름에 살짝 볶아준다. ② 양념장을 만든다. ③ 프라이팬에 볶은 미역을 넣고 양념장을 부어 약한 불에서 버무려 준다. ④ 어느 정도 양념장이 베면 통깨와 다진 대파 흰부분을 넣어 마무리 한다.

▶다음 주에는 야콘스파게티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현오스님의 꿈, 미래의 열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 그 꿈의 의미를 알 수는 없을까? 이 책이 명쾌한 답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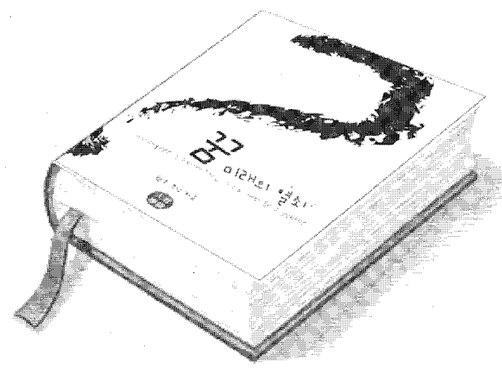
왜 꿈을 그렇게 풀어야 하는가!

각 풀이 마다 왜?를 설명한 책!

당신은 스스로 예언할 수 있다.

우리가 미해결사에 대해 고뇌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면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대처하여 행복을 누릴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무엇인지 모를 어둠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서문 중에서-

사상최초로 꿈꾸는 마음과 상징원리와 해몽의 비밀을 불교의 유식철학 이론으로 완전히 해결하다.



목차

제1부 미래를 여는 창 꿈의 원리

1장. 꿈꾸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
2장. 꿈의 상징원리
3장. 역사와 종교의 꿈
4장. 꿈과 최면술
5장. 마음을 수행한다

제2부 꿈의 상징과 해석

1장. 사람과 직업에 관련된 꿈
2장. 죽음과 시체, 장례와 제사의 상징
3장. 인체의 상징
4장. 배설물과 분비물의 상징
5장. 동물에 관한 상징
6장. 식물, 곡물, 경작의 상징
7장. 광물과 보석의 상징
8장. 색채, 시간과 날짜, 방향의 상징
9장. 돈과 문서 등의 상징
10장. 물, 샘, 호수, 강, 바다의 상징
11장. 불, 빛, 열에 관한 상징
12장. 산과 들, 고향, 도시의 상징
13장. 하늘, 천체, 기상의 상징
14장. 운송수단, 전화, 우편에 관한 상징
15장. 집과 관공서의 상징
16장. 서적, 문자, 도장, 숫자의 상징
17장. 전쟁, 병기, 깃발의 상징
18장. 질병, 의술, 약의 상징
19장. 의복, 치장 등 소지품의 상징
20장. 가구, 집기, 사무용품 등의 상징
21장. 음식과 음식 재료의 상징
22장. 운동, 오락, 예술의 상징
23장. 희노애락 등 감정의 상징
24장. 행동의 꿈 상징

< 꿈꾸는 마음과 상징해석 강의 >

대지 불교심리학 연구소 소장 현오스님이 직접 꿈꾸는 마음과 상징해석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상식반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사-3시 30분
	교재비	13회 21만원 교재포함
연구반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사-3시 30분
	교재비	13회 11만원 교재포함
문의처	02) 576-1462	
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3호선 매봉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근간- 꿈과 마음의 비밀(유식철학으로 밝힌다) >

현대 심리학을 전공한 류정수 선생과 현오스님의 공저로 불교의 유식철학과 서양심리학 이론으로 꿈과 마음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낸 꿈이론의 완결판!

신국판/ 519쪽/ 고급양장
값 20,000원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행사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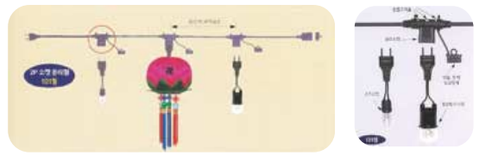

※장식용 수술은 별도



공단등 28Cm(大) /24cm(中) /18cm(小)
색상 : 황금,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1Box20개입/8cm:1Box16개입/10.5cm:1Box12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사찰용 연등전선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월등 32cm ×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 (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고급본염인쇄





비단팔모접등 28cm × 24cm 색상 : 분홍,노랑,초록,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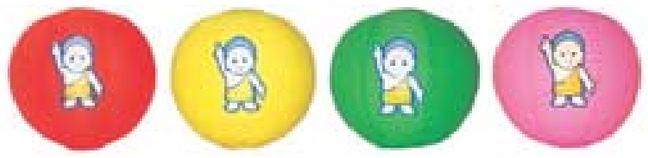
※ 주문제작가능
팔각조립등 26cm × 28cm 색상 : 분홍,파랑



중등 40cm × 27cm
색상 : 노랑,연두,분홍,빨강,파랑



황금연등
재질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6인치(폭 19.5cm × 높이13.5cm)
8인치(폭 23cm × 높이18.5cm)
10.5인치(폭 28cm × 높이21.5cm)
13인치(폭 34cm × 높이30cm)
20인치(폭 48.5cm × 높이40cm)
※ 장식용 수술 별도



캐릭터 비닐 만월등
봉축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등
색상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풍경등
색상 : 노랑, 빨강, 녹색, 파랑, 분홍
수량 : 1Box 100개입, 색상별 20개씩 가능
등표(이름표)를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관리가 용이합니다.



연등철사
6cm, 8cm, 10.5cm, 12cm
(50개 1묶음)



연등연잎(일반형)
분홍, 진분홍, 노랑, 주황,
빨강, 녹색, 흰색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폭 90cm / 길이 6m (48,000원),7m(56,000원), 8m (64,000원),10m (80,000원),12m (96,000원)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환영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장엄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엄)현수막 ₩40,000원



연 국 수





● 1개 3,500원 : 3인분(300g)
• 1박스150,000원 : 50개 (150인분)
• 연(蓮)국수에는 전남 무안의 깨끗한 백련잎을 여러 번 덖고 찌고 비벼서 말려 인체에 유해한 왁스층을 제거한 백련잎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근분말이 함유되었으며 스님들의 영양식으로 쓰이는 연꽃씨앗 분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꽃 화장품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부처님오신날 기념 500개 한정특판 !!
• 연꽃화장품 구입시 +1개(남성용또는 여성용) 더 드립니다.
• 가격 : ~~78,000원~~ → 48,000원
※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의 특징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 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등 폐기처리 서비스 !!!
오랜된 연등, 처리하기 힘드시죠?
마하몰에서 실비로 연등을 폐기 처리 해 드립니다.
☎02)732-1520

수련씨앗이 들어있는 **띠별핸드폰줄** 앙증맞은 유리병속에 수련씨앗과 14k 금도금된 12지가 들어있습니다. 특판가 5,000원



• 사이즈 : 총길이 90mm, 유리병 30mm • 재질 : 강호유리, 14K 금도금, 수련씨앗
※ 핸드폰줄의 유리병을 분리하여 목걸이 펜던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련(연꽃)씨앗의 의미는 풍요,행운,번영,장수,건강,명예를 의미하며, 몸에 지니고 다니면 헤아릴 수 없는 복과 행운을 준다고 합니다.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농협 053-01-267081 / 국민은행 023501-04-074548 / 하나은행 111-910006-86204 (예금주:마하몰)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574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4월 19일(음력 3월 22일) 수요일

이 세상 두두물물이 부처요 불법 아닌 게 없어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정신세계의 50%를 밝게 알아야 그대로 물질세계 50%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말입니다. 사람이 반이 죽으면 반이 생하고, 반이 생하면 반이 죽고 하는데, 이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알고 체험을 하셔야만 합니다. 땅속에 있는 금을 캐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금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물에다 걸러서 추려서 다 금붕치로 만들어 놔야 금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서도 또 금이 아닙니다. 인연에 따라서 손이 가야만이 그게 광이 나고 빛이 납니다. 광이 나야 금으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이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나가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도 그렇구요. 우리 몸뚱이가 싹이라면 그 싹을 키워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또 꽃도 그냥 여느 꽃이 아닙니다. 마음의 꽃! 마음의 꽃이 피어야 바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야 씨도 생기고 무르익게 되는데 그 무르익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무르익어야 제 나무에서 익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르익어서 완전히 익어야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갖다가들 먹게끔 돼 있죠. 제 나무에서 익지 않은 것을 따다가, 그냥 선 것을 갖다가 아무리 먹이려고 애를 써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의 철저함과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닙니다. 하다못해 돌부리 하나라도 돌장승 하나라도 풀뿌리 하나라도, 무정물 식물 동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우리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배웠겠습니까?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또는 곤충이든 풀포기든 어느 것 하나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해서 낳고 질척한 데서 낳는 그 천차만별의 헤아릴 수 없는 사생 자체가 전부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곤충이나 짐승 이런 것은 사람처럼 빼고 끼울 줄을 몰라요. 사람은 빼고 끼울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들은 지혜가 없으니 빼고 끼울 줄 몰라서 자식을 낳아 놓으면 그냥 자기 몸뚱일 자식한테다 다 바칩니다. 그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그 모습에 따른 행을 해야만 되겠죠.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무 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개 무명을 쓰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혹간 사람의 의식이 있거든요. 사람의 의식이 있는데 아무리 짖어도 개 대접만 해 주지 사람 대접은 안 해 주거든요. 개 모습이니까 개 대접을 해 주지 무슨 대접을 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머구리같이 소리를 쳐도, '난 아무개다'라고 아무리 악을 쓰고 짖어도 "이놈의 개, 왜 짖어?" 하고서 개 대접을 해 주지 사람대접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한 번 쓰고 보면 그 습에 얽혀서 사람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습에 얽혀서 사람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 사람이 됐을 때 오신통 통 속을 벗어나서 통을 굴려야만 하겠기에 우린 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깨친 부처님들께서 다 말씀하시기를 "봤다고 해서 봤다고 하지 말고,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하지 말고, 타심통이니 천안통이니 숙명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하는 것을 다 한다고 해도 했다고 하지 마라. 그 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사대에 통신을 모두 못하고 마음의 전달을 못하고 행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름 해서 누진이라고 했지마는 마음으로써 마음이 벗어나야 이 모두를 타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처라고 하지만, 깨달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바로 목석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발전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니라. 어느 것 하나 참선 아닌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도량 아닌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중생이다 부처다 따로 볼 게 없느니라.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과 색이 어떠한 것인가? '꽃이 필 때는 색이요 꽃이 질 때는 공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과 색을, 우리의 정신계를 공이라고 한다면 물질계를 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색과 공이 즉, 몸과 정신이 어디 둘입니까? 정맥과 동맥이 돌아가듯 어쩐 거 하나 떼버릴 수 없는, 그저 둘 아니게 돌아가는 작용일 뿐이죠.

그럼 오늘은 이걸로 내 두서 없는 말은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들 하십시오. (대중 박수)

▲질문자1(남): 자비로우신 스님, 먼 길을 오셔서 우리 전남 광주 불자님들을 위해서 큰 법문 받들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 공부를 해 오면서 여러 모로 정신적 평안함을 체득하였습니다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공부 재료로 삼으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은 공부 과정 중에서 의정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지지 속에 문민정부의 부정부패의 척결은 정신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놀라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통 세상을 들끓게 하는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은 중생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한마음 공부를 했더라면 그렇게 타락해서 인생을 망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님의 가르침이 새삼스럽게 더욱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해하자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참된 욕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혼탁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욕망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스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진정한 욕망이라는 것은 더함도 덜함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둘 아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반드시 중용으로서 행을 하지 그냥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용을 하는 겁니다. 안팎을 다 겸해서 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전자와 전자를 한데 갖다가 붙이면 불만 들어올 뿐이죠. 그와 같이 바로 우리가 저절로…, 아까 얘기했듯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만 특별히 마음의 향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게 지켜지면서 모든 공덕이 자기한테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수없이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2(여): 저는 오늘 질문을 올리기 전에 먼저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십 년 동안 몸은 살아 움직였지만 마음은 항상 근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 끝에 불법을 만났지만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과는 달리 부처님은 항상 멀리 계셨고 저는 미혹한 중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 구도 소설 『도』를 접하게 되었고 전 거기에서 '아! 석가모니 부처님 단순히 그분 한 분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아닌 부처님, 그리고 스님,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나'가 둘이 아닌 도리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한다 하셨고 스님께서도 각자 그릇의 크기에 따라 물을 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각의 근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근기는 타고난 것인지요? 그리고 인연 없는 중생이란 무엇을 뜻함인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님: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서 말하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딴 직원들과 똑같이 하질 않고 이리저리 건방지게 굴고, 돌아서면 욕을 하고 돌아서면 딴 짓이나 하고, 훔쳐 내가기나 하고 이런다면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두겠소? 안 두죠? 그러니까 인연 없지! 그거는 인연이 없어서 그 회사에 두질 못해요. 그와 같아요. 하하하….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자3(남): 과학 문명은 50%만 담당할 뿐인데 전체를 채우려면 정신과학, 즉 정신, 마음 법, 심성과학을 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이 계합되지 않고는 완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은 무엇이며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을 계합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불론 앞서의 법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매한 저에게 다시 한 번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기 이전, 자기의 영혼의 근본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일컬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즉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없듯이 씨가 없다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색과 공을 말했듯이, 잠재의식이란 바로 자기의 공을 말하는 거죠. 주인공! 주인공이 바로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불바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 지금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의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만나서 접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가 한다고 그러죠. 항상 자기가 한대요. 진짜 자기가 하는 걸 모르고 이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둘로 보죠. 둘로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계향 정향 얘기를 했죠? 그대로 내 탓으로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도 어떠한 불편이 생긴다 하더라도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마음공부의 지름길에 의해 나는 나대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했으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에너지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전력을 끌어 쓰듯이, 어떠한 용도든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각자가 다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리에 인조 뼈를 넣어도 일 년쯤 지난다면 다시 바꿔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데, 부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자기 마음속의 부처님을 믿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헤매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나쁜 일이 생기고 영계성이 생기고 유전성이 생기고 업보성이 생기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된 것이 자기한테 그냥 뭐 조금도 사해지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과 현재 의식이 함께 한다면 의학계에서도, 즉 말하자면 연구 능률이 아주 100%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계 50%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어요. 병이 오는 것도 영계성에서 오고 유전성에서 오고 업보성에서 오고 세균성에서 오고 인과성으로 오고, 가지각색으로 오는데 그게 어디서 온 줄 알고 치료를 하겠소? 그리고 또, 모르고 치료를 해 봤던들 그것은 나았을지언정 또 딴 데가 불거져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썩은 뿌리를 잘라 버리듯 근원을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남의 뿌리도 알 수 있고, 자기 뿌리를 알아야 자기 나무도 알 수 있고 남의 나무도 알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성의학이라야만이 된다. 심성을 빼놓고는 창조도 못해 낼 뿐만 아니라 발전도 못한다 이런 거죠.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질문자4(스님):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 주신 수많은 스승들께 감사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약간 미심쩍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지금도 몇 천 명씩 굶어 죽고, 또 유고슬라비아는 지금 내전을 일으켜서 수없이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가깝게는 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먹고 사는 것에만, 생명줄을 이어 가는 데만 급급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불사 화주하러 다니는데 거의 두 달 동안 다니면서 제가 제 마음의 부처를 믿는 힘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때는 '내가 내 마음의 부처를 믿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가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자재권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책을 보니까 스님께서는 어떤 영가가 돼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잡아끌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천도를 했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왜 그것이 안되는가? 이런 자제력과 부처를 깊이 믿는 그런 마음 사이에서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하고, 내가 왜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일까 때로는 회의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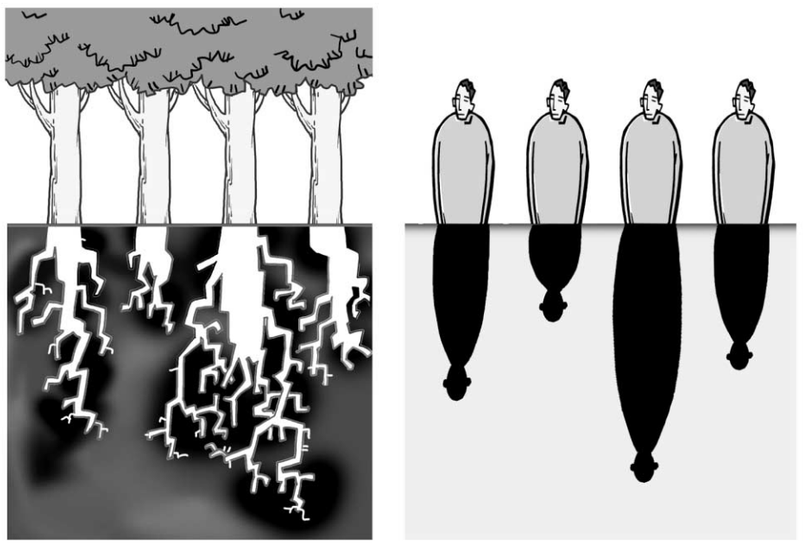
▲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를 할 양으로 주인공, 마음의 부처님을 찾으니까 안되지, 할 양으로 하니까요. 하하하…. 이거 봐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귀신 방구씨를 발견해야….

▲질문자4(스님): 스님, 그건 옛날에 넘어갔습니다. (대중 웃음)

▲스님: 하하하, 발견해야 그 씨의 싹을 기르는데 방구털을 더 먹여도 안되고 덜 먹여도 안된다 이런 뜻이 있듯이, 가만히 앉아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해서 나가서 하게끔 하지 않고 자기 몸뚱이로다가 어떡하든지 해 볼 양으로 그냥 야단법석을 하고 다니니 한계가 있지 않나. 몸뚱이야 언제나 한계가 있지요.

옛날에 축지법을 하는 데도 그거는 몸뚱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술(術)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질 않아요. 로켓이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의 축지법이 아니라면 안 돼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의 진리를 마음으로 하나하나 알고 체험해봐야"

"부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자기 마음 속의 부처님을 믿어야"

하나에서 전부 나오니 그 하나에 전부 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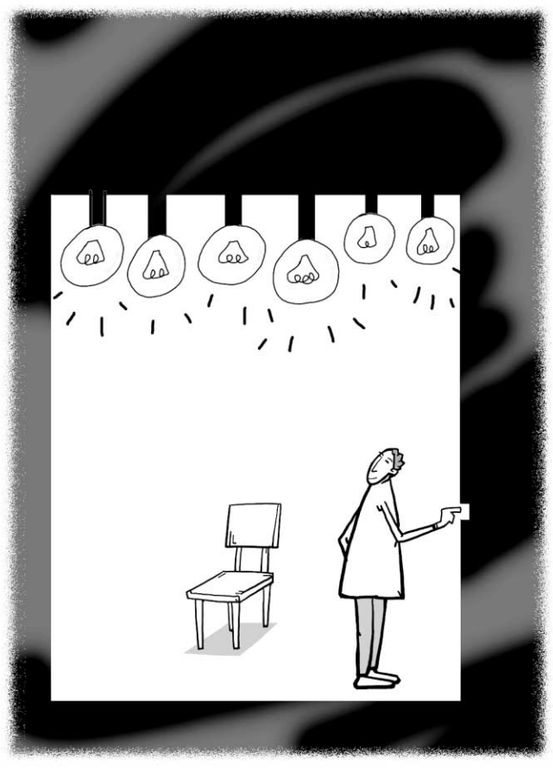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요. 지금 오히려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죽고 사는 거, 하고 안 하는 거를 떠나서 진짜 해 보세요. 그러면 한 찰나예요!

▲질문자4(스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5(남): 이 공부는 곧바로 들어가는 공부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역시 질문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진하디 진한 눈물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열반하신 후에 다시 한 번 이 세상에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대중 웃음, 박수)

▲스님: 하하하…, 이거 봐요. 몸뚱이로 볼 때는 죽는다 산다가 있겠지. 그러나 본래 나온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도리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리, 모든 거를 타파해 보면 아주 세세히 나와 있어요. 가도 가는 게 아니요 와도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떴다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것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작업이, 그 작용이 천체 진리로서 되는데,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소리죠.

▲질문자5(남):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법우님들도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가려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끄달리고요, 자식은 부모와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어긋나는 일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영원히 벗어나는 딱 소리 나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아, 딱 소리가 나게 하려면 자기가 딱 해야지. (대중 웃음, 박수) 아니, 댁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대신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댁이 배가 부르겠소?

▲질문자5(남): 부르지 않습니다.

▲스님: 부르지 않죠?

▲질문자5(남): 예.

▲스님: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고, 먹고 나서 똥마려우면 누고, 졸리면 자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여건이, 세 가지란 말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다면 자식과 부모 사이의 인연도 그냥 둘 아니게 돌아가죠. 즉 말하자면 바람의 인연, 종 치는 인연, 보는 사람의 인연 이렇게 돼야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자식도 인연에 따라서 깡통이면 깡통끼리 만나고, 넝마면 넝마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나서 이 세상에 같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도 똑같은 깡통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똑같은 깡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 거죠. 이 세상을 다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 있죠. 스님은 스님대로 모여 있고, 하하하…, (대중 웃음) 속인은 속인대로 모여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모여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모여서 놀아요. 또 상점에 가 봐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배는 배대로 놓여 있고, 또 금은 금방에 있고 넝마는 넝마전에 있어요. 그렇듯이 모두가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업보에 대한 문제를 그 업보가 나오는 데다 되놔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야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죠.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 뭐를 잘못한다, 나가서 자고 안 들어온다,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대해 줘라. "얘, 너 나가서 배나 안 곯았니? 아이, 어디서 잤니?"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네 일생을 생각해서 네가 지금 알아서 해야지 않겠어?" 하고 웃으면서 "얘, 배고픈데 어서 밥 먹어라." 하고 부드럽게 해 줘야죠. 어떤 것이든지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잡아야지 몸뚱이를 잡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모든 것을 나오는 데다 맡기면, 한 방에 전기 올리는 스위치가 하나이듯이, 부모라는 거하고 자식이라는 거하고 알면 그냥 가설이 된 거예요. 부모다 자식이다 하니까 가설이 된 거죠. 그죠? 그래 가설이 된 거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과 그냥 원수처럼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어휴 세상에, 그렇게 망나니처럼 굴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어머니, 제가 독 닦아 드릴까요?" 하더랍니다. "독 닦아 드릴까요, 뭐 해 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 그냥 놔도 아이한테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야만이 융통성 있게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죽고 사는 것을 떠나서 진짜 해보세요

▲질문자6(남):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과 거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불성은 개개인에 있다' '하나만 있다' 그러는데 이 말들이 조사의 어록과 일치가 되지 않으니 불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이 세상에 두두물물이 부처요 부처님 법 아닌 게 없는데 뭐가 아니고 맞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질문하는 분은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개개인이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불성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형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생각을 못하면 또 목석입니다. 육신이 없다면 또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움쭉거리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움쭉거리게 하고, 전체를 천차만별로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바로 원동력입니다. 원소죠. 그러니까 댁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댁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중 웃음, 박수)

▲질문자6(남): 그러면 스님, 불성은 개개인이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스님: 그럼요!

▲질문자6(남): 많은 스님들과 공부를 했다는 분들은 불성이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그 책의 말과는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려서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사회자: 예. 참 시원한 답이었습니다. 벌써 법회가 시작이 된 지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법회를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스님: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면 두어 사람 더 하세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못하게 되면 그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질문자7(여):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저희들에게 감로법을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님의 가르침대로, 주인공에 믿고 맡기며 놓고 관하라고 하신 대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병고가 생겼을 때나,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향을 하면서 주인공의 나툼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체험을 돌아보면, 어떤 어려운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믿고 관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 일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주인공의 나툼의 시간이 길고 짧은 연유는 무슨 까닭입니까?

▲스님: 그것은 댁의 마음이 큰 것은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은 작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빛보다 더 빨라서 가고 오는 게, 저 달나라에 간다 금성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요 방문 밖에 건너가는 거와 똑같이 맞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것은 '아유, 이거는 정말 어렵겠어.' 하고 그 밑에 찌끄럭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관습이죠. 그러니까 길죠. 그런 건 여러분의 마음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길고 짧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정신세계 물질세계 양면을 다, 정맥 동맥이 거침없이 돌아가듯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열반계에 이른다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죽은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죽는다 산다의 교차로가 자꾸 돌아가는데 거기의 50%만 가지고서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천차만별의 이치를 다 하나로 매기단하고 하나에다가, 하나에서 전부 나오는 거니까 하나에다 전부 놔라 이거예요. 놔도 놔도 두드러지지 않고 껴내도 껴내도 즐지 않는 도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회자: 스님, 이제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스님: 그럼, 고만 해도 됩니까? (합장하시며)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4월 24일 광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납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한함을 얻을 수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 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 천 암 주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 화 : 055)356-2040, 011-867-4747

내 마음속의 불교 (상)

변종원 (대전시 서구 내동)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과연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있을까? 어렸을 때 나는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먹을 것을 주는 교회에 다니며 산타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나는 '믿음'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절에 다니는 어머니와 종교적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때가 내게 있어 큰 변화의 전환점이었지요. 어머니는 내게 '한 집안에서 하나의 종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큰 반발 없이 어머니의 말에 따르게 됐습니다. 종교보다도 부모님의 뜻을 따른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막상 어머니의 말을 듣기로는 했지만, 그간 어느 하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내게 그것을 버리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주말이 되면 다가오는 허전한 느낌은 한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마음고생도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믿음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그러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는 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는 어머니. 1년 365일 중 휴일도 없이 일하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음력 초하룻날 절에 가는 정성에 내 스스로 감복을 했습니다. 어렵게 절에 가는 날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며칠 전부터 가족들에게 고기와 달걀 등을 삼가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매일 저녁 지친 몸으로 염주를 돌리며 불경을 조금이나마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들의 마음도 돌려놓았습니다. '만약 동생이 대학시험에 떨어지면 너희들 책임이야!' 하면서 일요일에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큰누나를 타일렀습니다. 어머니의 무서운 엄포(?) 때문이었을까요? 누나들은 무슨 핑계로도 주말에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교회 예배가 끝나는 오후에서야 가능했고, 그것도 만나는 사람에 대해 확답을 해주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협화음이 있었겠지만,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일치된 믿음에 대한 기도 때문인지 나는 한 번에 대학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큰누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종원아! 그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줄, 넌 모를 거야. 엄마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라고요.

어머니 뜻 따라 귀의했지만 주말엔 '허전'
약한 몸과 마음으로 군 입대해 병원 신세
매일 108배 3회씩… 목표했던 만배 달성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형식적인 수준의 불교에 대한 나의 믿음이 군입대를 하면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즉, 군대시절부터 마음의 한 복판에 불교가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훈련소에서의 종교행사로써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누어 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하는 곳은 개신교. 그 이유는 종교행사를 일주일에 두 번했고 갈 때마다 훈련병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성당)는 일주일 한 번 행사에 한 번씩 주었고, 불교(절)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인지 처음 참석인원의 절반이 두 번째 때는 안 가게 되어 그곳 법사님을 놀라게 해 인솔조교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참석인원은 갈수록 줄어들었으나 불교참석인원은 두 번째 인원 그대로 끝까지 유지가 되어 결국은 평생 간직하게 될 염주와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떠나 2년간의 군생활을 하게 될 부대로 가서는 훈련소 생활과는 달리 동병상련을 하게 될 동기가 없고 힘든 생활로 인해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불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체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군입대 전까지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아 체력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보호를 해 주던 부모님의 그늘은 너무 커서 군입대를 한 나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딱딱한 군화와 군복을 입고 엄격한 군대생활을 했으니 심신은 그야말로 괴로웠습니다.

탈영도 몇 번씩이나 생각 했었지요. 그렇게 단련되지 않은 몸 중에서 특히 발이 문제였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는지, 서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생겼습니다. 결국 군대생활 1년 만에 서울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지친 심신과 불교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체력단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하나의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병원 안에 자리 잡은 의왕사(醫王寺)였습니다.

의왕사를 처음 찾았을 때, 병원 내에서도 산에 위치해 조용한 그 곳이 내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스스럼없이 나는 부처님을 매일 찾아뵙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만 배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불교서적을 읽다가 만 배를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8배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찾아 의왕사를 오게 되었고, 만 배를 다하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절을 찾으며 처음에는 나 하나만의 몸을 위해 절을 했으나, 나중에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 기원한 후 나를 마지막에 찾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절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더군요.

만 배. 처음 이 단어는 내게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성철 스님이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3천배를 하게 한 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많은 수의 절이 몸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니 만 배는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 배를 이삼일에 끝낸다는 생각은 없었고 108배에 의미를 두며 하나씩 한다는 마음, 꼭 만 배를 채우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자신을 비우고 생활 속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해나갔습니다. 절을 한 지 며칠이 지나자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아픔의 고통에서 오는 침울한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배를 다한 후에는 법사님과 군종(법우)이 좋아 의왕사를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 종 공 고

사 찰 명	주지(속명)	소 재 지
관음사	청담(권윤기)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삼백육십오일사	무산(문성열)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용수사	혜오(이상범)	울산시 북구 창평동
원각사	경산(손수찬)	울산시 동구 화정동
해동사	보성(신현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구인사	법명(윤인식)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궁건정리
수연사	보덕(김연행)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수왕사	관전(김성희)	울산시 중구 성안동
불광사	보혜(김옥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 4. 10.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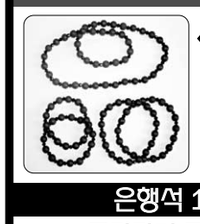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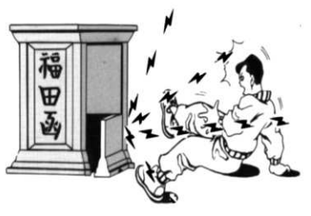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복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 금영

노래방 문화 정착 일등공신

(주)금영의 음향연구소 모습

세계 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 개발 노래방 반주기기에 도입
고객 맞춤형 제품 출시로 점유율 만족도 판매율 부동의 1위

국내 노래방 반주기기 분야 점유율 1위', '노래방 문화를 정착시킨 문화 기업', '복합엔터테인먼트 기업'….

(주)금영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노래방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들어보았을 (주)금영(대표이사 김승영 www.kumyoung.com)은 한마디로 음악을 제작하며 보급하는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1989년 회사 설립 이후 노래방 반주기기를 보급해 일본의 가라오케 수입을 막아내고 국내 노래방 문화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중소 우량기업으로도 유명하다.

금영의 대표적인 사업 영역은 바로 노래 반주기 분야다. 세계최초로 육성 코러스 기술을 개발하여 노래방 반주기기에 도입했고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하드디스크탑재 방식을 고집, 풍부한 음악과 영상을 서비스해 노래를 통해 새로운 노래 문화를 정착시켰다.

인터넷 반주기 시스템, 일체형 하나로 반주기, 앰프, 스피커 등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출시해 현재 노래 반주기기 분야 시장 점유율, 소비자 만족도, 판매율 모두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차량용 DVD 노래방, 가정용 DVD 노래방, TV노래방 등 사업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노래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 및 정서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업부분도 금영이 매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벨소리, 통화 연결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래 반주 음원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에이온을 통해 금영이 보유하고 있는 음원을 바탕으로 무선 노래방과 원음 방송까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TV 포털 서비스라는 신개념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외에도 금영은 방송위원회로부터 데이터방송채널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데 이어 CJ 케이블넷을 통해 집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TV노래방인 '코러스 노래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싸이월드에서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를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청소년에서 중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래 반주기 분야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금영은 일찍이 음악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 들었다. 디지털 원음을 소싱하는 (주)플레이 뮤직을 설립하고 음반 및 연예기획, 제작, 투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각종 프로젝트 앨범 발매, 스타 육성과 스타마케팅을 통한 종합적인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온라인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대리 중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벨소리 등 제공
음악 관련 모바일 콘텐츠 보급 앞장
엔터테인먼트 통한 글로벌 기업 심혈

최근 금영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우려 왔다. 중국 심천에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가라오케의 본고장이라는 일본에도 지사를 설립, 일본시장의 정보 파악 및 영업망을 확충해 금영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폴, 태국, 러시아 등 10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이들 지역 특성에 맞는 노래 반주기기 및 음악을 제작, 보급하며 국내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1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금영이 세계 최고의 노래 반주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금영은 사내에 음향연구소를 두고 노래 반주기의 핵심 멀티미디어 정보인 미디(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를 제작하고 오디오 처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의 뮤지션들을 연구진으로 구성하고 연구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시설과 제작 환경 및 최신 장비를 갖춘 결과 세계 최초 육성 코러스 개발, 코러스 / 가수 템포변화 기술 최초 개발 등 특허 7건, 실용시안 6건, 의장 42건, 상표 4건이라는 연구 성과를 일궈냈다.

(주)금영 김승영 대표이사는 "우리 문화가 꽃을 피우고 음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금영이 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끊임없이 금영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고객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금영, '찬불가 노래방기기' 인기

(주)금영(대표이사 김승영)은 좋은벗풍경소리(회장 성행 스님)와 공동으로 삼귀의, 사홍서원 등 법회 의식곡과 찬불가요, 찬불동요 120여곡을 부를 수 있는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최근 출시했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풍경소리에서 디지털 음원을 제공하고 (주)금영이 노래방 반주기기에 찬불가를 삽입한 노래 반주기기. 엠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기기가 모두 포함된 일체형이라 법회시 반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음향시설이 좋지 않은 사찰에서나 야외 법회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의식곡 · 찬불가요 등 120여곡 장착
사찰 · 학교 · 기업 · 가정집서도 흥겹게

특히 별도의 음향시설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며 자신이 부른 찬불가를 녹음할 수도 있어 찬불가 대중화는 물론 불교 포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찬불가 이외에도 일반 가요는 물론 배경 영상이 불교 관련 영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이동이 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모니터와 본체를 간단하게 분리해서 이동시에도 휴대가 간편하며 사용 방법도 간단해 기업, 학교, 일반 단체의 각종 행사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영은 향후 지속적으로 찬불가를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일반 노래방에서도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3탄약고 호국 창수사 지도법사 부불 천안 천불사 주지 스님은 "법회시간 반주용으로 의식곡을 틀어 보니 병사들이 찬불가를 부르는 소리가 달라졌다"며 "법회에 참석하는 병사들도 많아졌고 법회 분위기도 좋아져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인근 사찰 스님들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법당에 찬불가 노래방기기 보냅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현대불교신문사는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군법당에 보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불자들의 십시일반 보시를 통해 기금이 마련되면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구입해 오지의 군법당에 보내게 된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음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군법당의 법회나 부대 위문 등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장병들의 군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면 주지 스님은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를 통해 불교 주변 문화를 접하면서 점차적으로 신행생활이 깊어진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5

■ 계좌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인기있는 찬불가 10곡은?

1. 오늘은 좋은날 / 2. 길 떠나자 / 3. 너와 나 / 4. 연꽃등 밝히는 날 / 5. 축제 / 6. 육환장 / 7. 이 작은 등불하나 / 8. 등불 보살 / 9. 우리 기쁜날 / 10. 작은 마음의 노래



KY Life is Entertainment Kumyoung

풍경소리와 함께하는 찬불가를 불러보세요

찬불가요, 찬불동요, 법회의식곡 내장 !!



언제, 어디서나 코러스하나로면 OK!
이동이 간편하고 연설용으로 사용하셔도
에코 조정이 가능해 별도의 음향시설이 필요없으므로
기업, 학교, 일반 단체의 각종 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코러스하나로면 OK!
이동이 간편하고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운동장, 사찰내에서의 야외 행사용으로도 제격입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가든행사에서도 코러스하나로면 OK!
신나는 배경영상으로 일반 음식점, 가든, 부페, 돌잔치, 단합회, 망년회
회갑연 등 다양한 분위기의 연출로 각종 행사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코러스하나로면 OK!
가족이 모이는 명절때나 노래연습, 노래를 통한 다이어트 운동까지
가정내에서 다목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찬불가 노래방기기 구입 문의 : (02)2004-8205